

성북동 이 품은 이야기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

발행일 2013년 12월 30일

발행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발행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5가 411)

홈페이지 www.seongbuk.go.kr

연구기관 (재)희망제작소 뿌리센터

디자인 (재)희망제작소

비매품 이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에 있습니다

- 이 책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친환경 재생용지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했습니다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

성북동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가치 있는 기록

성북동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서울 한양도성과 북악산으로 둘러 쌓여있으며, 성곽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성곽과 북악산의 지형을 따라 구릉지가 펼쳐지고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고즈넉한 분위기의 정주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삶을 이어 온 곳입니다.

성북동에는 간송미술관, 심우장, 선잠단지, 성락원, 이태준 고택 등 시대의 다양한 층위를 경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들이 있고, 아울러 근·현대 시대 문인, 화가, 작곡가 등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생활하던 장소가 현재까지도 숨 쉬고 있습니다.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스토리북은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인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성북동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에 대한 내용을 두루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북동 지역 주민과 예술가, 종교인의 인터뷰를 통해 성북동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추억과 스토리, 현재 살아가는 모습, 지역에 대한 미래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 사는 이웃, 친구의 이야기이고, 성북동과 성북구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행본이 간행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랜 시간동안 현장을 누비며 조사에 임해준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 권의 책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지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역사·문화의 메카 성북동을 알림으로써 지역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북구청장 김 영 배

책을 내면서

서울에 이토록 매력적인 공간이 또 있을까!

성북동에는 시간의 흐름이 켜켜이 쌓여 사람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났다.

그 이야기의 작은 부분이라도 담고자 지역의 소중한 목소리를 정리해 보았다.

그럼에도 이 책에는 성북동의 아주 작은 조각들만 담을 수 있었으니 안타까운 마음이다.

다만 나머지 조각들은 여러분의 오감을 통해 느껴보길 바랄 뿐이다.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센터장 홍 선

지난 2년 동안 마치 내가 살고 있는 동네처럼 성북동을 찾았다. 스토리북 인터뷰를 통해서 성북동 사람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한양도성 주변과 성북동 골목길을 걸으며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성북동의 다채롭고 아름다운 풍경과 만날 수 있었다. 성북동에 올 때마다 골목과 마을 풍경의 편안함, 성북동과 함께해 온 사람들의 정겨움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매번 ‘나도 성북동에서 살고 싶다.’ 는 생각을 하였다.

이 책에서 많은 분들이 소망하듯 성북동이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잘 간직하여 후대에도 정말로 살고 싶은 마을,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원 장 우 연

성북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흔히 성북동을 떠올리면 성북동 비둘기와 부자동네를 말하곤 한다. 하지만 성북동 속에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글로 담으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수많은 활동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곳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참 놀라웠다.

성북동 사람들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만나볼 수 있음에 감사한다. 우리가 만난 성북동 사람들의 바람처럼 성북동이 급격한 변화 없이 늘 지금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였으면 한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한번쯤은 성북동의 골목 골목을 천천히 거닐며 성북동을 직접 느껴보길 권하고 싶다.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원 송 지 영

Thanks to...

주민 인터뷰와 스토리북 원고 작성 및 정리에 많은 도움을 준 안수정 인턴연구원, 김도일 인턴연구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발간사 · 4

책을 펴내며 · 6

PART 1

역사 속의 성북동

1. 성북동의 시작 - 조선시대

- 물 흐르는 골짜기마다 복사꽃 만발한 동네 · 14
- ‘포백’과 ‘훈조’를 업으로 한 첫 주민 · 18
- 여성이 주체가 된 선잠제 · 20
- 양반들의 별궁터 · 22
- 쌀바위 설화 · 22

2. 최초의 공동체 형성 - 일제강점기

- 늘어나는 이주민으로 인구증가 · 24
- 지역운동의 주체가 된 성북동 사람들 · 27
- 지역 주민운동 ‘성북정회’ · 28

3. 개발 열풍이 만든 성북동의 두 얼굴 - 해방 이후부터 현대까지

- 해방과 함께 들어선 판자촌 · 31
- 청와대 옆 동네 · 33

PART 2

문학작품 속의 성북동

프롤로그 · 40

1. 첫 번째 인연 - 소멸하지 않는 사랑의 기억을 찾아서

·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 본 여인의 사랑 - 백석과 김영한 · 41

· 편견을 뛰어 넘은 사랑 - 김환기와 아내 김향안 · 45

2. 두 번째 인연 - 의로운 길을 걸은 사람들

· 간송미술관을 세운 민족문화의 수호자 - 간송 전형필 · 51

· 고요를 사랑한 시인, 민족혼의 상징 - 만해 한용운 · 55

3. 세 번째 인연 - 시대를 품은 공간

· 상허 이태준의 소소한 행복을 담은 집 - 수연산방(壽硯山房) · 59

· 소설가 구보씨가 남긴 일상의 흔적 - 구보 박태원의 집터 · 62

· 근원 김용준이 그토록 사랑했던 늙은 감나무가 있는 집 - 노시산방 · 64

에필로그 · 67

PART 3

성북동 사람들

1. 성북동 주민

- 한옥을 사랑하는 성북동 여장부 - 정미숙 한국가구박물관 관장 · 71
- 우리나라 서예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서예문화 전도사 - 김순기 한국서예관 관장 · 77
- 지역의 사랑방을 꿈꾸며 - 황선영 성북나눔연대 사무국장 · 82
-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엄마들의 모임, 성·아·들
 - 이선화, 노승화 성·아·들 공동대표, 운영위원 · 90
- 성북동의 민간 외교사절 - 이은준 성북동 통장 친목회 회장 · 96
- 성북동 전통문화 선잠제 행사 보존에 앞장서다 - 현금동 성북동 선잠제보존위원회 위원장 · 102
- 삶이 예술인 아름다운 여인 효재 - 이효재 한복디자이너 · 108
- 고향과 같이 푸근한 마을, 성북동 - 최성수 시인 · 116
- 도타운 정이 살아있는 우리 동네 북정마을
 - 김현동 성북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경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123
- 마을의 역사와 함께 한 오래 된 가게 이야기
 - 김향규 금녕약국 약사, 이덕훈 새마을원 이발사 · 131

2. 성북동 문화예술인

- 열려있는 동네 갤러리를 운영하는 청년예술 이장 - 서준호 오뉴월 대표 · 137
- 생명과 소통의 가치를 전파하는 마고할미 - 나선희 문화재청장 · 142
- 문화유산의 보고, 성북동의 문화유산 지킴이 - 강성봉 성북문화원 사무국장 · 150
- 경계를 넘는 달빛 마을 축제 越-Wall 이야기 - 이해경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교수 · 155
- 예술을 통해 지역과 젊은 작가에게 희망을 주는 멋진 문화예술인 - 김성희 캔파운데이션 이사 · 163
- 성북동의 고즈넉한 성곽길을 좋아하는 긍정적인 동네건축가 - 박준호 EAST4 대표 · 171
- ‘시민문화유산 1호’가 이웃과 지내는 법
 - 최호진 (주)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사무국장, 송지영 학예연구사 · 180
- 예술혼이 깃든 마을, 성북동 - 김보라 성북구립미술관 관장 · 188
- 지역예술가와 주민이 만나도록 다리를 놓다 - 이준희 성북문화재단 행정지원팀 기획실장(전) · 196

3. 성북동 종교인

- 봉사과 베품을 통해 지역선교를 실천하는 목회자 - 손인웅 덕수교회 원로목사 · 205
- 고향 같은 동네 성북동과 함께 해온 성북동 성당 - 안병노 성북동 성당 사무장 · 213
- 무소유를 실천하는 ‘맑고 향기롭게’ - 홍정근 길상사 부설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장 · 219
- 성북구 마니아 스님 - 혜강 성북동 관음사 주지 스님 · 226

부록

성북동 마을사진전 · 232

성북동은 오랜 역사와 문화가 숨 쉬고 있는 지역이다. 삭막하고 정형화되어 있는 도시

서울에서 성북동처럼 아름다운 자연과 많은 역사적 공간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은

그리 흔치가 않다. 동네가 담고 있는 우리의 옛이야기도 꽤 흥미진진하다.

지금부터 성북동의 역사와 그 안에 존재하는 공간의 이야기를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

라 60년대 이후까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되짚어 보려고 한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옛이야기를 알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잊혀져가고 있

는 과거와 소통하는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북동의 새로

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PART 1

역사 속의 성북동



성북동의 시작

—조선시대—

물 흐르는 골짜기마다 복사꽃 만발한 동네

도성의 동쪽으로 나가 북쪽으로 3, 4리를 가면 북적동(北笛洞)이 있다. 북적동은 도성에 가까우면서 명승지로 소문난 곳이다. 봄이 저물 무렵이면 하루라도 거리에 사람이 없는 때가 없다. (중략) 북적동 입구에는 드러누운 너럭바위 위로 물이 질펀하게 흐르는데, 물가를 따라 계속 이어져 있어 이곳저곳 골라 밟기도 하고 풀쩍 뛰어넘기도 하였다. 북적동 안으로 들어가자 널찍하던 바위가 길쭉하게 이어지고 질펀하게 흐르던 물은 한 곳으로 모여 골짜기 가운데에서 개울을 이루었다. 개울을 사이에 두고 언덕이 있으며 언덕이 높이 솟아 산을 이루는데 둘레가 거의 몇 리나 되었다. 사이사이에 촌락이 별처럼 드문드문 자리 잡고 있었다. 촌락 너머로 언덕에서 산에 이르기까지 복사꽃이 뻥뻥하게 피어 있었다. 흰 것도 있고 붉은 것도 있으며, 질붉은 것도 연붉은 것도 있었다. 게다가 곳곳한 소나무와 축축 늘어진 버드나무의 일산이나 병풍 같은 모습이 희뿌연 비와 희미한 안개 사이로 어리비쳤다. 왕왕 꽃잎이 개울로 떨어지면 개울물이 온통 꽃잎과 같은 색으로 변하는 듯하였다. (중략)

“어르신이 이곳에 살면서 어릴 적부터 젊은 시절을 거쳐 늙어서까지 하루라도 오늘날처럼 골짜기가 요란하지 않았던 날이 없지요?” 그러자 주인이 말하였다.

“사방의 교외에 명승지로 알려진 곳은 동쪽 교외가 최고인데 동쪽 교외에서도 북적동

이 더욱 유명하지요. 아리따운 꽃이 향기를 뿜고 아름다운 경치가 자태를 뽐낼 때면 도성의 남녀들이 미어지지 않는 날이 없지요. 그러다 꽃이 지고 물이 줄면 산은 텅 비어 버립니다. 때때로 오가는 이들이라고는 푸닥거리를 하는 노인이나 빨래하는 아낙네뿐이요, 붓물이 빠진 듯 썰렁하지 않은 적이 없지요.”

〈명고전집〉 중에서, 서형수 저, 이종묵 역

4대문 중 하나인 **숙정문(북대문)**부터 4소문 중 하나인 **혜화문(동소문)**까지 이어지는 성벽 밖에 있어 이름 지어진 성북동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우리의 역사,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중에서도 제일로 손꼽힌다.

예부터 성북동은 복숭아와 앵두나무가 특산물로 재배되어 성북동 사람들은 과실들을 팔아 생업을 유지하여 북저동, 도화동, 복사동 등 특히 복숭아와 관련한 여러 이름들로 불렸다.¹ 북둔²하면 대번에 ‘복사꽃!’ 이 튀어나올 정도로 서울 내에서는 유명하였다.

봄철 꽃이 필 무렵이면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만개한 복숭아꽃을 보기 위해서 앞다투어 성북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한다. 성북동 복숭아꽃에 반한 조선 문인들도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많은 글과 시를 남겼다.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그리고 북대문? 숙정문

국보1호인 숭례문과 흥인지문, 돈의문은 서울로 통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문들이지

1 조선왕조실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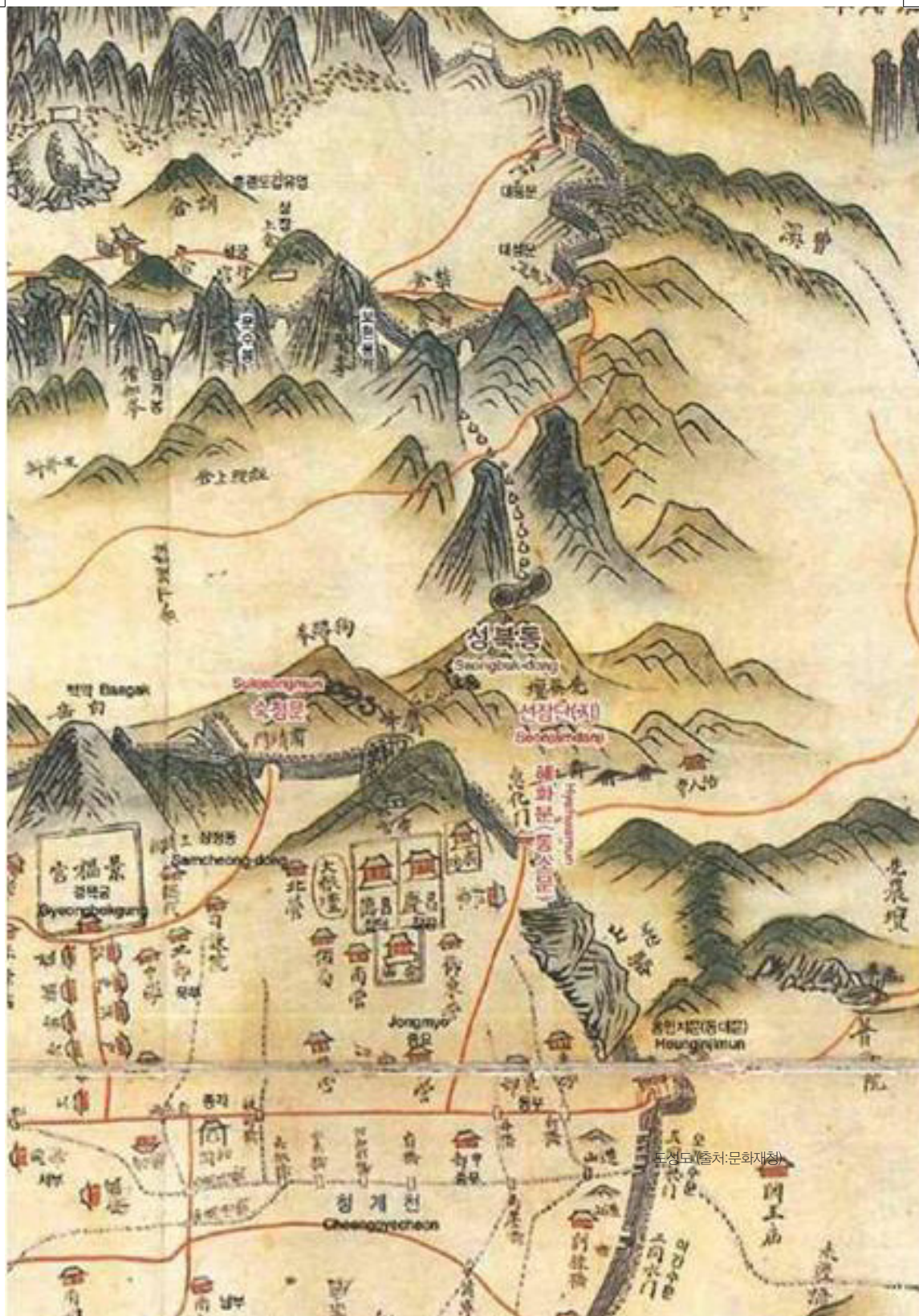
2 조선시대 도성 수비를 담당했던 어영청의 북둔을 말함. 1765년 영조 41년에 설치되었다.

만 ‘북대문은 어디에 있지?’ 라고 할 정도로 북대문, 바로 숙정문은 우리에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다.

서울의 북쪽 대문인 숙정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과 비슷하게 과거 통행이 적고 주로 닫아두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정북 쪽 문을 숙정문이라 하는데, 위에 집 지은 것(문루)이 없으며 닫아둔 채 다니지 않는다.’ 함은 숙정문 이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풍수지리학 상 숙정문은 경복궁의 양팔에 해당하여서 길을 다니지 않도록 하여 보존한다 해서 소나무를 심어 폐쇄하였다고 한다.

실학자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숙정문의 위치가 산속 깊이 음방에 있어 이를 열어둔다면 도성의 부녀자들이 음란해지기 때문에 닫았다’ 고 한다. 항상 굳게 닫혀 있던 숙정문도 특별한 경우에는 그 문을 열었다. 음양오행설에 따르면 숙정문은 북쪽 음에 해당하여 가뭄이 들면 문을 열어 음을 기운을 살리고 남쪽 숭례문을 닫아 양의 기운을 조절했다. 비가 많이 오는 때에는 숙정문을 닫아 음의 기운을 끄는 역할을 하였다. 연산군 때 숙정문의 위치를 약간 동쪽으로 옮겨 지금의 자리가 되었다. 현재 숙정문의 모습은 처음 지어졌을 당시에는 문루가 있었음을 고증해 복원하였으며, 북쪽으로 통하는 서울의 4대문으로 활짝 열려있다.

복숭아와 관련한 이름들처럼 지금은 사라진 이름들이지만 성북동은 노구멧골, 논골, 운수동, 묵사동, **도독골**이란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렸다.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노구메(밥)를 떠 신령께 제사를 지냈더니 남편이 돌아왔다 하여 노구멧골이라 부르기도 하였고, 논이 없고 산골지역인 이곳에 논다랑이를 놓고 살아서 논골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또 예전에 묵사(墨寺)라는 절이 있던 곳이라 묵사동이라 하였는데, 실학자 서애 류성룡도 묵사동



에 살았음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 옛날 도둑굴이 아직도?

숙정문 밖 성북동 일대는 계곡이 깊고 산세가 험해 도둑들이 많이 숨어사는 장소로 유명해 도둑굴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성북동은 여전히 도둑촌이라는 별명을 안고 있다.

60년대 이후로 국내 정치인들, 재계 인사들과 대사관저가 몰려 있어 성북동은 대한민국 부자 동네 1순위가 되었다. 이상한 사실은 이 부자들은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어도 쉬쉬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성북동 부자들을 특성을 도둑들은 더 악용하여 대범한 도둑질을 하고 있다.

과거 도둑들이 숨어 지내던 곳이었다면 현재는 도둑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이곳. 도둑굴의 기운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일까?

‘포백’과 ‘훈조’를 업으로 한 첫 주민

영조시대에 지금의 성북동에 성곽지역을 지키는 어영청의 둔진을 설치하여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였는데³ 이들이 성북동의 첫 주민이다.⁴ 그러나 이 지역이 산세가 험해 농사를 짓기 어렵고 과실나무가 많아 열매가 많이 났지만 열매만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사람들이 떠나거나 도망쳐버렸다. 나라에서는 주민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지역 주민에게 각 시장에서 파는 포목을 포

3 서울지명사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4 성북문화원, 역사, 동별 유래



숙정문 (출처:한국학중앙연구원)



마전터 표지석

백(마전, 옷감을 찌서 햇볕에 말리는 일)하고 혼조(메주)를 쑤어 상납하는 것을 업으로 삼도록 하였다고 한다.⁵

지금으로 말하면 세탁업과 메주를 쑤는 일을 나라에서 독과점 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창의문 사람들이 이 메주를 쑤는 일에 자주 침범하여서 큰 싸움이 나서 영조가 타협하여 두 곳 모두 업을 하도록 하였다. 1960년까지만 해도 성북동 주민들이 성북천을 따라서 나란히 앉아 빨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성북초등학교 앞쪽에 마전터라는 이름의 음식점으로만 남아 있다.⁶

여성이 주체가 된 선잠제

옛 성북동에 누에가 좋아하는 뽕나무가 가득 들어섰던 장소가 있다. 바로 매년 선잠제를 지내던 곳이었고 지금은 터로만 남은 선잠단지다. 고려시대부터

5 〈성북동포백훈조계원문절목〉

6 서울의 하천,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66p

중국 황제의 비 서릉씨를 잠신으로 하여서 누에농사의 풍요를 빌었는데 이것이 바로 선잠제이다. 조선시대로 와서 선잠제가 끊겼다가 정종 때 와서 다시 시작하였다. 중종은 백성에게 누에 농사의 동기부여를 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잠제를 되살렸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를 지내면 남자들이 앞에 서고 여자들은 뒤로 빠져나와 있다. 그러나 선잠제는 의생활과 관련된 제사이기에 여성이 제의 주체가 되는 의식이다.

성북동에서는 1993년부터 매년 5월 과거 옛 선잠제를 재현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새기고 있다. 여성이 주체가 되었던 것을 대표하는 왕비행렬 또한 같이 진행하고 있다.



선잠제 (출처:성북문화원)



선잠단지 (출처:문화재청)

양반들의 별궁터

성북동은 산세가 깊고 경치가 아름다워서 조선시대 왕족과 양반들의 별장이 많았다.

1929년 창간된 교양잡지 <삼천리>는 '서울에는 부자양반이 많이 산다. 그러나 조선인 부자가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는 수석(水石)이 좋은 성북동 일대를 가리키리라. 이제 별장지대를 순례하는 첫 길로 성북동 일대를 위선 보기로 하자.' 라며 성북동의 별장을 소개하는 글을 싣기도 하였다.

고종의 아들인 의친왕의 별궁이었던 성락원은 정원 골짜기에서 물이 곱게 흐르고 울창한 숲이 둘러 있었다. 내원에는 옛 조선시대 별궁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본재누각, 폭포와 연못이 있어서 우리 정원의 아름다움을 더해주었다.

조선말기 문신이자 순국지사인 민영환의 별장인 음벽정에는 많은 명사들이 찾아 왔다. 서양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었던 민영환의 별장이었기에 조선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도성을 나가 이곳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현재 간송미술관으로 남아있는 문화재수집가 전형필의 별장, 젓갈장사로 폐단을 벌었던 이종상의 별장인 현 이재준 가옥 등은 성북동에 고풍스러움을 더해준다.

쌀바위 설화

숙정문 밖에는 쌀바위⁷라는 바위가 있다. 어느 날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숙정문 주위로 나가 어느 바위에 기대 쉬고 있었다. 그런데 그 바위에서 쌀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나무꾼이 놀라서 쌀을 담아 보니 한 되 정도가 되었다. 산을 내려와 밥을 지어 먹은 나무꾼은 혹시나 해서 다시 바가지를 들고

7 성북문화원,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



의친왕의 별궁이었던 성락원

산을 올랐다. 신기하게도 밥 때가 되자 바위에서 또 쌀이 흘러내렸다. 이후로 나무꾼은 항상 밥 때가 되면 쌀을 받아 집에 와서 밥을 지어 먹었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쌀을 받으러 산을 오르던 나무꾼에게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 번에 많이 받아 놓으면 끼니때마다 산을 오를 이유가 없잖아?”

나무꾼은 이번에는 집에서 쌀자루를 챙겨 산에 올랐다. 바위에서 쌀이 나오면 채우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다 때가 되면 또 쌀을 채워 산을 내려가기를 반복한지 어언 한 달. 어느 날 나무꾼이 다시 쌀자루를 들고 바위에 갔다. 하지만 쌀이 나오던 바위에서는 쌀이 아닌 끈적끈적한 물만 흘러 나왔고 나무꾼은 더 이상 쌀을 얻을 수 없었다.

이 설화에 등장하는 쌀바위는 숙정문 일대의 ‘미암’으로도 불린다. 너무 과한 욕심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최초의 공동체 형성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많은 문인들이 북저동의 복사꽃을 보고 아름다운 산세와 골짜기의 계곡들을 노래했던 것처럼 성북동은 근대 문인들을 다시 이곳으로 불러들였다. ‘문인들이 모이는 산속의 작은 집’이라는 뜻의 수연산방은 당시 내로라하는 한국의 문인들이 아름다운 풍경과 수려한 산세를 품은 성북동에 거주했음을 보여준다.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엿새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하였다. 무어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짝 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못한 이란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주었다.’

〈달밤〉 이태준

늘어나는 이주민으로 인구증가

성북동 수연산방에 거주하면서 한국 대표 문인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하였던

이태준은 일제강점기 시기의 성북동을 ‘시골’이라 표현했다. 화려한 별장들을 제외하고 백성들이 마전을 하고 메주를 쑼다며 생활을 하던 성북동은 정말 시골 그 자체였다. 이태준이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느낀 성북동은 때 묻지 않은 자연을 닮은 민초들의 삶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 성북동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4대문 안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도시 구조를 도성 밖으로 넓히면서 도성 밖 지역에 이주민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택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성북동은 기존에 있던 초가집들을 허물고 개화된 ‘조선집’들이 들어섰다.

성북동에도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였다. 어느새 원주민 보다 이사 온 외지인의 수가 많아졌는데, 다른 지역들과는 다르게 성북동에는 자연풍경을 흠모하여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⁸

일제강점기 사라진 혜화문과 사람들

혜화문은 일제강점기 도시 확장과 문루가 낡았음을 구실로 삼아 사라졌다.

서울의 4소문 중 하나로 도성의 북동쪽에 있다 하여 동소문이라 불렀던 혜화문은 처음에는 홍화문이라 불리었다. 성종 15년 창경궁을 새로 지으며 동문을 홍화문이라 하면서, 두 문의 이름이 똑같아졌다. 혼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종종 때 혜화문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숙정문이 풍수지리설과 음양오행설의 영향으로 일반인의 통행이 거의 불가능하였던 탓에 양주와 의정부, 북쪽으로 통하는 혜화문의 이용이 빈번하였다. 또한 왕이 활을

8 <지역사회 문화유산의 재조명과 새로운 도시경관의 창출>, 강석훈, 2010



혜화문

쓰기 위해서 홍화문 밖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와 무과 시험을 홍화문 밖에서 치렀다는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에 자주 등장한다.

혜화문은 조선 말기까지도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해서 나라에서도 성문을 보수하면서 계속 사용하였지만, 1928년 일제강점기에 전차 노선을 설치하기 위해 문을 열어 버렸다. 1994년 혜화문은 혜화동고개에 다시 세워졌다. 하지만 과거에 사람들이 활기차게 지나다니던 혜화문 앞의 모습은 사라지고 옛날 자리가 아닌 곳에 세워진 홍화문(혜화문)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지역운동의 주체가 된 성북동 사람들⁹

도성 밖 지역들이 개발되면서 원주민이 아닌 새로운 주민이 거주하게 되었다. 성북동도 그 지역들 중 하나로 거주하는 주민이 배로 늘어났다. 문인들과 예술인들은 도회지를 벗어나 시골스러움을 즐기기 위해 성북동으로 이사와 문화 예술촌을 이루었지만 성북동도 개발의 손을 피할 수 없었다.

성북동의 자연환경을 따라 이사 온 지식인, 문화인, 부호들은 토박이들과 함께 성북동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역운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주체가 되었다.

성북동의 상류층 젊은 청년인 이신구¹⁰를 중심으로 한 성북동의 지역공동체는 활기를 띠었다. 이는 이신구의 노력도 컸지만 성북동 주민의 자발적인 참

9 <동원과저항>, 김영미

10 일본 명치대학 정경학부 졸업, 정주 오산고등보통학교와 경성 협성실업학교 교사, 송인면협의회회원, 성북정 총대, 경성부회 의원

여에 기반하고 있었다. 재력가들이 많이 살고 있던 성북동에서 주민은 빈민을 위해서 쌀을 기부하였고, 유지(有志)들이 모여 ‘성북유치원후원회’를 만들어 ‘성북유치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신구를 중심으로 꾸려진 성북정회¹¹는 주민들의 참여가 바탕이 되었기에, 주민들과 함께 꾸준히 지역 활동을 전개하였다. 기존에 성북동에 있던 요정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면(安眠)을 방해하지 말 것과 풍기가 문란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차량출입을 통제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더 이상 요정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성북동이 **요정촌이 되는 것을 막아냈다**.

지역 주민운동 ‘성북정회’

1938년 2월 <동아일보> 기사에는 ‘하수도 설비가 없는 데다가 수도까지 없어 우물물을 음료수로 하는 성북정에 전염병 요양원(폐결핵환자 요양원)이 설치된다는 것을 알은 성북정 육천주민은 보건상 이것의 반대운동을 이르킨다함은 기보한 바이니 십육일 오후 칠 시부터 정회회관에서 임원 삼십오 명이 출석하여 토의한 결과 교섭위원 육 명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병원경영자인 정홍섭 씨에게 중지 권고를 하고 그래도 불응하는 때는 주민대회를 열고 동시에 요로 각 당국에 진정하기로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다.

지금은 결핵을 정복해 결핵의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면 요양원을 반대하는 것이 단순한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결핵은 상당히 위험한 전염병이었다. 일제강점기 한 분석에 의하면 1930년대 전체 조선인의 25%가 결핵환자로 판정되었으며, 이는 거의 세

11 1936년 성북동이 경성부에 편입되면서 기존의 마을 운영조직이 개편된 주민조직. 성북정회는 ‘요정추방운동’ ‘수도 부설 운동’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주민운동’을 펼쳤다.

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게다가 수도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전염병의 확산은 더 컸었다. 성북정회가 수도시설정비를 요구한 것은 성북동 전체 주민의 바람을 대변한 것이었다. 이태준을 비롯한 다른 문인들도 폐결핵환자 요양원을 반대하였다.

성북정회를 비롯해서 성북동에 살고 있는 주민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북동을 보존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내용은 주민이 동네를 지켜낸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성북동에 사는 이신구라는 젊은 엘리트가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주민과 성북동에 기거하고 있는 문인들의 힘이 없었다면 성북동의 마을공동체는 활성화되지 못했을 것이다.

성북동 요정들 그리고 길상사

요정은 근현대 대한민국 밀실정치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3대 요정 중에 삼청각과 대원각이 바로 성북동에 있었다. 또한, 순국지사 민영환의 별장이었던 음벽정도 요정이 되었다.

삼청각은 유신시대의 대표요정으로서 남북정상회담, 정치인 회동 그리고 외국 사업자를 접대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시대가 바뀌면서 요정으로 대표되던 ‘방석문화’가 이른바 ‘룸살롱 문화’로 대체되었고, 재정난을 맞이한 요정들은 차츰 쇠락하게 되었다. 삼청각도 이런 이유로 간판을 내리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 문화를 알리는 전통문화공연장으로 남아있다.

시인 백석의 연인으로 알려진 김영한은 대원각의 주인이었다. 법정스님의 ‘무소유’에 크게 감명을 받아 요정을 운영하여 돈을 벌던 것에 부끄러움을 느낀 김영한은 법정스

님을 찾아가서 대원각을 시주하였다. 법정스님은 대원각을 절로 바꾸면서 김영한의
법명인 '길상화'를 따서 '길상사'라 이름 지었고, 그녀의 바람처럼 길상사는 많은 사
람이 마음의 안식을 찾는 쉼터와 같은 공간이 되었다.

음벽정은 민영환의 생전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와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끼
던 장소였다. 1939년 3월 동아일보에 실린 <경성동명점고>에서는 음벽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이래서 여기는 예부터 재상가의 별장이 많더니 그중에도 근년의 민충정공 별장 음벽
정은 유명하던 것이었다. 어이없다. 이 음벽정이 말세에 이르러 탕자들의 술 놀이, 계
집놀이터가 된 채 음벽정이란 정호마저 그대로 욕을 볼 줄 지하의 민충정공이 알거나
할 것인가?’ 민충정공(민영환)이 나라를 빼앗겨 자결을 택하였듯이 그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음벽정도 같은 마음이었을까? 1939년 불을 너무 때서 이불로 불이 옮겨진 화재
로 소진되고 현재는 그 터만 남아있다.

개발 열풍이 만든 성북동의 두 얼굴

— 해방 이후부터 현대까지 —

35년의 일제강점기는 1945년 8월 15일 지독하고 고통스러웠던 시대의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한 민족끼리 서로 다른 이념을 두고 싸운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전쟁으로 인해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가족이 전쟁에 끌려가고 이웃을 잃어버렸다.

해방과 함께 들어선 판자촌

성북동도 다르지 않았다. 지금의 간송미술관과 혜화문 앞에는 기마부대와 큰 전차가 들어섰다. 성북동 어느 곳을 가더라도 군인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당시 성북동에 살고 있던 많은 정치권과 재계, 문화 인사들도 납북되었다.¹²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민족끼리 칼로 찌르고 총을 쏘 죽이던 한국전쟁은 분단이라는 뼈아픈 상처만을 남긴 채 끝났다. 전쟁을 피해 피난을 떠났던 성북동 사람들도 돌아왔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라졌지만 성북동의 인구는 계속 늘어났다. 살 곳이 없는 사람들이 판자와 슬레이트를 하나씩 들고 성북동의 골짜기 곳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12 성북동 잊혀가는 우리 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길상사

무분별하게 들어선 무허가 판잣집들은 정부나 원주민에게나 골칫거리였다. 다닥다닥 붙어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판자촌 사람들은 잦은 화재로 거주지를 잃기 일쑤였다. 조금이라도 비가 내리면 발생하는 침수 피해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성북구 성북동에서는 산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흙탕물 때문에 폭 7미터, 길이 400미터의 도로가 물에 잠기었고 또한 수많은 가옥이 침수되었으며’

〈동아일보 1963. 07. 18〉

정부와 주민들 모두 뒤죽박죽 정신없는 이 판자촌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

청와대 옆 동네

이전부터 성북동 재개발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대두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시작된 것은 60년대 이후부터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고 박정희 군사정권이 등장하게 되는데,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을 비롯한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청와대와 가까운 성북동에 동지를 틀게 된다.

‘성북동과 정릉 삼청동 주변에 군부의 수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청와대로 출퇴근하기 좋도록 삼청터널을 뚫은 것입니다.’

— 맑고 향기롭게 홍정근 사무국장

정치권 인사들과 더불어 재계 인사들도 하나 둘 성북동으로 들어왔다. 의친왕의 별장이었던 성락원 주변은 예부터 평이 많아서 ‘평의 바다’로 불리었

는데, 이 지역으로 부자들의 저택과 외국 대사관저가 들어서면서 썩은 자취를 감췄다. 대신 대저택이 즐비한 지금의 성북동 주택가의 면모를 빠르게 갖추게 된다. 해방 이후 성북구는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고 부유층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거세게 몰아친 재개발의 물살을 피할 수 없었다.

‘성북동 15~16일대 무허가 판잣집 주민 2500명은 “1만 주민의 안식처를 빼앗지 말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혜화동로터리까지 데모를 했다.’

〈경향신문〉 1968. 05.04

판자촌 사람들과 원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개발은 성북동 주민의 반발을 샀다. 각박한 도회지의 삶을 피해 도성 밖 자연 속 성북동으로 이주해 온 문인들과 예술인들, 잔혹한 전쟁의 피해를 입고 살 곳 없어 깊은 성북동 골짜기로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원주민들은 새로운 도회지로 변하는 성북동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과거 아름다운 자연풍경으로 문인들과 예술인들을 끌어들이던 성북동이 변해가는 모습을 시인 김광섭은 시 ‘성북동 비둘기’에 빗대어 탄식했다.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짝어 먹을

넋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溫氣)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남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개발이 진행되면서 자주 범람하던 **성북천**도 복개하게 되었다. 성북천은 예부터 마전터¹³이기도 하였지만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면서 수다를 떨던 성북동 여성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물이 맑아 아이들이 천에 모여서 해엄을

13 피륙을 삶거나 빨아서 바래는 곳. 표백하는 곳

치면서 놀 수 있는 놀이터이기도 하였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자와 남자들이 성북천을 바라보던 모습이 달랐다는 점이다.

여성들은 항상 천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빨래를 하였기 때문에 물이 맑았다고 말하는 반면에, 천에 내려가 가까이 보지 않고 여성들이 빨래를 한 후 흘러보내는 뗏목만 보았던 남성들은 성북천을 더럽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즐겨 부르던 북둔(성북동)의 복숭아꽃은 성북천이 복개되면서 같이 사라졌다. 조선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성북천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성북인의 모습은 이제 옛 사진과 문헌 그리고 당시 살고 계셨던 어르신들의 입으로만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현재는 안암천과 이어지는 성북천 하류 부분만을 개복하여 과거 성북동을 가로지르던 냇가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해준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516 군사정변을 겪으면서 성북동은 무차별적인 개발에 몸살을 앓았으며 이전까지 있었던 고귀한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퇴색했다. 성북동에 스며들어서 북둔의 주민으로 살았던 문인들, 예술인들과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공생하던 시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과거 자연풍경과 어우러져서 유유자적 생활하던 성북동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미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성북동은 여전히 귀중한 역사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동네다. 아주 잠깐 단절되었던 우리 동네 성북동과 성북동 사람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야 할 때다.

성북동 일대 바위틈서 솟아 위장병에 효험설도!

현재 이 일대에 남아있는 약수터는 삼청터널 바로 밑의 한 곳과 서독대사관저 위의 한 곳 등 2곳 밖에 안 되지만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골짜기를 따라 약수터가 널려있었다. 7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이 일대가 신흥 고급주택가로 발돋움하면서 개천이 복개되어 약수터는 하나둘씩 땅속에 묻히게 됐다.

특히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아있는 삼형제 약수는 맛이 달고 위장병에 좋다는 얘기가 전해져오고 있다. 삼형제 약수는 바위 바닥을 뚫고 솟아났다고 하는데 그 위치는 지금의 대원각과 성락원 계곡 바로 아래쪽이다.

〈경향신문〉 1983. 04. 09

숙정문과 김신조 루트

‘역사는 반복된다.’ 라고 토인비가 그랬던가. 조선시대 일반인들에게 달여있던 숙정문은 60년대에 다시 굳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게릴라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서울에 침투하였던 일명 ‘김신조 사건’ 이 발생한다. 침투 조 총 31명 중 1명 도주, 사로잡힌 김신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살 당하였지만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다. 김신조는 지금의 북악스카이웨이를 통해서 도망쳤다고 한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41년간 폐쇄되어 있던 숙정문 주변의 북악산 산행 길은 2009년 김신조 루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탄생하였다.

PART 2

문학작품 속의 성북동



프롤로그

사전을 찾아보면 ‘인연(因緣)’이란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혹은 어떤 사물과 관계되는 줄이라고 서술되어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이 맺어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한 공간 속에서 다양한 관계들을 잇는 연으로 이어진 이야기들이 생겨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 쉽지 않은 인연들이 모여 이야기를 만들고, 세대를 거쳐 새로운 이야기가 더해지며 면면히 이어지는 곳이 바로 ‘마을’이다. 이제부터 그 마을 중에 ‘성북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태준은 수필 <무서록>에서 성북동을 ‘광명이 산상의 옛 성벽에서 시작되어 퍼져 내려오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 성북동은 예로부터 산이 좋고 물이 맑았던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곳 중 하나이다. 성북동을 수식하는 많은 단어 중, 역사와 문화는 단연 으뜸으로 꼽힌다. 성북동 곳곳에는 문화예술인들의 이야기가 깃든 곳이 많이 있다.

‘문학작품 속의 성북동’은 성북동과 인연이 닿은 문화예술가를 중심으로 그들과 성북동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성북동에 살았던 인물, 공간이 가진 의미를 재조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용운이 성북동에 자리를 잡은 것은 1933년. 산은 산 그대로도 빛나는 것이지만 인물이 있어 산이 더욱 빛날 수 있으니, 사람이 산에 빛을 더한 경우라 하겠다. 또한, 같은 해에 이태준이 성북동에 자리를 잡았다. 이듬해에는 김용준이 심우장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같은 해 1934년, 전형필도 현재의 간송미술관 대지를 사들여 문화재를 수장할 복단장을 개설했다. (중략) 성북동이 지금처럼 이름이 높은 것은 바로 이들의 우연한 정착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겠으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묘하여 차라리 성북동 산협이 이들을 불러 모았노라고 말하고 싶다.

문화유적답사 불교 배우기, 2008.06

첫 번째 인연

— 소멸하지 않는 사랑의 기억 —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 본 여인의 사랑— 백석과 김영한

오두막편지와 무소유로 잘 알려진 법정 스님이 머물렀던 길상사는 원래는 대원각이라는 유명한 요정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법정 스님에게 대원각 7천여 평의 땅을 시주한 한 여인이 있었다.

“그 돈은 그 사람의 시 한 줄만도 못하다. 그의 시를 읽는 것이 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나에게 그의 시는 쓸쓸한 적막을 시들지 않게 하는 맑고 신선한 생명의 원천이었다.”

〈내 사랑 백석, 김자야 에세이〉

‘그’는 시인 백석이었고, 평생 백석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여인은 김영한이다.

김영한은 어려운 집안 사정 탓에 16살 어린 나이에 조선 권번에 들어가 기생이 되었다. 영생여고보의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난 백석과 김영한은 서로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먼저 서울로 올라온 김영한을 따라 백석도 서울로 올라왔고, 김영한의 자취방에서 두 사람은 뜨거운 사랑을 이어나가게 된다. 전통적인 혼례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여느 부부와 같았다고 한다.

하숙집 대문을 나서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장독을 파는 웅기전이 있었고, 조금만 더 가면 목간통(목욕탕), 사진관이 있었다. 당신은 언젠가 이 사진관 앞을 지나오면서 사진관 진열장 속에 걸린 여자의 사진을 일부로 외면하고 갔다. 내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나는 당신 말고 다른 여자는 아예 눈도 주기 싫어!” 라고 해서, 우리는 함께 웃은 적이 있었다.

〈내 사랑 백석, 김자야 에세이〉

백석과 김영한이 동거한 기간은 3년, 백석은 김영한과 사랑하는 동안 사랑을 주제로 여러 편의 시를 썼다고 한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김영한의 이야기라고 그녀는 말한다.

누런 미농지 봉투를 뜯어보니 당신이 친필로 쓰신 한 편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가 들어 있었다. 그것을 단숨에 찬찬히 읽고 나니 몸과 마음이 야릇한 감격에 오싹 자지러졌다. 하마터면 놓쳐버릴 뻔했던, 사랑을 실은 흰 당나귀의 아름다운 이야기.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눈이 폭폭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폭폭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폭폭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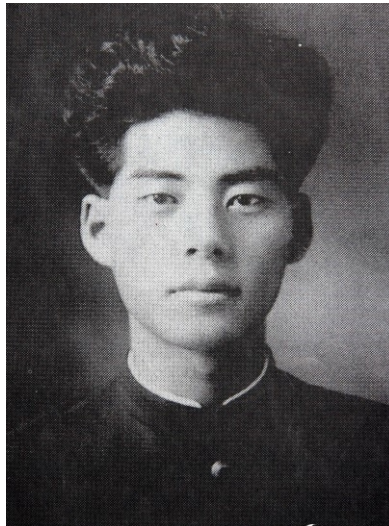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데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 백석

〈내 사랑 백석, 김자야 에세이〉

뜨거웠던 젊은 날의 사랑은 기생과 동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백석의 부모님에 의해 위기를 맞았다. 백석의 부모님은 백석과 김영한을 떼어놓기 위해, 백석에게 결혼할 것을 강요했다. 백석은 그런 부모님의 뜻을 차마 거역할 수가 없었다.

백석은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가 정한 여자와 혼인을 하지만, 이내 도망쳐 나와 김영한의 품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기를 몇 차례 되풀이하면서도 백석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사랑을 택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괴로워했다. 김영한에게 만주로 같이 도피하자고 설득하지만, 김영한은 집안의 반대로 끝까지 이를 수 없는 인연이라는 것을 알기에 백석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1945년 해방을 맞아 백석은 단숨에 서울로 달려가 김영한을 만나려 하였으나, 3·8선이라는 장벽에 막혀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의 뜨거운 사랑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김영한은 이별의 아픔을 잊기 위해 돈을 벌기 시작하고 고급 요정 대원각의 주인이 되었다. 제3공화국 군사정권 시절 밀실 정치의 본산이었던 대원각은 삼청각, 청운각과 함께 서울의 3대 요정으로 꼽히며 승승장구했다. 그럼에도, 김영한은 7월 1일 백석의 생일이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으며 그를 그리워했다. 그를 이해하기 위해 영문학을 전공하였으며, 백석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담아 <내 사랑 백석>이란 에세이를 출간하기도 했다.

백석은 옆자리에 앉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속삭였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영원한 마누라야. 죽기 전에 우리 사이 이별은 없어요.”

(중략)

그리운 당신이시여!

앞의 편지를 쓴 뒤에 석 삼 년이 지나서 저는 다시 이 글을 계속해서 씁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당신과의 일들은 어제런 듯 생생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1991년 칠월 초하루, 바로 당신의 팔순 생신날 아침입니다.

〈내 사랑 백석, 김자야 에세이〉

김영한은 1999년 세상을 떠났고 한 줌의 재가 되어 길상사(성북구 성북동 323)에 뿌려졌다.

편견을 뛰어 넘은 사랑-김환기와 아내 김향안

보슬비가 나립니다. 새벽부터 보슬비가 나린 답니다. 이 비에 쭉 잊 알눈 뜨고 할미꽃정이 솟고, 보리밭 푸르러지면 노오란 나비 날깍니다. 봄은 강남에서 온다는데 그 강남이 어딘지, 아마 우리 섬이 강남이라면 서울의 봄도 우리 섬에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1943년 3월 4일, 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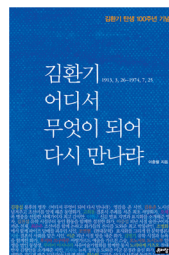
- 김환기 도록, 〈김환기의 편지〉, 갤러리 현대

그는 왜 오랫동안 편지만 보냈을까. 그가 좀 더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못한 이유를 나는 한참 뒤에야 알았다. 조혼, 이혼, 세 자매. 이런 김환기의 곡절을 나는 상상도 못 하고, 편지는 잘 쓰는데 무척 소극적인 사람 같은 인상을 받았고, 그와 나의 사이는 더 가까워지지 않았다.

- 〈월하의 마음, 김향안의 메모〉, 김향안

“동림 씨, 저녁 시간이예요. 밥 먹으러 나가시다.”

밖에는 어느새 어스름이 내려 어둡고 바람이 왔다. 변동림은 고집스러운 김환기가 믿음직스럽고, 자신을 진심으로 배려해줄 남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략)



1944년 새해 아침, 서른한 살이 된 김환기는 눈 덮인 언덕길을 헤치며 앞산에 올라갔다. 팔짱을 끼고 바람이 찬 겨울 바다를 바라봤다. (중략) 얼마 후 김환기는 경성으로 올라가서 변동림을 만났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미래를 설계했다.

— 〈김환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충렬

소실의 딸이자 전 남편과 사별했던 김향안(변동림), 세 딸을 두고 이혼을 택한 김환기. 두 사람은 새로운 사랑과 만남이란 현재 앞에 과거는 지난 이야기에 불과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과는 달리, 두 집안이 발각 뒤집어졌다. 새 며느릿감이 과부에 소실의 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김환기의 어머니는 몸져누웠으며, 김향안의 언니 또한 반대했다. 하지만 그들의 뜨거운 인연과 사랑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다.

“환기 씨, 내게 결혼 선물 하나만 해줘요.”

“뭐든지 얘기해요. 나는 동림을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어요.”

“환기 씨, 내게 향안이라는 아호를 줘요. 그러면 변동림이 아니라 김향안이 되어 평생 환기 씨를 위해 살게요. 환기 씨 딸들도 내가 낳은 자식처럼 잘 키울게요.”

김환기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변동림을 가만히 안았고, 그녀는 그의 넓은 가슴에서 다시는 서러운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서럽게 울었다.

— 〈김환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충렬

1944년 5월 1일 서울 종로 기독교청년회관(현 YMCA)에서 고희동의 주례, 정지용·길진섭을 청첩인으로 김환기와 김향안은 백년가약을 맺었다. 1944년 결혼한 김환기는 김향안과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할 때 김용준과 상의를 하고 마침 이사를 하려던 그의 집을 사게 된다. 김환기가 성북동과 인연을 맺은 것은 김용준 덕분이었다. 근원 김용준은 김환기가 김향안과 결혼하기로 했다 하니 자신이 살던 성북동 노시산방을 헐값에 넘겨 주었다.

“집은 구했나?” “아닙니다. 선생님 아직 거기까지는” “그럼 노시산방으로 올 생각은 없나?” “선생님이 계시는 노시산방이에요?” 김환기는 무슨 사연이 있기에 집을 팔려고 하나 싶어 깜짝 놀라 되물었다. 노시산방은 김환기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마당이 넓어 감나무 뿐만 아니라 화초가 많았다.

— 〈김환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충렬

1944년 결혼, 성북동 32-3, 근원(近園) 선생이 선생의 취미를 살려서 손수 운치 있게 꾸미신 한옥, 안방, 대청, 건넌방, 안방으로 붙은 부엌, 아랫방, 광으로 된 단순한 기역 집. 다만 건넌방에 누마루를 달아서 사랑채의 구실을 했고 방마다 옛날 창문짝들을 구해서 맞춘 정도로 집은 빈약했으나, 이백 평 남짓 되는 양지바른 산마루에 집에 붙은 개울이 있고, 여러 그루의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있는 후원과 앞마당엔 괴석을 배치해서 풍란을 꽃 피게 하며 여름엔 파초가 잎을 펴게 온실도 만들어졌고 운치 있게 쌓아올린 돌담장에는 앵두와 개나리를 피웠다. 앞마당 층계를 내려가면 우물가에 연 목련이 피었다.

— 〈사람은 가고 예술은 남다〉,

김향안

김용준과 김환기 역시 각별한 인연이었다.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역임한 이정성의 〈내가 그린 점 하늘 끝에 갔을까〉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1946년 국립박물관에서 미술애호회란 모임이 만들어지고 매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연구 발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회원으로 나온 김용준은 언제나 김환기에 대해 ‘키가 크고 사람이 시원스럽고 그림도 좋지만, 문장도 잘 쓰는 멋쟁이’란 칭찬을 끊임없이 했다고 한다.

당시 성북동은 고추밭이 많은 한적한 곳이었다. 개천을 따라 올라가면 별장 서너 채와 초가집이 띄엄띄엄 있고, 맑은 공기와 수목의 향기, 흐르는 물소리와 지저귀는 새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자연 환경이 아주 일품이었다. 김환기는 자신의 새로운 아호를 나무와 이야기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수화라고 지었다.

얼마 후 신흠집에 들린 김용준이 이 얘기를 듣더니, 자신이 기거할 때는 상허 이태준이 지어 준 노시산방이라 했으나, 수화와 향안에서 한 자씩 따서 ‘수향산방’으로 바꾸라고 제안하고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려주었다는 일화가 있다.

1947년 어느 날 김용준이 수향산방에 찾아온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환기는 먹과 종이와 벼루를 준비한 다음 김용준에게 그림 한 점을 부탁한다. 김용준이 웃으면서 즐겁게 그려준 그림은 바로 김환기의 모습이었다. 〈수화노소인 가부좌상, 樹話老老人跏趺坐像〉, 이 그림을 김환기 부부는 족자를 해서 대청에 내다 걸고 보며 즐거워했다. 김용준은 키가 큰 김환기와 작고 아담한 김향안이 수향산방 집 마당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그리기도 했다.

— 〈잊혀져가는 우리 동네 옛 이야기를 찾아서1. - 김환기〉

(주)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김환기 가족은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된다. 3년 후 돌아온 성북동 집은 전쟁 통에 피폐해지고 온통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과 성북동의 익숙한 풍경에 그들은 다시 편안함을 느꼈다. 성북동 생활에 만족했던 김환기는 성북동에 대한 애정을 담은 〈산방기〉라는 수필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편한 성북동으로 왜 오라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전차 머리예까지 도보로 20분,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 성북동은 수돗물이 아니라 우물물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꽃이 피고 숲이 있고 단풍이 들고 새가 운다. 달도 산협의 달은 월광이 다르다.”

— 〈산방기〉, 김환기

수화 김환기의 예술세계를 사랑하고 존중하던 김향안에게도 말 못할 고충은 있었다. 김환기는 언제부터인가 목가구나 향아리를 모으기 시작했다. 목가구나 향아리를 사들이는 김환기를 보는 김향안의 심정은 착잡했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빈궁한 처지에 전답을 팔아 돈도 되지 않는 목가구와 향아리를 사들이니, 생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향안은 김환기를 사랑하는 만큼 그의 수집 생활도 ‘아름다움의 발견’으로 이해했다. 김환기의 골동 수집 취미를 예술적 성취를 위한 공부로 받아들이고 지지했던 것이다.

어느 날 밤엔 자기보다 큰 소나무 4층 탁자를 짊어지고 삼청동 산을 넘어 성북동 집에 왔다. 집 안은 목가구와 향아리로 가득 찼다. 탁자에 향아리를 올려놓고 바라보며 즐겼다. 즐겼다는 것은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공부했다는 걸 거다.

— 〈사람은 가고 예술은 남다〉, 김향안

김환기는 그의 생을 오로지 예술의 한 길에 바친 화가이다. 김환기가 근대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마도 그의 곁을 언제나 든든하게 지킨 그의 아내 김향안이었을 것이다. 김환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 김향안은 그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환기미술관을 설립했다.

두 번째 인연

- 의로운 길을 걸은 사람들 -

간송미술관을 세운 민족문화의 수호자 - 간송 전형필

‘탁자 위엔 고려청자 한 점이 놓여 있었다. 비췌빛 하늘에 흰 구름 넘실넘실 떠다니고 수십 마리의 학이 오르내리는 청자 매병이었어. “2만원!” 주인은 더는 입을 열지 않았다. 살 테면 사고 말 테면 말라는 배짱이었다. 기와집 한 채가 1000원, 쌀 한 가마니가 16원 하던 시절, 2만 원은 서울 기와집 20채, 쌀 1,250가마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그렇게 하리다.” 고려청자 최고의 명품으로 꼽히는 청자상감운학 문매병(국보 68호)이 간송 전형필 선생에게 넘어오는 순간이었다.’¹

“나는 조선의 독립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네. 그러니 자네도 그 희망을 잃지 말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를 악물고 참고 넘기기 바라네. 지금 변절하는 이들은 그 희망의 끈을 놓은 사람들이지. 그러나 우리 조선은 꼭 독립되네. 동서고금에 문화수준이 높은 나라가 낮은 나라에 영원히 합병된 역사는 없고, 그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지. 그러기 때문에 일제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문화유적을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일세. 물론 일본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문화가 왜놈의 문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민족의 눈앞에서 자꾸 사라지면 남은 문화가 초라해질 테니,

1 <간송전형필의 문화재사랑. 묻고 답하는 한국사카페 2>, 정용준, 2011.

지킬 수 있는 만큼은 지켜야 하네. 아직 어린 자네에게 이렇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서 마음이 편치 않네만, 이 일이 자네가 할 일임을 잊지 말아 주기 바라네.”

— 〈간송 전형필〉, 이충렬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신윤복의 혜원전신첩,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 박물관 ‘간송미술관’. 이 미술관을 세운 이는 20세기 초 종로의 거부였던 전용기의 상속자 간송 전형필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주요 미술품들과 국학 자료들이 제대로 보관되지 못하는 것을 늘 안타까워했다. 이 때문에 그는 젊은 시절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주요 유물을 수집, 관리, 전시하는 일에 몰두했다.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것이라는 가치를 젊은 전형필에게 깨우쳐준 사람은 위창 오세창이다. 문화재란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주체성과 정신적 가치가 깃든 일종의 유산²이라는 삶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순간, 간송은 새로운 삶을 위해 일생을 바칠 결심을 하게 된다.

일본 유학 시절, 소년 전형필은 고서점에서 읽을 책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한 일본학생이 그를 보고 ‘일본 식민지에 사는 조선인이 이런 책이 왜 필요하느냐’고 조롱하며 비웃었다. 나라 잃은 슬픔과 설움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울분에 가득 찬 소년은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하려고 고등학교 은사를 찾아갔다. 이야기를 한참 들은 은사는 그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후에 간송 전형필은 고등학교 은사였던 고희동 선생의 소개로 추사 김정희 학문의 적통을 이어받았으며 당대 최고의 감식안을 지닌 서예의 대가 위창 오세창을 만나게 된다.

오세창은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2 〈성북동 잊혀가는 우리 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1 - 전형필〉,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2010

“젊은 자네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들어오는 순간, 깊은 산 속에서 흐르는 물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 그래서 산골 물 간(澗)자! 그리고 논어 자한 편에 ‘세한연후 지송 백지후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알 수 있다’는 뜻이네. 추사 선생께서 선비의 지조와 의리를 지킨 제자 이상적에게 <세한도>를 주면서 인용한 문장이지. 자네에게 이 문장에 있는 소나무 송(松)자를 넣어 ‘간송(澗松)’을 주지. 마음에 드는가?”

— <간송 전형필>, 이충렬

위창 오세창을 만나면서 전형필은 자신의 재산을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는 데 쓰기로 결심하고 문화재 수집에 열중했다.

어느 날 전형필은 택시를 불러 오세창과 지금의 성북동으로 갔다. 그 당시 성북동은 초가집과 기와집이 드문드문 보이는 한적한 마을이었다. 전형필과 오세창은 택시에서 내려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위쪽으로 한참 걸어갔다. 그러자 산 중턱에 프랑스식 건물이 나타났다.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이 건물과 부근 땅을 모두 샀습니다. 아직 한두 필지가 남아 있어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달 말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중략) 그리고 이곳에 박물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 <간송 전형필>, 이충렬

기록에 의하면, 1933년 봄, 간송의 나이 불과 28세에 지금의 간송미술관 터를 사들였다고 한다. 그 젊은 나이에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박물관을 짓겠다고 결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더구나 일제치하였다. 일본은 우리 문화와 역사를 말살시키기 위해 온갖 술수를 쓰

던 때였다. 우리 땅이 우리의 것이 아니던 그 시절, 우리의 문화 역시 우리 민족의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전형필은 전 재산을 들여 박물관을 짓고, 일본인들이 눈독을 들이던 명품들을 소장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위창 오세창을 뛰어넘는 청출어람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독립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결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간송 전형필은 민족 문화 수호에 굳은 뜻을 가진 사람이었다.



간송 전형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재산이란 지키고 싶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물려주기 보다는 박물관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수집품을 지킬 길은 그것 밖에 없어서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 〈간송 전형필〉, 이충렬

1934년 7월, 간송이 그렇게 고대하던 별장 건물이 완성되었다. 선잠단이 사직단으로 옮겨간 후, 북쪽에 있는 선잠단이라는 뜻으로 그곳을 북단이라고 불렀다. 위창 오세창은 그 이름을 빌려 와 건물의 이름을 ‘북단장’으로 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2년 남짓 지나고 서서히 건물의 형태를 갖춘 박물관이 그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1934년 여름 별장과 북단장이 완성된 후 축대와 담장 공사 6개월이 흘렀고, 수장고로 쓸 지하실 공사에도 6개월, 2층 건물을 올리는 데 만 1년이 걸렸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몇 달이 더 지나야 내부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였다.³ 건물을 짓는 인내의 시간 동안 간송 전형필의 가슴 속에 지닌 우리 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확신은 더욱 견고해졌다.

1938년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관이 세워지고 상량식을 했다. 상량식에는 간송 전형필의 스승 오세창, 오세창을 만나게 해준 휘문고보의 스승 고희동, 민족과 역사에 눈을 뜨게 해준 외종형 박종화, 한남서림을 운영하는 전속 거간 이순황, 꾸준히 교분을 나눴은 화가 이상범, 노수현이 함께 했다. 상량식을 마치고 한 달 후, 4년에 걸친 공사 끝에 마침내 박물관이 완공되었다.

‘빛나는 보배를 모아두는 집 : 보화각’.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문화의 보물창고이자 현재 간송미술관(성북구 성북동 97-1)건물이다.

고요를 사랑한 시인, 민족혼의 상징- 만해 한용운

“그 사람은 꽃딱한 사람이야. 중이 됐어. 내가 안암동 살았는데 한 선생도 부근에 살아서 둘이 가끔 만났어. 참 괜찮은 사람이 됐어요. 딸이 하나 있었지 아마. 아주 순진하고 나쁜 건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소녀 같았어. 한 선생은 소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했어. 스님이니 어느 절에서 살림을 대 주는 것 같았는데 중처럼 단순한 살림살이였어요. 그는 3·1만세 운동의 민족대표로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지요.

- 서울 북촌에서 4. 성북동 세집, 고 최내영 교수(법학자/역사가), 김유경

3·1 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만해 한용운. 독립선언서를 선포한 뒤 3년간 옥고를 치르는 고통을 겪었다. 그 후, 지인들의 도움으로 성북동 골짜기에서 셋방살이를 시작한다. 1933년, 그는 유숙원과 결혼하여 꼭 1년이 되던 해에 딸 영숙을 낳았다. 어려웠던 살림살이를 제외한다면 한용운과 그의 가족들이 성북동에서 보낸 시간은 매우 단란했다

3 <간송 전형필>, 이충렬, 김영사, p297.

고 한다.

한용운은 그의 딸 영숙을 일본의 체제하에서 교육시킬 수 없다며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직접 영숙을 교육시켰다. 그때는 언문이라고 불리던 한글, 한문, 붓글씨, 산수 등을 가르쳤다고 한다. 일제의 행정 체제에 따라 민적이 처음으로 시행되었지만, 그는 망국민으로서 일제 식민지의 민적에 오르기를 거부했다. 그 뒤에 호적법이 시행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딸 영숙도 입적시키지 않았다.

“아침에 눈 뜨면 세수하고 오전에 공부하고 낮에는 붓글씨 쓰고 숙제하고, 나중에 해방이 되어서 혜화초등학교 3학년으로 들어가니까 학교 공부가 재미가 없었어. 한글 다 알지, 산수 다 알지. 이화여중을 갔는데 6·25가 터지면서 또 그만 다녔어. 나중에 야간고등학교 조금 다녔고.”⁴ 라고 그의 딸은 당시를 회상했다.

어느 날 그의 어린 딸 영숙이 일본의 가명문자로 된 신문을 보고 “아빠 이 건 무슨 글자야?” 라고 물었을 때, 그는 “관뉘! 그런 짓은 몰라도 된다. 그건 글자가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호적에도 올라있지 않았기에, 그의 딸 영숙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다.⁵ 제 포래들과 어울리는 기회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것도 아버지의 꿈은 뜻 때문에 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일제에 불가피하게 협력하게 된 최린이 한용운 몰래 그의 딸 영숙에게 100원짜리 지폐를 쥐어주고 간 일이 있었다. 그것을 알고 그가 아내와 딸에게 불같은 호통을 친 것도 그의 민족정신을 보여주는 일화 중 하나이다.

4 만해 한용운의 딸 한영숙씨, 한국일보, 2012.02.26

5 〈한용운 평전〉, 고은, 향연, p354.

잃은 소 없건마는
 찾을 쓴 우습도다.
 만일 잃을시 분명하다면
 찾은들 지닐쏘냐
 차라리 찾지 말면
 또 잃지나 않으리라.

만해 한용운



한용운은 독립 운동가이자 사상가, 승려이자 시인으로 일제 강점기에 전국을 떠돌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 살았던 인물이다. 그런 한편으로, 그는 심우장에 꾸민 가정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꽃을 사랑하는 법을 알았고, 깊은 밤의 고요를 사랑할 줄 알았으며, 아내와 딸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어머니더러 늘 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대요. 꽃이나 나무와 친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보살의 마음을 일으킨다고 하셨대요.” 영숙은 늙은 한용운의 한 모습을 말하고 있다.

— 〈한용운 평전〉, 고은

“임자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이미 보살의 경계에 들어 있어. 하기야 보살이 어디 따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 〈한용운 평전〉, 고은

그는 궁핍한 시대에 궁핍한 농촌에서 태어났다. 그의 현란한 행위의 궤적에도 늘 궁핍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어머님은 병원의 간호원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아버님을 맞이해서는 간호원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가난한 살림의 주부가 되셔서 샅바느질, 샅빨래, 물 길이다 주기 따위로 마을의 여러 집 일을 해서 그 샅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셨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의 원고료도 꽤 큰 수입이었으나 그것은 집에서 쓰이는 일이 드물었다고 해요. 그리고 원고료 없는 원고도 많이 쓰셨다고 들었어요.” 한용운의 딸 영숙은 어린 시절에 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

— 〈한용운 평전〉, 고은

이런 생활에서도 그는 아내와 딸을 사랑했다. 그의 아내와 딸도 마찬가지로였다. 아내 숙원은 아버지 같은 남편의 종교를 따라 독실한 불교도가 되어서 심우장을 절간으로 여길 정도로 육식을 삼갔다는 일화도 있다.

심우장(성북구 성북동 222-1)의 ‘심우’란 소를 사람의 마음에 비유하여 잃어버린 나를 찾자는 뜻이다. 심우장은 불교의 무상 대도를 깨우치기 위해 공부하는 집, 즉 공부하는 인생을 의미한다.

세 번째 인연

- 시대를 품은 공간 -

상허 이태준의 소소한 행복을 품은 집 - 수연산방(壽硯山房)

수연산방은 ‘문인들이 모이는 산속의 작은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 벗을 찾아 장안의 내로라하는 문인들이 모여들면서 수많은 인연이 엮히던 곳, 성북동 수연산방은 상허 이태준의 집이었다.

서른 살이 되던 해, 이태준(1904~?)은 유년기 추억이 있는 고향을 떠올리며 서울 외곽에 집을 지었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248번지. 이곳에 있던 초가를 헐고 기와집을 지으면서 수연산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수연산방은 밖에서부터 콩돌을 박은 화장담과 일각 대문, 담 너머로 쏟아진 나뭇가지가 그림처럼 눈에 들어온다.

수연산방은 도포 입고 갓을 쓴 목수들이 손수 만든 연장으로, 기일을 정하지 않고 천천히 여유롭게 지은 한옥이라 그런지 기품이 있는 동시에 사람을 아늑하게 품어주는 맛을 지녔다. 이태준은 월북하는 그날까지 아내와 더불어 수연산방에서 살았다.

“불빛이 없던 성북동, 달빛이 김을 깔아 놓은 듯했다.” 당시 이 근방에는 포도원이 많았다. 이곳 포도밭에 가던 일을 쓴 이효석의 글이 있다. 이태준의 글에도 이곳은 포

도밭이 있는 지역으로 묘사된다. 성북동은 그때도 시정 번잡에서 떨어져 한적하니 은거하기 좋은 곳이었던 듯하다.

— 〈서울 북촌에서 4. 성북동 세집〉, 김유경

이태준은 1933년부터 1946년까지 수연산방에 머물면서 〈달밤〉〈돌다리〉〈황진이〉 등의 작품을 집필했다. 지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었으며, 1977년 서울시 민속자료 제11호로 지정되었다.

성북동 시절에 쓴 이태준의 글에는 그 시절 가족들이 함께 나누었던 사랑과 행복한 모습이 드러난다. 이태준은 가난하고 외로운 초년시절을 지나 그의 생애 중 유일하게 행복했던 시절이 성북동에 거주하던 때였다고 한다. 덧붙여, 이태준은 수연산방을 아끼는 만큼 성북동의 하늘, 산, 성곽에도 감사하며 살았다. 눈이 덮여 흰 산만을 며칠째 보는 겨울에 그 산이 답답할 법도 한데, 이태준은 석양에 비친 산마루와 성곽을 한 폭의 병풍으로 삼아 성북동의 풍류를 즐길 줄 알았던 인물이라고 전해진다.

성북동 수연산방에 기거하며 썼던 수필집 〈무서록〉은 이태준의 소소한 일상을 그리고 있다.

작년 봄에 이웃에서 파초 한 그루를 사왔다. 얻어온 것도 두어 뿌리 있었지만 모두 어미 뿌리에서 새로 쫓아낸 것들로 앉아서나 들여다 볼만한 키들이요 ‘요게 언제 자라서 키 큰 내가 들어설 만치 그늘이 지나!’ 생각할 때는 저속 한심하였다. 그래 지나다닐 때마다 눈을 빼앗기던 이웃집 큰 파초를 그애 사오고야 만 것이었다. 워낙 크기도 했지만 파초는 소선지가 제일 좋은 거름이란 말을 듣고 선지는 물론이요 생선 찌든 물, 깻묵 물 같은 것을 톼툼이 주었더니 작년 당년으로 성북동에선 제일 큰 파초가 되었고 올봄에는 새끼를 다섯이나 뜯어내었다.

— 〈무서록〉 ‘파초’, 이태준

아침마다 안마당에 올라가 찻술에 치약을 문혀 들고 돌아서면 으레 눈은 건너편 산마루에 끌리게 된다. 산마루에는 산봉우리 생긴 대로 울멍줄멍 성벽이 솟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여 있다. 솟은 성벽은 아침이 첫 화살을 쏘는 과녁으로 성북동의 광명은 이 산상의 옛 성벽으로부터 퍼져 내려오는 것이다. 한참 쳐다보노라면 성벽에 드리운 소나무 그림자도, 성돌 하나하나 사이도 뻗어 드러난다. 내 찻술은 내 이를 닦다가 성돌 틈을 닦다가 하는 착각에 더러 놀란다. 그러다가 찬물에 씻은 눈으로 다시 한 번 바라보면 성벽은 역시 조광보다는 석양의 배경으로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을 느끼곤 한다. 저녁에 보는 성곽은 확실히 일취 이상의 것이 있다. 풍수에 그을린 화강암의 성벽은 연기 어린 듯 자욱한데 그 반허리를 꿰어 비낀 석양은 햇빛이 아니라 고대 미술품을 비추는 환등 빛인 것이다. 나는 저녁 먹기가 아직 이른 때면 가끔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성 터진 고개에서 백악 순성로를 한참씩 올라간다.

— 〈무서록〉 ‘성’, 이태준

벼르고 벼르던 안채를 물자 제일 귀한 금년에, 더욱 초복에 시작해 말복을 통해 치목을 하며 달구질을 하며 참으로 집 귀한 맛을 골수에 느끼다. 목수 다섯 사람 중에 네 사람이 60객들이다. 그 중에도 ‘선다님’으로 불리어지는 탕진 쓴 이는 70이 불원한 노인으로 서울 바닥 목수치고 이 선다님더러 선생님이라고 안 하는 사람은 없다 한다. 이런 노인들은 왕십리 어디서 산다는데 성북동 구석예를 헤뜨기 전에 대어 와서 해가져 먹줄이 보이지 않아야 일손을 댄다. 젊은이들처럼 재빠르진 못하나 꾸준하다. 남의 일 하는 사람들 같지 않게 독실하다. 그들의 연장은 날카롭게는 놀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 내키는 대로 힘차겐 문지른다. 그들의 연장 자국은 무디나 미덥고 자연스럽다. 이들의 손에서 제작되는 우리 집은 아무리 요새 시쳇집이라도 얼마쯤 날림기는 적을 것을 은근히 기뻐하며 바란다.

— 〈무서록〉, 이태준

수연산방은 1933년에 지은 개량한옥으로 약 120평의 대지로 이루어져 있고 서남향으로 난 건물이 두 채로 된 집이다. 수연산방의 현판은 이태준이 추사 김정희의 글씨에 탁본을 떠 직접 만들었다. 각 건물에 이름을 붙였는데, 기와집에는 문향루, 죽향루라는 현판을, 초가집에는 상심루라는 현판을 걸었다.

이태준이 각종 책과 자료를 두고 작품을 썼던 상심루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에는 커다란 삿갓모양으로 둥글게 짚을 엮은 초당이었다. 마루와 방 한 칸을 들였는데, 방 안에는 조출한 탁자 위에 백자와 청자, 난을 놓고, 벽에는 서화를 걸어서 감상하였다고 한다. 이 방에서 이태준은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지냈다. 창 밖에는 파초와 모란과 자목련이 피어 있었다.⁶

월북한 후 이태준의 행적은 묘연하다고 전해진다. 향간에 떠도는 소문만 있을 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 누구도 확실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의 생애 가장 행복했고 따뜻했던 시절을 보낸 성북동 수연산방(성북구 성북동 248), 상허 이태준에게 그곳은 그리움의 한 자락으로 오래 기억되었을 것이다.

소설가 구보 씨가 남긴 일상의 흔적- 구보 박태원의 집터

성북동 길상사를 둘러 길을 따라 시선을 옮기면 언덕 위에 집들이 있다. 큰길을 두고 왼쪽은 크고 으리으리한 저택들이 모여 있다. 반대편에 한눈에도 허름해 보이는 서울의 달동네, 그곳의 이름은 북정마을이다. 성곽 아래 소담한 텃밭이 자리한 북정마을의 어제는 어떤 인물들과 인연이 있을까? 북정마을에는 만해 한용운이 기거하던 심우장과 소설가 구보 박태원의 집이 있었다.

6 <성북동 잊혀져 가는 우리 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1 - 이태준>,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2010.

1930년대 박태원은 이상과 함께 모더니스트 작가로 대표되는 인물이다. 구보 박태원이 성북동에 둥지를 튼 것은 약산 김원봉의 항일독립투쟁사인 소설 〈약산과 의열단〉을 내고 인세 대신 받은 집 때문이었다고 한다.

성북동 230번지는 초가집이었다. 집 뒤편에는 골짜기가 있어 비가 오면 폭포를 이뤄 내려왔고, 마루의 뒷문을 열면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다. 박태원은 직접 시골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싸리를 구해 담을 둘러치고 대문을 만들었다. 그래서 성북동에서는 싸리문 집으로 통했다.

마당 꽃밭에는 채송화를 심고 마당 가운데는 모란 한 그루를 심었다. 앵두나무와 복숭아나무도 있어서 때가 되면 앵두와 복숭아를 따 먹기도 하고,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대접하기도 하였다. 우물 옆 소나무에는 아이들을 위한 그네를 만들었다. 개 한 마리와 거위를 한 마리 키웠는데 거위는 낫선 사람이 오면, 개보다 먼저 끼옥끼옥하면서 고개를 길게 빼고 울었다. 집으로 올라가는 돌계단 옆에는 텃밭을 만들어 푸성귀를 심었다.

박태원은 성북동에 사는 동안 소년삼국지, 소년김유신, 어린이일리 등 아이들을 위한 작품을 많이 썼다. 항상 집에서 아이들에게 원고를 읽어주기도 하고, 자신이 쓴 책이나 학교생활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일이 없는 날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삼선교에서 역마차를 타고 종로까지 나가 외식을 하기도 하였다.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을 글로 남겼는데,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중 채가는 첫째 딸 설영이 유치원에 갔을 때의 일화를 다루고 있다.

— 〈성북동 잊혀져 가는 우리 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1〉

성북동의 예술가: 박태원, (주)내셔널트러스트유산기금

‘1950년 한국전쟁이 나기 전, 아버지(박태원), 어머니, 그리고 누나 둘, 형, 여동생, 나까지 오 남매가 부모님을 모시고 성북동 230번지에 살 적이 가

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고 구보 박태원의 아들은 말한다.

한국전쟁 중 친구였던 상허 이태준을 만나러 북으로 간 구보 박태원에 관한 연구와 기록은 드문 편이라고 한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구보는 1958년 백내장 진단과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는 등 30여 년간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1977년 역사소설 〈갑오농민전쟁〉을 집필하는 등 북녘에서도 문학 혼을 불살랐다. 그는 1981년 구술 능력마저 잃어 그의 아내가 소설의 최종편(3부)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성북동 싸리문 집(성북구 성북동 230)으로 불리던 구보 박태원의 집이 있었던 곳, 지금은 어제를 지나 오늘의 북정마을에 기억의 흔적과 집터만 남아있다.

근원 김용준이 그토록 사랑했던 늙은 감나무가 있는 집- 노시산방

“근원 선생님, 두고 떠나신 성북동 노시산방에는 가을이 한창입니다. 저는 지금 다시 찾아와 그곳에 서 있습니다.” 김병종의 화첩기행 중 한 구절이다.

노시산방은 근원 김용준이 1934년부터 1944년까지 살았던 성북동의 조그만 한옥이다. 성북동에서 삼선교까지 개울이 흘렀는데, 그 모습 또한 아주 일품이었다고 한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오 년 전에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 그때는 교통이 불편하여 문전에 구루마 한 채도 들어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집 뒤에는 평이랑 늪대랑 가끔 내려오곤 하는 것이어서 아내는 그런 무주구천동 같은 데를 무얼 하자고 가느냐고 맹렬히 반대하는 것이었으나, 그럴 때마다 암말 말구 따라만 와 보우 하고 끝다시피 데리고 온 것인데, 기실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 늙은 감나무 몇 그루를 사랑한 때문이었다.

- 〈근원수필〉, 김용준, 열화당

성북동 32-2번지 노시산방, 결혼 후 김용준은 성북동에 살기를 꺼려하는 아내를 끊임없이 설득해 이사 했다고 한다. 바닥이 전부 노들바위여서 그 물이 층층 폭포를 이루면서 삼선교로 흘러내렸다. 그 개울물은 노시산방 문 앞에도 흘렀는데, 징검다리를 딛고 건너야 대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삼선교에서 성북동으로 오르는 길에는 수백 년 된 소나무, 전나무가 서 있었고, 대낮에도 토끼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다.

지금 내가 거하는 집을 노시(푸른 이끼가 낀 늙은 감나무)산방이라 한 것은 3, 4년 전에 이 군(상허 이태준)이 지어준 이름이다. 마당 앞에 한 7~80년은 묵은 성 짙은 늙은 감나무 2, 3주가 서 있는데 늦은 봄이 되면 뽕죽뽕죽 잎이 돋고 여름이면 퍼렇다 못해 거의 시꺼멓게 온 집안에 그늘을 지워 주고 하는 것이 이 집에 사는 주인 나로 하여금 얼마나 마음을 위로하여 주는지 지금에 와서는 마치 감나무가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인이 감나무를 위해 사는 것쯤 된 지라 이 군이 일러 노시사라 명명해 준 것을 별로 삭여 볼 여지도 없기에 그대로 행세를 하고 만 것이다. (중략) 아무튼 나는 내 변변치 않은 이 노옥을 노시산방이라 불러오는 만큼 뜰 앞에 선 몇 그루의 감나무는 내 어느 친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나무들이다.

- 〈근원수필〉, 노시산방기, 김용준

석양이 내 정원에 비길 때면 피로한 신경을 이끌고 발길이 문을 나선다. 석교를 건너 서면 들국화 가냘프게 피어 늘어진 조붓한 길이 청룡암으로 향한다. 나는 내 산보의 유일한 동반자로 밤마다 도적을 보살피는 중군을 앞세운다. 성북동의 산보로 달밤이 더욱 좋다. 그러나 반드시 겨울 달밤이어야 한다. 나는 가끔 찬 달밤별들을 헤아리며 등불이 묵묵히 박힌 산 밑 길을 묵묵히 거닐기도 한다.

- 〈겨울 달밤 성북동〉, 김용준

한옥, 안방, 대청, 건넌방, 안방으로 붙은 부엌, 아랫방, 광으로 된 단순한 기역자 집. 건넌방에 누마루를 달아서 사랑채 구실을 했고 방마다 옛날 창문 짝들을 구해서 맞춘 만큼 집은 빈약했으나 200평 남짓 되는 양지바른 산마루에 집에 붙은 개울이 있었다.

여러 그루의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있는 후원과 앞마당에는 괴석을 배치해서 풍란이 꽃을 피웠고 여름엔 파초가 커다란 잎을 펼쳤다. 운치 있게 쌓아 올린 돌담장에는 앵두와 개나리가 무성했다. 앞마당 층계를 내려가면 우물가엔 목련나무가 있었다. 김용준이 살았던 노시산방의 옛 모습이다. 성북동의 풍수에 딱 알맞은 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김용준은 수필가 김향안과 결혼하여 신혼집을 구하던 서양화가 김환기에 게 노시산방을 넘겨주었다. 김용준의 아내는 수화의 결혼 예복인 모시 겹두루마기를 만들어주는 정성을 보였다고 한다. 〈수화노소인 가부좌상, 1947〉, 〈수향산방 전경, 1944〉은 수화 김환기에 대한 애정이 담겨있는 근원 김용준의 작품들이다.

좋은 친구 수화에게 노시산방을 맡긴 나는 그에게 화초들을 잘 가꾸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의정부에 새로 마련한 삼간 누옥에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웠다.

수화는 예술에 사는 사람이다. 예술에서 산다는 간판을 건 사람이 아니요 예술을 먹고 예술을 입고 예술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사람이다.

노시산방이 지금쯤은 백만 원의 값이 갈는지도 모른다. 천만 원, 억만 원의 값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노시산방은 한 덩어리 환영에 불과하다. 노시산방이란 한 덩어리 환영을 인연삼아 까부라져가는 예술심이 살아나고 거기에서 현대가 가질 수 없는 한 사람의 예술가를 얻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쁜 일이다.

- 〈근원수필〉, 육장후기, 김용준

맑은 물이 흐르고 울창한 숲이 있던 성북동의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던 벗들과 어울려 살던 그때의 성북동은 김용준에게도 그와 연을 맺은 모든 것들에게도 소중한 한 자락의 이야기일 것이다.

에필로그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법정스님의 홀로 사는 즐거움이란 글 중 한 구절이다. 법정스님의 말씀에는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인연’들에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행복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문학작품 속의 성북동’은 ‘인연(因緣)’을 주제로 문화예술인의 짧은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성북동과 많은 문화예술인이 맺은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며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성북동에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기거했고, 현재도 살아가고 있다.

‘문학작품 속의 성북동’에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아낼 수 없었던 아쉬움과 기존의 잘 쓰이고 정리된 문헌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성북동과 ‘인연’을 주제로 재구성된 이야기들과 각 인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성북동의 옛 이야기를 추억하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작게나마 바라본다.

‘성북동’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금도 새로운 인연들이 성북동의 역사와 문화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첫 번째 인연 – 소멸하지 않는 사랑의 기억을 찾아서

- 한겨레 인문학 특강 '사랑길'
- 〈내사랑 백석, 김자야 에세이〉
- 〈정본 백석 시집〉, 백석
- 김환기 도록, 〈김환기의 편지〉, 갤러리 현대
- 〈월하의 마음, 김항안의 메모〉
-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충렬
- 〈사람은 가고 예술은 남다〉, 김항안
- 〈성북동 잊혀져가는 우리 동네 옛 이야기를 찾아서1. 김환기〉, (주)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 〈산방기〉, 김환기
- 근원 김용준 · 수화 김환기 추모전, 성북구립미술관

두 번째 인연 – 의로운 길을 걷은 사람들

- 〈간송 전형필〉, 이충렬
- 〈성북동 잊혀져가는 우리 동네 옛 이야기를 찾아서1. 전형필〉, (주)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 〈서울 북촌에서 4.성북동 세집〉, 고 최내영 교수(법학자/역사가), 김유경 글/허지권 사진
- 〈한용운 평전〉, 고은

세 번째 인연 – 시대를 품은 공간

- 〈서울 북촌에서 4. 성북동 세집〉, 글 김유경 사진 허지권
- 〈무서록〉, 이태준
- 〈봄날, 역사의 현장을 거닐다〉, 성북문화원
- 〈새로 가려 뽑은 이태준 소설 읽기〉, 상허연구모임
- 〈성북동 잊혀져가는 우리 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1. 박태원〉, (주)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 봉준호 감독은 '구보' 박태원의 외손자, 한겨레 신문
- 〈근원수필〉, 김용준
- 〈근원전집 이후의 근원〉, 김용준
- 〈겨울달밤 성북동〉, 김용준
- <http://www.gosinaga.net/archives/1372>, 근원 김용준의 노사산방을 찾아서

PART 3

성북동 사람들



성북동 주민

한옥을 사랑하는 성북동 여장부

정미숙 한국가구박물관 관장



한국가구박물관 정미숙 관장은 1996년 한국가구박물관을 설립하고, 2000년 초반에는 북촌에서 ‘한옥 아낌이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 성북구 역사문화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 8월 21일 화요일 정오 성북동 북악 하늘길 초입에 있는 곰의 집 카페에서 한국가구박물관 정미숙 관장을 만날 수 있었다. 이 날 인터뷰에서 정미숙 관장은 성북동의 고유한 문화보존을 위한 제안을 하였으며 성북동만의 것들을 찾아 이 지역이 아시아의 숨은 보석이 되면 좋겠다고 하였다. 인터뷰는 질의응답 형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전에는 성북동이 ‘빨랫골’이라고 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이 성북동에서 태어나 65년간 거주해온 성북동 토박이인데, 저도 결혼 하면서 성북동에 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성곽 옆길(85번 종점)을 빨랫골이라고 불렀습니다. 12년 전까지는 성북동에 성북천이 흘렀는데, 그 때는 경관이 매우 아름다웠어요. 지금도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데, 굳이 복개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한국의 주생활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65년에 기독교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어요. 기독교 교육국에서 후원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미국의 초등학생들에게 일주일에 1회씩 한국을 소개하여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외무부 장관이어서 집에 각국의 대사들이 많이 방문하였기에 외국인에 대한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윤현궁마마가 침모를 보내줘서 만들어준 통치마 한복을 입고 학교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에게 한국을 소개했어요. 그렇게 한국을 소개하다 보니, 한국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의식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에 미술을 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미국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돌아와선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미술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때부터 인사동을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찾고, 묻고 다녔고 그러면서 가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사동 상인들은 어린 학생이 수집활동을 한다고 공짜로 주기도 했고, ‘어린 수집가’로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연세대 주생활학과, 이화여대 미술대학 등에서 한국가구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가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한국가구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이여령 장관님이 연구소의 이름을 한국가구박물관으로 바꾸라고 하시고 박물관으로 등재

해주셔서 한국가구박물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건물에 소장품들을 진열했는데, 통로를 제외한 4층짜리 건물을 꼭 매우게 되어 빌딩이 아닌 한옥에 가구를 놓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가구박물관은 10채의 한옥이 들어서 있습니다. 박물관을 조성하는 데 꽤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건축에만 거의 10여 년이 걸렸어요.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박물관시설 설치기준에 목조건축물이 부합되지 않는다며 허가가 나질 않아서 완공 된 후 4년 후에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개장을 해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예쁜 한옥들을 보존하기 위해 가회동 살리기에 앞장섰습니다.

박물관을 지으면서 한옥을 구입하여 이축하게 되었습니다. 한옥을 철거하면 그 자리에는 양옥이 들어서는데 한옥을 50채 정도 구입하니까 한옥 멸실에 대하여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북촌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가회동 31번지의 예쁜 한옥들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 힘을 다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회동 살리기에 앞장섰습니다.

가회동(북촌) 살리기 운동¹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한옥을 구입할 수 있는 지원군 16명을 모집해서 한 채씩 구입하도록 한 것이 시작입니다. 이 지역을 한옥마을로 만드는 시초가 되었지요. 가회동 31번지에 위치한 한옥 16채에는 한옥의 신축 및 개보수 축진을 위해 1가구 2주택에 부여하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한옥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¹ 북촌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한옥 아낌이'가 50명에 달하였으나 아름지기, 예울 등의 모임으로 분할된 후 현재는 16명만 남은 상태이다.

한국의 의·식·주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성북서원을 운영할 것입니다.

의생활(폐백 시연), 식생활(감식초, 감김치 등 감을 주제로 한 음식 시연 등), 주생활(한옥, 전통가구) 3가지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초청행사는 국가브랜드위원회와 연합하여 추진하며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초청을 담당하고, 가구박물관에서는 행사진행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구겐하임박물관 관계자들을 초청하였을 때는 연꽃을 주제로 한 14코스의 음식을 선보였는데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성북동 가정에 대사관 가족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자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동네 개인 가정에서 설날, 정월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절기별 음식을 테마로 초청 행사를 열면 어떨까 합니다. 특히, 경상도 음식, 전라도 음식 등 지역별 음식을 주제로 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던 식기를 써서 제대로 된 옛 음식을 재현해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어떤 대사부인한테서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 번도 가정집에 초대를 못 받아서 아쉽다는 얘길 들었어요. 제가 알기에는 성북동에선 음식을 잘하는 가정들이 제법 있는데, 이 분들한테 “각 집마다 10가정씩 맡아서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자.” 라고 설득하고 있어요.

성북동에 박물관을 지어서 문화재를 시민과 공유했으면 합니다.

현재 성북구는 성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성북구청에 문화재 수집을 위한 전담반을 설치하여 관련 문화재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북동 축제의 이름도 선잠단지의 의미를 살려 옷감, 염색, 자수 등 의생활에 관한 축제로 열리면 좋겠습니다. 성북

구에 있는 문화재는 대부분 간송 또는 대학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학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여도 학생이 아니고서는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물관을 지은 후 이러한 유물들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면 좋겠습니다. 한옥의 형태로 짓되, 지하공간은 2층으로 해서 지하에는 전시관을 짓고, 윗부분에는 한옥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청동은 지나친 상업화로 아쉬움이 큼니다.

성북동의 특징을 규정하는 상점, 예술 공간 등은 곳곳에 분산되어 있으면 안 되며, 가로를 따라 형성되는 등 일정지역에 밀집하여야만 방문객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삼청동 길은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아쉬움이 큼니다. 한옥을 지을 경우에도, 상업시설이 성북동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며, 기존에 있는 상점 등은 한옥을 신축하여 설치한 후, 한옥과 어울리게 간판을 바꿔서 새롭게 조성된 한옥밀집지역과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하는 행정기관의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담당하는 분들에게는 항주, 소주를 함께 답사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주의 경우, 3년 전쯤에 기존건물의 지붕, 창틀을 변경하여 전통형태로 개량한 후 유네스코에 등재한 바 있는데 성북동에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성북동은 아시아의 숨은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갖고 있지 않은 우리의 것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성북동만의 것들을 찾아 이 지역이 아시아의 숨은 보석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혜화동에 있는 아프리카박물관의 경우, 관람객이 없어서 문을 닫고 제주도로 이전할 정도로 전시관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1만여 점의 소장품을 지니고 있는

꼭두박물관도 방문하는 사람이 적어서 문을 닫고 가회동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술가들은 지방의 한적한 곳에 멋진 미술관을 지어놓고 운영하고 싶은 꿈을 지니고 있는데, 과거 성북동에 사시던 김기창, 박래현화백의 운우미술관이 충북 청원으로 이전하여 '운보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람하러 오는 사람이 적어서 고민이 많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들이 성북동 주변을 떠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술 공간의 이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북동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성북동에 남아있는 그 분들의 주택을 전시관으로 만들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술관 중 민화박물관, 자수박물관 등이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성북동으로 이전하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한양 도성에서 정릉까지 구간에 어느 동네도 살려내지 못한 역사문화관광 거리를 꼭 만들어서 이 지역이 서울의 명소, 세계적인 명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서예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서예문화 전도사

김순기 한국 서예관 관장



김순기 관장은 2010년부터 성북동 길상사 옆에서 한국 서예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건물 결로 및 누수 문제 등으로 인해 서예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서예관에서는 2010년 개관 서예전을 시작으로, 2010년 11월 주한 외교사절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붓글씨 체험행사를 하였으며, 2011년 2월 법정스님 1주기 추모 서화전을 개최한 바 있다.

2012년 9월 18일 목요일 오전에 성북동 성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 있는 카페 리유(LIYOU)에서 한국 서예관 김순기 관장을 만났다. 이 날 인터뷰에서 김순기 관장은 서예관 운영 동기와 목적, 그 동안 서예관에서 진행한 대표적인 전시 및 행사를 소개하고,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방향과 관련하여 성북동이 더 멋진 곳, 더 오래 자랑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향은 종로5가인데 성북동에는 어릴 때부터 자주 놀러오곤 했어요.

원래 고향은 종로5가예요. 행정 주소를 보면 고향이 성북동은 아니지만 항상 근거리에서 찾아오던 곳이에요. 경복궁, 창덕궁 등 주변에 있는 문화재들은 당시에 무료입장이어서 소풍, 백일장 등이 고궁에서 열렸고 수시로 드나들었어요. 궁궐문화, 서예문화, 우리 것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컸어요. 어려서부터 성북동이라는 지역이 저희 지역과 다른없는 친근한 지역이었는데, 이런 인연으로 성북동에 서예관을 세우게 되었어요.

서예문화를 키우고 보급하기 위해 한국 서예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한자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예전 호적 등본을 읽고 싶어 할 정도로 한자를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예를 하게 되었어요. 정신여자중학교 2학년 때 서예반 활동을 했는데, 그때 큰 상을 받았어요. 처음 시작은 그랬어요.

서예관을 기획한 것은 1997년부터였고, 2년 전부터 한국 서예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예인구를 약 5백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서예 전용 전시장은 개관 당시에는 한국 서예관이 유일했습니다. 예술의전당에 있는 서예 전시장도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서예관을 운영하면서 보니 차가 없는 분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길상사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는 불평들이 많지 않았지만 서예관까지 오는 것을 불편해 하셨습니다. 길상사에서 서예관까지 5분이 채 안되는 거리지만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인사동에서는 차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서예관 건물에 누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서예관이라서 습하면 안 되거든요. 마침 옆에 남는 부지가 있어서 신축을 해서 서예관으로 쓰고 기존 건물은 다른 용도로 쓰거나 기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북동에 서예관을 세운 이유는 대사관저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에요.

40여 개 대사관저가 밀집해 있다는 것은 전시장으로서의 천혜의 장소예요. 동시에 40여 개 국가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찬란했던 우리 서예문화를 이 자리에서 다시 꽃 피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반계층의 사상과 철학이 집약된 서예문화를 통해서 우리문화를 널리 알리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성북동에 서예전시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사관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서예문화를 접하고 고국에 돌아가 한국에 대해 더 잘 알릴 수 있습니다.

지역에 서예방송국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TV를 보았는데 서예방송이 따로 있었어요. 한국에만 서예방송이 없습니다. 한국에도 서예방송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아보니 일반 건물은 안되고 방송과 촬영을 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성대 옆에 있는 건물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서예방송을 하면 서예 노하우를 가르치면서, 일종의 지름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예를 배우는 분들은 큰 결심을 하고 시작하지만 보통 번거롭거나 먹이 묻어 지저분해지거나, 실력이 늘지 않는 세 가지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번거로운 문제는 예전보다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둘째, 먹이 묻는 문제는 비결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셋째, 글씨 실력이 안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글씨를 쓱쓱 늘게 할 수 있습니다. 서예방송을 통해서 누구나 자기 혼자서 할 수 있게 하고, 자기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나라 서예문화에 대한 굉장한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서예문화로서 한류'를 만들어보자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손을 다루는 기능이 뛰어나고, 과거에 우리나라 양반들이면



모두 글을 읽고 글씨를 쓰는 서예가였습니다. 선비문화, 서예문화가 우리나라 만큼 풍부한 곳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남성인구의 반 이상이 서예인구였던 셈입니다.

신언서판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으로써 서예가 중요했고, 필체로 관직에 등용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과거시험 때도 자신의 생각과 뜻을 글씨를 써서 판단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서예 체험전을 하였는데 참 좋았습니다.

외교사절 80개국 서예 체험전이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언론인들과 아이들, 가족들도 왔어요. 전부 한글을 쓰게 했는데, 참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지원을 좀 받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관으로 서예관을 기증하고, 신축을 해서 서예관을 새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성북동이 더 멋진 곳, 더 오래 자랑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예·전통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성북동이 삼청동처럼 되었을 때, 이만한 가치가 보존될지, 서양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촌이 되버리지 않을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북동의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세계가 인정하는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저급한 문화로 다수에게 알려지는 것보다는 고급문화로서 알려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행자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창덕궁처럼 단체로 움직일 수 있게 차량으로 순회하도록 셔틀버스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창덕궁 주변처럼 일반인들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특별한 지구를 지정해서 상업화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전체 성북동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고급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만을 특수하게 개발해서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고, 환지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적절하게 규제를 해서 더 멋진 곳, 더 오래 자랑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존의 권역을 잘 살려서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부동산가격만 들썩이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중국 등 해외 다른 나라에 가봤을 때 우리나라만한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세계인의 비버리힐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중에서도 성북동은 간송미술관, 가구박물관 등 문화유산들이 있고, 한국의 고급주택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급문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역의 사랑방을 꿈꾸며

황선영 성북나눔연대 사무국장



- 인터뷰 일시: 2012년 9월 7일 금요일 오후 4시
- 장소: 성북나눔연대 사무실

황선영 사무국장은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01학번)를 졸업하고, 현재 성북나눔연대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몰래 산타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눔연대와 인연을 맺었고, 동네 헌책방, 효자손 봉사 등에 참여하면서 성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다. 황선영 사무국장은 성북동은 역사문화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대중교통을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성북동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이나 복지 혜택이 필요한 부분이 보완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성북구에 거주한 지 10년 정도 되었네요.

2002년부터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쪽 강남에 살다가 대학교 와서 보문동에 살았고, 졸업 후에는 성신여대 앞에서 자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기간이 거의 10년이 되었지요. 나눔연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게 된 건 올해(2012년) 5월부터인데 2008년에 ‘몰래 산타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눔연대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동소문로4가에 있는 동네 헌책방, 동네국수에서 활동 중이고요, 봉사모임 효자손에서 독거노인 반찬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효자손은 사무실 주변인 성신여대, 안암동, 삼선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예술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이 성북동이죠.

시낭송프로그램의 공동대표자인 오뉴월 서준호 대표님은 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변화를 꿈꾸는 십만 명의 시인들’ 프로젝트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프로젝트도 성북동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같아요. 대학로 옆이라 문화예술인들이 많거든요. 렌트 비용이 저렴해서 극단연습실이 많아요. 그래서 더더욱 예술적 기가 넘치는 동네인 것 같아요. 제가 21살까지 살던 강남은 삭막한 도시 분위기였다면 여기는 예술적, 문화적 요소가 많아요. 젊음의 생기도 느껴지고, 연륜이 넘치는 곳들도 있고, 대사관 거리는 다국적 분위기도 느낄 수 있어요.

성북동은 역사와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성북동에는 다양한 자원이 있지만 역사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성북동에는 길상사도 있고 간송미술관과 같은 미술관, 문학가들의 생가나 터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제 전공이 국문학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문학답사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성북구에 문화유산 체험

이 성곽길 따라 걷기 등 굉장히 많아서 비슷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성곽길이 참 좋아요. 자연과 역사자원이 함께 있는 곳이지요. 낙산 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은 좋은 데이트 코스라서 드라마에서 프로포즈하는 장면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낮에 보면 자연경관도 좋고 밑에 장수마을도 있죠.

성북동을 바탕으로 한 문학작품들도 많아요.

성북동을 바탕으로 한 문학작품들도 많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학생들이 내가 사는 동네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이곳이 대학이 많고 고급주택이 많아서 교수님들 같은 지식인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신경림 시인도 정릉에 사시는데 ‘시인을 찾아서’라는 작품에서도 성북동이 나와요. 성북동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성북구 전체로 보자면 조정래씨의 ‘한강’이라는 소설은 아리랑고개가 배경입니다.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에서 동네 헌책방이 시작되었어요.

원래 이 공간이(동네 헌책방) 동네국수의 창고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창고로만 쓰기에 공간이 아깝단 생각이 들고 이 공간에서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하다가 동네 헌책방 카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네국수에선 저희를 위해 공간을 내어준 거구요. ‘헌책방을 하면 좋겠다.’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시작하여 헌책방을 만들게 되었어요. 주민의 소모임이 많은데 모임 공간이 없으니까 모임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모임 활성화와 공간제공이 동네 헌책방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동네 헌책방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헌책 판매인데,

아직 시작하지는 못했어요. 두 번째는 주민모임 활성화와 공간제공인데 현재 공간을 꾸미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 소모임인 공공예술사업단, 핸드메이드 등에서 공간꾸미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나눔연대 초기에는 낙후된 골목길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참여한 초기 멤버 중 한 분을 중심으로 공공예술사업단을 꾸려서 그분들이 현책방 공간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책장도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는 놀토교실 친구들과 벽화를 그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공간을 오픈할 예정인데요, 온라인 도서 판매는 9월 안에 개시하려고 합니다. Famous라는 페이스북 쇼핑몰과 알라딘 중고 숍을 이용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동네 현책방 운영진은 총 3명이고, 공간을 활용하려는 소모임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새로 생겨난 공공예술사업단까지 포함한다면 일곱 개가 되겠네요.

소모임 구성원들은 대부분 성북구 주민이며, 주거지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성북동 나눔연대에서 일하다가 노원으로 이사 간 친구 등 성북구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이 구성을 보자면 모임에 따라 젊은 친구도 있고 주부들(핸드메이드나 동네장터)도 있습니다.

동네 현책방에서 여러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핸드메이드’의 경우에는 바느질이 중심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켈트강좌도 준비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이 계셔서 그 분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카페 동네 현책방에서는 이러한 동네 소모임에 모임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했던 책읽기 모임도 현책방을 시작함과 동시에 다시 해보려고요.

사실 저희가 생각중인 동네 현책방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우리들의 이상한 현책방’ 모임이 돈암동에 있어요. 지원을 받아서 골목클럽조성을 했는데, 현

책방을 조성하고, 그 공간을 이용하여 시낭송회도 하고 중창단도 만들었어요. 저희도 다른 곳과 연계하여 합창단을 만들 계획이에요. 10월까지는 이 계획들을 잘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주민이 만들어가는 주민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주민모임을 조금 더 많이 만들고자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 중이에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주민 간 활동과 학습이 계속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거든요. 몇 명의 활동가들을 통하여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지식들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민이 체험하고 만들어어나가도록 방향성을 갖고 활동할 생각이예요. 대학로에 위치한 청소년희망카페와 같은 분위기의 주민공간을 만드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나눔연대에서는 체험학습과 교육복지 활동도 하고 있어요.

‘신나는 체험학습’이라는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체가 있는데 지금은 사회적기업을 준비 중입니다. 잠깐 소개하면 ‘신나는 체험학습’은 신청 받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을 섭외하여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박물관 수업, 경제체험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정릉시장 답사, 박물관 수업, 포레팀 박물관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놀토교실’은 나눔연대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교육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놀토교실 학생들을 위하여 ‘신나는 체험학습’의 선생님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봉사를 해주시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총괄 및 지원은 ‘신나는 체험학습’에서 해주시고 있어요.

‘신나는 체험학습’은 나눔연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독립된 산하조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신나는 체험학습’은 이익창출이 되는 주식회사고, ‘나눔연대’는 비영리법인이지요.

성북동에는 복지혜택의 사각지대가 많아요

성북동에 계신 분들을 보면,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집만 갖고 계신 할머니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못 받으세요.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르신은 임원을 못시켜드렸어요. 어르신 아드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인데, 어찌되었건 동거인이 있다는 이유로 노인복지 지원을 못 받으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복지체계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관에서 전부 못한다고 한다면 민관이 협력을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효자손 봉사’라는 독거노인 대상 반찬 나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효자손 봉사’는 조리봉사와 배달봉사가 따로 있는데 조리봉사는 아파트의 학부모님들이 많이 해주세요. 어머니 한 분당 도시락 두 개를 책임지고 채워주세요. 배달봉사는 봉사활동하는 중고생들이 담당하고 있어요. 도시락을 지원받는 가구가 27가구인데, 여건상 더 늘리지 못하고 있어요. 배달은 토요일에 하고, 배달하는 친구들이 도시락 전달과 함께 말벗봉사도 하고 있어요. 동네국수에 나오는 보조금과 판매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효자손의 활동영역은 성북구 전체인데 주로 나눔연대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봉사자들이 거의 중고생들이라 멀리보내기 부담이 돼서요. 또한, 고려대, 한성대의 대학생들과 풍문여고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후배의 지원으로 풍문여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성북동을 안내하고 방문객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북동 어디를 가도 관광지도를 찾기가 힘들어요. 안내지도라도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성북동을 방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부족합니다. 주민이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일단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숙소, 교통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정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성북동에 대한 관광정보를 개인 블로그에만 의지하기는 힘드니까요.

성북동에서 추천할 곳은 많아요. 하지만 더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어요

맛집은 우선 동네국수집 추천하고요. 길상사와 같이 좋은 곳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걷기에는 좀 불편하죠. 보행도로가 한쪽으로 쭉 있는 게 아니라 좌측에 있다가, 우측으로 옮겨가기도 하는 등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아요. 주민이 승용차를 많이 타고 다녀서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1박2일에 나왔던 가구박물관이 오픈 예정이라는데 당장 교통편이 없어요. 또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고요. 매년 2회 개방하는 간송미술관도 오픈할 때는 세 시간씩(주말기준) 줄을 서기도 해요. 간송미술관이나 가구박물관 같이 성북동이 지닌 자원들을 널리 알리고,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아쉬워요.

안내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딱딱한 안내소 말고 성북동 분위기에 맞게 한옥카페같이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시설확보가 어렵다면 안내책자만이라도 지하철 역 안에 비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개발보다 낙후된 곳을 개선할 대안이 필요합니다.

성북동은 동네가 좋고, 화려하고 역사 깊은 곳, 고급주택들도 많지만 특히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 낙후된 지역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지역에서 사시던 분들과 지원을 해드리면서 그곳에서 계속 사실 수 있게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

래된 한옥들이 많아서 개선이 필요하긴 한데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북동은 자체로도 아름다워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날 골목길, 옛날 집들이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관리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북동은 지금 자체로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하여 아파트를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주민을 위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전체를 변화시키는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엄마들의 모임, 성·아·들

이선화, 노승화 성·아·들 공동대표, 운영위원



성·아·들은 '성북동의 아줌마들, 성북동의 아이들, 성북동의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엄마들 모임이다. 평범한 아줌마들이 아이들의 성북동 역사교육을 직접 하자는 취지로 뭉쳤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스스로 먼저 공부를 하고 있으며, 여러 형태로 진화·발전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들의 활동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동참하는 운영방식을 유지하고, 아이들과 주민에게 필요한 일을 고민하며, 협동조합까지 공부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2012년 9월 10일 오후, 성북동에 있는 덕수교회 북카페 '실만한 물가'에서 성·아·들 이선화 공동대표와 노승화 운영위원을 만났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성·아·들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와 활동내용, 그들이 앞으로 지향하는 바를 함께 나누었다. 성북동 아줌마들의 작은 모임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활력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성·아·들은 성북동을 위해 마음을 함께 한 아줌마들의 모임입니다.

성·아·들은 '성북동의 아줌마들, 성북동의 아이들, 성북동의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성북동 주민이 함께 하는 모임입니다. 함께 하는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2명, 총무, 감사, 간사 각 1명, 운영위원 3명 이렇게 여덟 명입니다. 아는 사람끼리 연결이 되어서 구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재수생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운영위원 8명이 포도송이처럼 엮여있는데, 아예 다 아는 사람은 아니고, 한 다리 건너서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면은 있고 오며가며 보기는 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끼리 모이게 되면서 이렇게 직접 만나고 연결되었지요.

모임의 주축을 이룬 임원 이외에 같이 역사교육을 받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1기 모집에 30명 모으기로 했는데, 거의 30명 다 모였죠. 초반에 저희 학부모들 그리고 아는 사람까지 해서 절반 정도 모였고 네이버 카페를 보고 전화문의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성북동에 계신 분들도 많지만 아닌 분들도 있어요, 역사라는 말에 연세가 높은 분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연령층을 나눠서 교육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시작은 모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성북동 주민센터를 주로 활용하고 모임은 성북동 주민이 운영하는 카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북동은 마을의 느낌이 있습니다.

성북동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사 나가셨던 분들도 결국은 성북동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시골 마을 같은 느낌이랄까? 인상적인 것이, 여기는 명절 때 차 달 곳이 없을 정도예요. 오래 사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명절 때 자식들이 성북동으로 오거든요. 그렇게 지역의 문화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카페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예전에는 완전 주택단지였습니다.

혼자 남아있는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습니다.

성북동에도 맞벌이가 많아요, 저소득층 애들도 많은 편이지요. 돈 많은 집의 아이들은 성북초등학교에 잘 안 와요. 그래서 재적수에 비해 저소득층이 많은 편이지요. 사실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요새 학교는 매주 토요일에 놀잖아요. 그런데 힘드신 부모님들은 토요일이라고 쉴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 아이들은 집에 혼자 남아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섭외해서 토요일에 역사탐방을 갔는데, 그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교육의 일부이지요.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동네에 공부할 것도 많은데 굳이 밖으로 나가야 할까 그런 거지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엄마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처음 내놓으신 분들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님들이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애들이 엉뚱한 질문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고민이 되기도 했지요. 예산을 받고 돈이 나오니까 어! 진짜 하는 건가? 했지요. 그런데 또 든 생각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엄마들 계발을 위해서라도 배워보자. 그렇게 공부한 후에는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엄마가 유식해져보자!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아이들 질문에 어느 정도 대답해줄 수 있다면, 다른 아이들과도 같이 얘기할 수 있을 테고 그게 바로 해설가가 아닐까,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 강의도 10강만 하려고 했는데 배울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하는 거 제대로 배우자고 20강으로 늘렸습니다.

엄마들과 지역의 어르신들이 함께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 예산의 80%는 강사비예요. 처음에는 강사비가 절반, 아이들과

탐방하는 데 절반으로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려면 지식을 먼저 가져 보자는 생각으로 강의 수를 늘렸어요.

강의 구성은 마을만들기 센터에서 담당하는 마을관련 10강, 역사 유적지 공부로 구성된 10강이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야 하니까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공부를 합니다. 11월 말까지 강의가 끝나고 나면 12월 한 달 동안 아이들이랑 같이 탐방을 갑니다.

올해 말에 이번 사업이 끝나는데, 내년 봄에는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교육을 받는 데 학부모 외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오늘은 노인정 회장님께서 전화하셔서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여기 지역 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첫 회의 때 반 이상이 등록해주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교육은 마을만들기와 역사스토리 강좌로 진행합니다.

교육은 화요일, 목요일에 2시간씩, 20번 강의로 총 40시간입니다. 수강료는 2만 원인데 무료로 하면 책임감을 못 느껴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책임감의 의미가 큼니다.

20강의 강좌는, 처음에는 10강의 예산을 받았는데 20강으로 늘어나니까 비용이 초과되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어요. 원래는 역사 강좌만 하려고 했는데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일이기도 해서 마을소개, 마을만들기에 대한 내용도 넣었습니다.

강사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쪽에서 마을만들기 강좌를 담당하고, 성북동 역사는 ‘우리미래’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의 선생님께서 오셔서 10강을 진행해주세요. 스토리텔링 하시는 분, 워크숍 하시는 분, 응급처치하시는 분은 각각 따로따로 섭외를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한 여러 번의 회의와 발품 팔아 얻는 정보로 교육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저희 커리큘럼이 체계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열 번 정도 모여서 회의를 계속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강사 선생님 섭외도 발품을 팔아서 여기저기 문화센터를 뒤풀어가면서 했습니다.

회의한 내용을 잘 정리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 분이 사업계획서를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애들 키우시던 주부들의 숨어있던 끼가 나오게 되고, 엄마들의 자아발전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에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매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지금 성북동 스토리(역사문화책) 교재를 만드는 중인데 저희가 듣게 될 강의책자를 토대로 아이들을 위한 교재도 만들 생각입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여덟 명이 다 같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주부들은 오후에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직장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집안 일 다 마치고 밤 8시, 9시에 모이기도 합니다. 낮에 운영 팀끼리 만나야 할 때는 직장 다니는 분(8명 중 직장 다니시는 분은 한 분) 회사 근처에서 점심시간에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죠.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아·들은 성북동의 아름다운 길을 우리 아이들과 외부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북동은 환경이 아름답고 성터(성곽), 한옥마을, 과학고 뒤편에 있는 성곽 산책길이 좋아요. 길상사도 좋구요. 길상사에서 성터 쪽으로 이어진 골목길이 많아요. 성균관대 후문 쪽에서 와룡공원으로 연결이 되는데 성북동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 동네 주민도 많이 찾는 길이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 동선을 같이 걷는 것입니다. 수업 내용 중에 길찾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동선을 소개 해주고 같이 걸으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배우는 거지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젝트 외에 우리 동네를 찾아오는 분들을 위한 탐방가이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성북동 가이드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지역주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이번엔 아이들을 위해 해보고 그게 자리가 잡히면 어른들을 위한 탐방가이드로 발전시켜 볼 생각입니다.

성북동의 길과 공간은 아이들과 주민을 먼저 생각했으면 합니다.

성북동은 주차문제가 큼니다. 주차장이 마땅치 않아서 길가에 주차한 차가 많아요. 아이들이 놀 만한 놀이터도 많지 않아요. 군인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보행로, 특히 덕수교 바로 밑은 성북초등학교 최대 통학로인데 거기도 인도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길상사 앞 도로가 굉장히 복잡한 것도 불만이 생기는 것 같고, 평창터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대부분이 반대합니다.

성북동을 주민이 행복한 동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첫 해 성적이 좋으면 계속 이어서 지원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운영진 8명 포함 수강생 절반 정도가 중암동에 있는 사회적기업 두드림에서 협동조합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성을 만들기 위해서 더 공부하는 거지요. 성·아·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시작은 작은 첫 걸음이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활동해 자리를 잡아 간다면, 그런 모습이 성북동의 희망이 되고, 주민에게도 새로운 모습이 될 거라 믿어요.

성북동의 민간 외교사절

이은준 성북동 북정마을 통장 친목회 회장



성북동 통장 친목회 이은준 회장은 성북동에 거주한 지 40년이 넘는 토박이다. 성북동에서 통장만 20년을 했고 2012년 통장 친목회장을 맡았다.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15년 전부터 성북구 관내 외국인 행사를 주관했고 다문화센터와 교류사업도 처음 제안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2년 11월 6일, 성북동의 한 작은 슈퍼마켓에서 성북동 북정마을 통장 친목회장을 맡고 있는 이은준 회장을 만났다. 이은준 회장은 성북동을 한 마디로 “정이 많은 동네” 라고 말한다. 빈부 격차가 심한 동네지만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하면서 사는 동네라며 마을살이의 깊음 통찰에서 배어나오는 말씀을 해주셨다.

이은준 회장님 부부는 성북동에 사는 외국인들과 교류사업을 구청에 처음 제안하고 지금까지도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에게 봉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은준 회장은 성북동의 재개발에 대해서 “대기업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슈퍼마켓을 시작한 지는 20년, 외국인 행사를 주관한 지는 15년이 되었습니다.

성북동은 정(情)이 있어서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동네에 들어올 때는 계통이다 뭐다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 것이라 예상도 했는데 살아보니 동네가정이 많아서 이사를 안 나가게 됩니다. 여기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데 빈부의 차이가 심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대로 살고, 서민들은 서민들끼리 살고 그렇게 각자 정(情)으로 연결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 뒤로는 달동네고, 여기 앞에는 재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두 계층의 정중앙에 끼어서 사는 거죠. 그렇다고 두 계층을 대상으로 장사하겠다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옛날에 부모님이 구멍가게를 하셨는데, 이 동네에 와서 건물 짓고 장사하시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고추장이나 김치를 사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0년 전에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여기 대사관에 있는 외국 사람들이 찾는 치즈나 유제품 등을 주문을 받아서 들여놓고 팔았어요.

옛날에 성북구 관내에 있는 외국인 행사는 제가 거의 주관했어요. 외국인 행사를 시작한 지는 15년 정도 됐고, 다문화 센터를 통한 교류, 다문화 센터나 성북구청에 외국인들 도와주는 부서를 두는 아이디어도 제가 냈습니다.

집사람이 영어, 일본어, 아랍어를 조금 하거든요. 외국인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 여기 사는 외국인들이 살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 데려다가 자기들이 일일 영어강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내서 음식 다문화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SIWA바자회 같은 걸 하는데 그것을 한국 정서에 맞춰서 하자고 제안했지요.

성북동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용의 꼬리' 라고 합니다.

성북동 주민 중에는 아직도 쌍다리나 성북개천이 흐르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에 성 너머에 개천 흐르는 동네가 많이 없잖아요? 여기는

서울인데도 산골짜기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개천은 없었지만, 마을 곳곳이 좋았어요. 한 가지 문제는 수도였어요. 한 시간 두 시간씩 걸려서 물을 길어왔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여기를 '삼태기동네' 라고 부릅니다. 삼태기는 시골에 가면 짚으로 만들어서 물건을 주워 담는 건데, 뽕튀기 아저씨들이 갖고 다니는 거요. 지도를 보면 삼선교가 있고 주변은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성곽 입구로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게 삼태기 같아서 삼태기 동네라고 불러요.

요즘 성북로를 확장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도로 확장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 인식이 도로 확장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냥 옛날 길 그대로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동네 성격은 고려하지 않고, 이 산골동네에 직선으로 길을 뚫어놓으면 동네 다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느 신문에서인가 성북동의 풍수지리에 대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성북동이 북한산 줄기 꼬트머리인데 풍수지리학으로 보면 용의 꼬리라는 거예요. 정계나 경계계에 있는 분들이 용의 꼬리에 정착하는 거죠. 생전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여기서 쉬고 저승으로 가는 그런 용의 꼬리라고 풍수지리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북동은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빈부격차가 큰 동네이지만 크게 인식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오래 살다 보니 타성에 젖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재벌들이 북정마을 할아버지들이랑 직접 교류할 기회는 없잖아요? 주민센터나 성북동 동민회에서 노인들 경로잔치를 일 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 거기에 재벌들이 큰 돈은 아니어도 푼푼이 내서 잔치도 하고 그랬어요. 뭐 그런 것 외에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교류하는 경우는 없어요.

빈부격차 해소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조치를 취한다

고 해서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북정마을 사람들은 재벌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같이 살고 적응이 되다 보니 인식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길상사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둑놈촌에 왔다고 재벌들을 욕한단 말이죠.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실제 성북동에서 진짜 등쳐먹고 재벌 된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요새는 재벌이라도 자기관리, 회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조금만 한눈팔아도 주주들이고 뭐고 눈이 시뻘개져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재벌들도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 만큼 노력하지요. 이 사람들 보면 3시 30분에 일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런데 외부에 온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좀 알기 때문에 재벌들에 대한 거부반응이 없어요.

성북동은 ‘조용하고 정이 많은 동네’, 있는 그대로 지키고 싶어요.

성북동은 이동인구가 많지 않아요. 큰 주택에 노인들만 사니까 젊은 아들, 딸들이 여기에서는 못살아요. 강남 같은 데 나가서 살죠. 일단은 문화시설이 없으니까요. 술집 커피숍 같은 것도 없고요. 여기는 오후에는 여섯 시만 돼도 적막해요. 아침에는 뭐 사람소리도 안 나고 시골처럼 조용하고 빠꾸기 소리 나고 그러죠.

몇 해 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나돌았어요. 북정마을 마을사람들이 원래 마을잔치를 다 같이 하고 서로를 잘 아는데 재개발이 갖는 의미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재개발하는 것을 지역주민은 반대를 해요. 재개발하면 분양가격이 3.3㎡당 4천만 원, 5천만 원인데 토착민들이 살수가 없는 거죠. 오세훈 전 시장이 한옥타운 만드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고급화를 하니까 지역주민이 살기가 힘든 거죠. 산골짜기 동네에서 조용히 살면서 지역주민끼리 푹푹 뭉쳐서 살아왔는데 그거를 뒤흔드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없는 사람들 주택을 개선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지원해줘서 살만하게 해주는 것이 재개발이어야 하는데, 재개발해서 밀어버리면 1/3 정도만 현 지사람이 남고 2/3는 타지사람으로 차고 그러면 전통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여기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주민센터에서 보름에 옷놀이 한다고 하면 슈퍼에서 얼마 내고, 정육점에서 얼마 내서 보름잔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스코나 대형매장이 들어오니까 그런 문화가 없어졌죠. 큰 슈퍼가 들어와서 상권을 뺏으니까 지역의 상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형슈퍼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에 돈이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본사로 다 들어가니까 지역사람들은 가진 것이 더 없어지고 단합을 하려 해도 단합이 안 되는 거죠. 지역 내에서 돈이 돌아야 같이 융화가 되서 지역사람들이 어울리는데 대기업에서 들어와서 돈을 흡수하니까 지역사람들은 껌테기만 남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대기업을 밀어주기 보다는 지역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통장과 통장 친목회장하면서 시간도 많이 뺏기지만 주민과 함께 하는 보람으로 합니다.

제가 통장역할을 하는 구역이 엄청 넓어요. 뭐 하나 나눠줄라 해도 차나 오토바이 아니면 안 되죠.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기름 값도 안 나와요. 통장 맡고 반장도 있긴 한데 반장은 이름만 올려놓고 하는 일은 없어요. 성북소식지 나눠주면 돌리는 정도만 합니다.

지금 구의원들이 통장도 임기를 2년, 3년 하자고 그렇게 탁상공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진짜 모순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통장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2년 하고 관두라고 그러면 저도 손 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손을 놓으면 공백으로 남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실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탁상공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국회의원이 있으면 됐지 구의원, 시의원 필요 없는 것 같아

요, 구청예산 받아서 외국인 대상으로 행사를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말하는 구의원들이 있더라고요. 외국인들 밥 먹이거나 하지 말고 불우이웃 도와주자고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더라고요. 대외적으로 한국전통문화를 보여주는 취지로 하고 있는 건데,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자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 통장 친목회장에 비해서 나이가 젊은 편에 속합니다. 지난 번에 우리 통장 친목회장님이 나이가 제일 많으셨는데, 정년이 65세다 보니 이제 자리를 비워주신 거죠. 통장 친목회장이 뭐 좋은 건 없어요. 시간도 많이 뺏기고, 대인관계도 해야 되고, 가족들이 싫어하죠.

요즘 통장 친목모임에서 다루는 안건은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사는 얘기에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 맺은 포천시 농수산물을 파는 얘기도 했어요. 자매결연 맺은 곳을 관리하는 것도 통장 친목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통장 친목회에서 판매도 해주고 포천시 농협에서 조합 사람들 오면 그분들도 만나지요. 10월 마지막 주에는 자치위원이랑 직원들이랑 같이 사과 따러 가기도 했어요.

성북동 전통문화 선잠제 행사 보존에 앞장서다

현금동 성북동 선잠제보존위원회 위원장



성북동 선잠제 보존위원회 현금동 위원장은 성북동에서 40년 넘게 거주하면서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협회장, 산악회 활동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89년 구청에서 선잠제 행사 복원을 제안한 후부터 선잠제 행사에서 17년 이상 활동하고 있다.

2012년 11월 30일 성북구 선잠제보존위원회 현금동 위원장을 만났다. 현금동 위원장은 성북동의 역사보존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힘쓰기를 바라고 있다. 더불어 현금동 위원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성북동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개인 상설 미술관이나 전통적 색채와 관련한 시설 등 성북동다운 조용하고 고상한 것이 더 많이 생기길 바라고 있다.

선잠제 행사에 17년 이상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1972년부터 40년이 훨씬 넘게 성북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안 형님이 이곳을 추천해서 성북동으로 이사 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북동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모임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지도자 협회장을 몇 년째 했고, 현재는 새마을지도자 협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악산악회(성북동 친목회)는 4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산악회이고, 이곳에서 친목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정도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약 70-8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죠. 정회원은 60명 정도 되고, 성북동 이외 인근 거주자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잠제’ 행사는 1989년 구청에서 ‘선잠제’ 행사 복원을 제안했을 때부터 참석했습니다. 선잠제 행사 때 동원되는 선잠제관들은 주로 동네사람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선잠제가 정해진 날짜가 있었는데, 현재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리랑 축제와 겹쳐서 함께 선잠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성북문화원에 제복이나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하고 있고, 종묘 쪽과도 함께 활동합니다. 약 17-18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네에서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20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조문관으로 참석하고 있으나 지역 젊은 청년들이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아 많이 아쉽습니다.

성북동에 뽕나무를 더 심을 공간은 없지만 선잠단지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선잠제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잠단지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손해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학교까지 선잠단지로 뽕나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북동에는 서울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산책로가 있습니다.

가장 성북동답다고 말할 수 있는 성곽을 제외하면 성북동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박물관 같은 것은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어떤 것일까

싶습니다. 간송미술관의 경우도 개인이 관람하기에 제한이 있고, 딱히 한 곳을 뽑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인들이 성북동에 놀러왔을 때, 우정공원~녹산 약수터~와룡공원을 한 바퀴 구경한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 보기 드문 곳이라며 산책로로 참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북동을 방문한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맛집은 종점 근처에 씬밥집인데 친목회 모임에서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명가’라는 곳도 괜찮고, 40년 된 ‘옛 고향집’이라는 중국집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상점들 중에서 오래된 곳은 금녕약국, 성함이용원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최초 여자 이발사가 있는 이용원도 있습니다.

예전에 성북동을 평과 학이 많다고 해서 ‘평의 바다’ ‘학의 바다’라고 불렀어요. 제가 살고 있는 북정마을은 터가 예전에 국유지인가 그래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 짓고 구들 놓고 살았습니다. 그 주거단지가 신정동으로 쫓겨나면서 사람들은 더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북정마을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중간 중간 빈집도 많이 생겼는데 한용운 선생 집 올라가는 곳에도 빈 집이 몇 곳 있습니다. 그런 빈집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놓고 재개발을 기다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비어있는 웬만한 집들에서는 살 수도 없는 지정입니다. 우정공원 뒷길에도 옛날 집이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앞쪽은 정비되어 있지만 뒷길은 아직 옛날 집들이 있어요. 담장도 있고, 싸리문도 있는 집들입니다.

성북천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물이 엄청났습니다. 정법사 위에서 목욕도 할 정도였으니까요. 거기에 박물관을 만든다고 산을 다 버려놓은 셈이죠.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놀 만한 곳이 다 없어졌어요. 정법사 위에도 절이 있었는데, 그 쪽도 군인들이 있는지 철조망을 둘러놓았고, 동네 사람들이 노는 산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물이 많을 적에는 물이 역류하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욱 그랬죠. 비가 올 때 침수된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배수가 잘 되고 있어 침수 피해는 없습니다. 대원각 올라가는 가구박물관 쪽에도 약수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복개해서 없어졌죠.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더 힘썼으면 합니다.

성북동에는 문화관광 인프라가 개인의 것은 많이 있습니다. 성락원 올라가는 길에도 개인 미술관이 많죠. 나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개방된 곳은 많이 없습니다. 간송미술관은 다녀온 적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가서 구경도 하고 책도 사고 그림니다. 동네 주민 대부분이 자주 가지는 않지만 봄이나 가을에 주로 간송미술관을 찾는 편입니다. 간송미술관 갈 때 사람들이 몰리면 불편하니까 동네주민을 배려해서 따로 방문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내가 보고 미술관이 한가한 시간에 가는 것이 낫습니다. 멀리서 간송미술관을 보러 온 사람도 있는데, 우리 주민만의 편의를 위해 열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북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정공원에서부터 복원하려는 계획은 있었지만 비용 상의 문제도 있어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공에서 복원한다고 하면 주민의 터전과 관계가 있을 것이나 주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그 곳에서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북동의 역사보존이나 지역 발전 등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해도 주민이 직접 관련이 없으면 모이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선잠제 같은 경우는 내가 주도하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도움을 준다는 활동이라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잠제도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 홍보해도 실제 영입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힘써야 하는데 노인네들만 모여 있다고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잠제향도 사전에 선잠제향 행사 준비를 위해 모여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의 리스트를 정해 요청하는 편입니다. 다른 단체들도 사람 하나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그나마 젊은 편인데 그곳도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대부분 60대 이상이죠.

성북동의 변화는 성북동다운 조용하고 고상한 변화가 생겼으면 합니다.

흔히 성북동은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라고 하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하고 교류가 없는 편이어서 서로 혜택을 주거나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위화감을 갖고 살지는 않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는데 나는 재개발에 대해 긍정적인 편입니다. 원주민도 지금 3할 정도나 남았나 싶어요. 살던 집 팔고 토박이들도 외지로 다 나갔습니다. 왜 개발을 해야 하는지는 이 동네 올라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당장 일터가 없어지니까 반대하는 편인데 누구 편을 들 수도 없어요. 이곳은 선잠단지가 있어서 공원화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보상비 문제도 걸려있어서 어느 누구 편이 될 수는 없지만 재개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편입니다.

현재, 성북동에서는 주택 재개발, 한옥 재개발과 더불어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갤러리, 카페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성북동이 음식점이 없던 동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음식점들이 성북동의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성북동의 정취에 맞는 고상한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북동은 조용하고 고상한 것이 어울립니다.

미술관의 경우, 간송미술관은 외부 사람들이 찾아와서 관람을 하기 위해 2-3시간이나 기다립니다. 이처럼, 개인이 상설로 미술관을 오픈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전통적 색채와 관련

한 것들이 성북동에 많이 생겨났으면 합니다. 성북동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시골 향수’입니다. 오래됐죠.

성북동에는 공장도 없고 공기도 다릅니다. 다른 지역으로 나갈 때에 교통도 괜찮은 편이죠. 3개의 버스 노선이 있고, 순환버스도 있고, 환승도 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까지도 가까워서 대개는 걸어가서 지하철을 타고는 합니다.

특이한 것 중의 하나는 성북동은 감나무가 서울에서 가장 잘 되는 곳입니다. 북악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별도 좋은 편이니깐요. 성북동에는 뽕나무 말고도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용운 선생 집터가 있는 곳이 앵두마을 골이었습니다. 그 쪽에 원래 앵두나무가 많았는데 개발된 후에 앵두나무는 없어졌죠. 또 다른 것은 숙정문 올라가는 곳에 벼락바위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호랑이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북정마을은 그냥 산동네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상수도가 없어서 공동수도를 사용하고, 우물이 있어서 물도 길어다 마셨죠. 달동네에는 연탄도 때고, 방 하나에 부엌 하나 이렇게 두고 살았습니다. 또 옛날에는 눈이 오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쌍다리부터 종점까지 발에 새끼 꼬고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삶이 예술인 아름다운 여인 효재

이효재 한복디자이너



효재를 하나의 문장으로 소개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살림도 예술로 만드는 여인, 가장 여성적인 관점에서 여성이 해 왔던 일들을 아름답게 재해석하고 참 의미를 깨닫게 해 주는 여인, 이 효재는 메마른 우리의 삶에 지혜와 혜안으로 기쁨을 주고 있다.

2013년 1월 22일 오전. 성북동 효재에서 디자이너 이효재를 만났다. 삶 그 자체에서 예술을 느끼고 만드는 여인. 그녀의 삶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녀가 말하는 공간과 사람들 이야기, 아이들과 자선에 대한 그녀의 생각, 지금도 끊임없이 꿈 꾸고 실천하면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여인. 그녀는 작은 것에서 그것의 중요한 본질을 보면서 무엇이 아름다움인지를 찾아내고 가꾸어 가고 있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문화라고 말하고 있었다.

2008년 ‘효재’ 는 삼청동에서 성북동으로 옮겨 왔습니다.

성북구는 서울의 변두리로 참 불편한 곳입니다. 하지만 전 그 불편함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문화의 절제된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기준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콜렉터들은 있는데 좋은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북동에 한옥을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도시가 갑자기 한옥촌이 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집은 기워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우리의 전통한옥이라며 기와집을 지으려는 것일까요? 북촌이야 청와대 때문에 개발규제를 받고 있지만 성북동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향을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간 ‘효재’ 에 대한 이야기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문화체험을 하고 갑니다. 정갈한 한식을 먹고, 보자기를 싸는 체험을 하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 희망제작소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모임인 목민관학교에서 40여 명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날 완주군수님도 오셨지요. 이 집의 수용인원이 15명인데, 그때 참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웃음).

손님이 오시기 전에는 화장실도 내가 직접 체크를 합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차를 마셔도 구역질이 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선 화장실도 순례코스 중 하나입니다. 화장실에 있는 슬리퍼는 4천 원짜리인데 10년이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밥상도 장인이 만든 것을 오랫동안 사용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 아이들의 조상(문화)이 되어 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람, 이효재의 삶에 대하여

나는 느린 사람이라 대처하는 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날 답답하게 보더라도 실수하는 일이 없습니다. 문자를 쓸 때도 신중하게 고민하여 한 편의 시처럼 작성하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도 보낸 내용을 기억합니다.

또한 저는 시끄럽고 먼지가 나는 것을 못 견딥니다. 이 집에 와서 보니 도시가스 파이프가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들을 다 감아서 예쁘게 꾸몄습니다. 창문을 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울도 마음에 드는 거울은 너무 비싸서 그냥 보통 거울을 사다가 거울 테두리에 한지를 붙여 나만의 거울로 장식했습니다.

문득 저녁에 성곽을 올라가서 개나리를 씹어보고 읊니다. 개나리가 갑자기 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 씹어보세요.

우리의 멋은 각자의 안목만큼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제가 직접 디자인한 옷인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천 조각으로 만든 것입니다. 총 2백 조각을 이어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전 자식이 없습니다. 그것은 물려줄 누군가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젊을 때 모두 정리하여 다 기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인형선물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저는 인형들에게 직접 옷을 해 입히고 장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예쁘게 식사를 만들고 대접하고 장식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공감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효재’라는 이름,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효재’라는 이름은 ‘본받는 집’입니다. 새들이 쉬어가는 정자나무의 운명

을 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엔 친필 편지가 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당대 명필로 영친왕을 가르쳐서 역사에 남는 분이셨고, 아버지는 선비로 사셨습니다. 저는 그 분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저는 청렴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 남편은 제게 ‘각시 돈 천 원도 벌지 마.’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지 않겠다는 결심까지 했습니다. 돈이 되는 저술사업의 수익들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 팔 어린이들과 고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는데 저는 지원활동은 드러내놓고 합니다(웃음). 최근에 발간한 <효재, 아름다운 나라에서 천천히 - 자연에 기대어 나누고 사색하는 여행>이라는 책의 수익금은 전액 기부하였습니다.

책은 세상을 밝게 합니다. 책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글은 밤하늘의 별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에게 배우러 오는 주부들에게는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책을 사고 글을 써서 선물하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케이크 사가지 말고 책을 사가도록 하세요.

요즘의 ‘효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강화도에 전통여관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도 전등사 둘레에 단군의 아들이 세운 삼랑성(三郎城)이 있는데 성벽 바깥에는 대통령들이 헬기 타고 와서 머물던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을 활용하여 전통여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문화이벤트를 마련하고, 문화상품을 샘플 위주로 3백 가지 가량 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제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선으로 내세웠던 첫 번째 조건이 현재 전등사 앞에 있는 목탁 파는 집

등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더라도 기존의 시설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씩 고쳐가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으로 이 집이 문을 닫고, 이 주변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치단체에 좋은 사례로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파리에 가서 한복, 보자기, 자수 등을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 9월에 유럽 순회전을 열 계획도 있습니다. 올해에는 동화책도 10권 나올 예정입니다. 효재가 하는 일에는 어린이가 함께 합니다. 아이들은 동화를 읽으면서 즐기고, 엄마들은 살림박물관에서 즐겼으면 합니다.

앞으로 '효재' 가 해보고 싶은 것들

전 성북구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성북동은 늦은 개발로 정말 유리하게 보존되어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중국이 거대함의 문화라면 일본은 심플함의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것은 무엇일까요? 자원도 없고,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섬세한 아름다움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북동 구석에 있는 산꼭대기에 버려진 곳을 효재에게 맡겨주면 효재가 바뀌줄 것입니다. 아름답게 변화된 샘플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남들이 잘 꾸며져 있다고 하는 곳 말고, 버려진 곳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의 변화가 확연한 곳을 가꿔보고 싶습니다.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나를 많이 사용해 주세요. 서울시에 버려진 곳 중에 제가 직접 참여하여 가꿀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직접 깨닫고 예쁘게 가꿔보고 싶어요. 지금 이 집도 처음엔 귀신 나올 것 같이 황량했습니다. 내가 이사 오면서 꽃도 심고, 나무도 가꿔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입니다.



세상의 공간을 말하다

서울시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감상을 무시하고 건축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유명한 건축가의 건물이 제대로 보이기를 원한다면 적절한 감상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세종대왕이 있는 곳까지 도로가 아니라 공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세종대왕을 도로 한복판에 고립시켜둔 것은 횡포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도 건물 자체는 멋있지만 너무나 가까이에서 보아야 하기에 더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가 제대로 빛을 발하려면 그 주변이 공지여야 합니다. 새빛둥둥섬 또한 한강다리를 건너면서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새빛둥둥섬이 아닌 나루터를 설치하여 강남 강북을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궁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크기로 보면 중국의 것이 훨씬 큰데, 우리의 빈 고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럽에 가 보면 모나리자 그림에 전 세계인들이 30m씩 줄을 섭니다. 그 앞에 서면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곳에 스토리가 없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설까요? 바티칸도 마찬가지로 세계의 보고입니다. 그러한 감동 때문에 사람들은 줄을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감동과 스토리, 여유의 빈 공간이 우리의 문화를 더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제대로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옥에 대하여 말할 때 ‘한옥의 지붕선은 참 아름답고, 한옥에 거주하는 것은 편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외워서 말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옥의 가장 큰 매력은 불편함입니다. 불편해서 매력적인 것입니다. 저는 불편함을 좋아합니다. 코가 시리고 어깨가 움츠러드는 불편함 뒤에 봄이 찾아오는 그런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북촌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북촌에 살지 않습니다. 북촌이 청와대 때문에 층수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다른 곳에 사는 사람에게 그런 삶을 인위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 세상의 의미를 만든다는 생각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쓰임새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차가 안전한 것은 레일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감성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부를 디자인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남편이 밖에서 어떤 컵에 물을 마실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주부는 많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밖에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의 물컵도 아무거나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성탄절과 올 신년에는 지인들에게 직접 만든 북 트리, 대박빚자루를 찍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문자메시지가 아니라 직접 찍어서 보낸 의미 있는 문자메시지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북 트리 하나에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일상적인 대화가 변화됩니다. 그것이 문화입니다.

자신의 언어를 찾아라

요즘 저는 외래어 안 쓰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요?(Really?)’ 라고 반문을 자주합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말처럼 ‘네, 그렇군요!’ 라고 답해야 합니다.

사소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말은 곧 기도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교회에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이 중요함에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정말요?’ 라고 반문합니다. 언어가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말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창조적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시간이 나면 컴퓨터하고 TV를 보니까 그런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유 언어가 바뀌어야만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보고, 자신의 외모를 보고 그리고 자신의 언어를 찾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향과 같이 푸근한 마을, 성북동

최성수 시인



- 일시: 2013년 3월 19일
- 장소: 성북동 카페 보통날

최성수 시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을 성북동에서 살아왔습니다. 성북초등학교에서 신일고등학교까지 성북동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현재도 성북동에 살면서 과거 교사로서 경험을 살려 시를 쓰고, 글쓰기 모임을 하는 등 성북동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수 시인은 성북동을 ‘고향과 같이 푸근한 곳’ 이라고 하면서, 성북동만이 가진 매력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구릉과 골짜기, 골목, 선잠제, 길상사, 성락원 등 성북동이 가진 매력들이 잘 보존되면서도 성북동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도로와 생활환경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을 조화롭게 해결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동네를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으레 여기서 산다고 생각했죠.

1968년에 강원도에서 전학을 왔는데, 그때 교장선생님이 ‘1년만 일찍 오지 1년 전에는 전차가 다녔는데’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1920~30년대 소설을 보면 전차를 타고 와서 삼선교 전차역에서 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성북동에서 조금 더 가면 돈암역이고, 아마 미아리 고개쯤이 종점이었을 거예요.

제가 신일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눈이 많이 오면 버스가 미아리고개를 넘어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일고까지 성북구였어요. 강북구, 도봉구, 석관동 그리고 1호선 성북역이 있는 곳이 성북구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전학 와서 계속 성북동에 살았죠. 중학교는 동대부중, 고등학교는 신일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성북동에서만 3번 이사했죠. 성북동에서 다른 동네를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여기서 으레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향의식이라고 하는데. 동창들을 보면 여기 살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졸업식에 가면, 부모들도 교가를 따라 부르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저도 거의 여기서 평생을 살았다고 해야죠. 10년 빼고는 거의 성북동에서 살았으니까요.

성북동을 떠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북동에 대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성북동이라는 이름은 아닌데, 성북동에 대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북동을 주제로 한 시집을 내볼까하고 구상중이죠. 집 사람도 성북동을 배경으로 소설을 쓴 것이 있어요. 제가 성북동에 대한 시를 쓰게 된 것은 잘못하면 성북동을 떠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당시에 우리 집도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기억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어쨌든 내 삶의 자취니까요.

시집에는 제가 어렸을 적 얘기, 초등학교 때 간송미술관 담을 넘어가서 놀

곤 했던 이야기 등이 있어요. 이사 와서 한옥집에서 살았는데, 그 한옥집에서 우리 아들 녀석을 낳았지요. 길이 넓어져서 한옥집을 헐게 되면서 집을 새로 지었어요. 원래 한옥집 목재는 가구박물관 짓는 데 쓰였어요.

제가 성북동 명랑이발관 옆에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거기 살았었고. 누나랑 자취를 했었죠. 제가 인터넷 신문사 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리운 명랑이발관 시절’이라는 기사를 쓰면서, 그 때 성북동 얘기를 했어요.

성북동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죠.

푸근하죠. 오래 살았으니깐요. 제 개인적으로는 삶의 역사가 있는 곳이니깐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성북동이라는 곳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풍경도 있어요. 저녁 무렵에 버스를 타고 들어오다 보면 양쪽 능선으로 어슴푸레한 산 그림자가 아래쪽은 어둡게 위쪽은 희뿌옇게 보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저녁 무렵,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그 풍경을 보고 있으면 여기가 도시지만 도시 같지 않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요. 여기가 골짜기잖아요. 우리는 원래 산지에서 태어나고 산지에서 사는 민족이고, 여기가 산골짜기라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안개는 산꼭대기로 낄 때가 많아요. 성북로 저쪽 길에는 개천이 있었고, 집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상가도 형성이 안 되어 있었고, 가게도 별로 없었어요. 시장을 가려면 삼선교로 가거나 아니면 바로 여기에 지금은 도로가 되었지만 조그만 시장이 있었어요. 그냥 사람 사는 동네 같았죠.

그리고 집집마다 나무들이 많았어요. 집안에 심은 것도 많았어요. 지금은 다 베어버리고 없어요. 산을 개발하면서 집 짓느라 없어지고, 김광석 시인 시에 나오는 채석장 만들면서 다 사라진 거죠. 다시 복원을 한다면 복숭아나무를 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 글쓰기 강좌에 관심이 있습니다.

글쓰기 교육을 여기서(카페 보통날) 주로 했어요. 마을만들기 사업의 하나였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를 가르친 것은 처음이었어요. 재미있고 아주 흥미로웠어요. 4월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글쓰기 교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글쓰기 강좌에 관심이 있습니다. 시를 쓰든, 어떤 글을 쓰든 작가가 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기치유를 하고 자기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 쓰는 거지요.

마을주민, 지역의 갤러리들과 함께 마을 옛날 사진전을 열어보고 싶었어요.

마을 옛날 사진전을 해보고 싶어요. 서울시 지원사업에 내볼까하는 생각도 있는데, 예산지원을 받던, 안 받던 동네사람들과 꼭 해볼 생각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 외지인들이 와서 얼마나 편하게 다닐까 외지인이 와서 얼마나 좋을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어떤 것이든 주민이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북동에 갤러리 카페들이 생기는데 주민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갤러리 카페에서 사진전시를 하면서 카페와 주민을 연결하고 서로 관계형성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뉴월과 보통날 등 카페 몇 군데에서 동네 사진전을 하는 거지요. 또 어르신들의 스토리, 집을 마련하신 얘기 등을 가지고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글쓰기 강좌를 제안했는데 찬성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성북동은 골목을 살리는 것이 필요해요

성북동에 사는 사람들은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처음에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사를 왔지만, 막상 와 보니 지금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성북동에서 직접 사는 것과 밖에서만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아이들이 아파트에 살 때는 아토피가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없어져서,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제가 성북동에 살아보니 골목이 매력이 있어요. 미로 같아서 재미가 있거든요. 어떤 곳은 막혀있고, 어떤 곳은 뚫려있어요. 예전에 임옥상 선생님을 그 골목길로 안내했는데, ‘무슨 골목 순례한 것 같아서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골목을 살리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골목을 살리려면 골목에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담을 쪽 쌓아준다거나, 한옥으로 짓는다고 하면 보조를 해주고,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해요. 지금 골목길은 어른들이 다니기가 불편해요. 계단도 잘 안 되어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죠.

구릉이 살아나고, 성북동이 성북동 자체로 하나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들이 가능하면 더 낮아져서 구릉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성북동에서 성북동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되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문화가 문화재로만 존재하면 생명력이 없어요. 도심에 문화재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삶과 문화재가 끊임없이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만일 경복궁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보존을 한다면 깨끗하게 잘 보존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심우장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다가 들어가 볼 수 있는 곳인데 반해서, 성락원은 시민이 들어가지 못하는 문화재예요. 또 길상사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길상사가 좋다고 생각해요.



선잠제도 성북구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데, 선잠단지는 못 들어가게 하고 있죠. 선잠제를 할 때도 주민참여가 부족한 편이죠. 선잠제에서 주민이 뭔가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생산되지 않더라도 오디술 담그기, 오디잼 만들기를 하고 선잠제 날은 주변의 카페들도 오디로 만든 뭔가를 판다든지 그러면 그 자체로 축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복숭아든, 오디든 성북동에서 생산되는 뭔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걷기 편한 성북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북동은 도로가 걷기 편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특히 길상사 올라가는 길은 차가 많아서 걸어 다니기가 힘들어요. 일요일에는 성당에 오는 차량이 많아서 보도로 걷기가 더 힘들기도 합니다.

‘성북동 마을학교’에서 하늘 길 발표했던 분들도 계셨지만, 능선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 홍익에서 올라가는 길, 성락원에서 올라가는

길 등이 있는데 아쉬운 것은 안내 표지판이 없어요. 심우장 쪽도 인도가 별로 없고, 차도로 건너야 하고 차 중심이어서 걷기에 불편한 길이에요.

차보다는 사람이 걷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북동에 차로 와서 문화재 몇 개 보고 간다면 의미가 없어요. 성북동은 걸어가야지 의미가 있는 곳이지요. 최근에 보면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보존을 하면서도 조화롭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죠.

요즘에 카페가 늘어나면서 성북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사라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성북동 마을학교’를 하면서 북정마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북정마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한옥마을 짓는다고 하면서 외지인들이 들어오고, 만약 한옥에 들어가려면 10억이 든다고 하면 결국에 원주민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개발 문제에 걸려서 지금 집도 못 고치고, 전기, 가스 등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도 문제이고, ‘문화재와 조화롭게 지역마다 걸려있는 재개발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결해서 주민이 정착되어간다면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타운 정이 살아있는 우리 동네 북정마을

김현동 성북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경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일시: 2013년 3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북정마을 내 북정카페

북정마을은 한양도성에 접해 있는 마을로 요즘 서울에서는 찾기 힘든 오래된 마을이다. 북정 마을에서는 시골의 자연부락과 같이 이웃집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이웃 간에 정이 두텁고 공동체 생활이 지속되어 왔다고 한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북정마을에서 나서 자란 성북동 주민자치위원회 김현동 위원장과 새마을협의회 김경동 회장을 만나서 북정마을과 마을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태어난 곳이 여기야. 예전에는 아들, 딸끼리 결혼도 많이 시키고, 한 부락처럼 살았어.

김현동: 태어난 곳이 여기야.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 살았어. 할아버지도 여기서 잠깐 살다가 돌아가셨어. 여기가 내 고향이야. 우리 동네 살기 좋아. 그러니까 몇 십 년 동안 여기서 살지. 지금이야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오고가고 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네 물건 내 물건이 따로 없었어. 아들, 딸끼리 결혼도 많이 시키고, 한 부락처럼 살았어. 그렇게 살았어 여기가. 이웃집에 남자가 있으면 옆집에 신부가 또 있고,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지.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서. 어렸을 때는 30채 미만의 집만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저 밑에 마을로 올라오는 곳에 감나무가 100그루 있었어. 거기가 감나무 밭이었어.

새벽이면 뻘국새 울고, 저녁이면 소쩍새 우는 그런 동네는 아마 이 동네 밖에 없을 거야.

김경동: 성북동에서 산 지 이제 이십년 조금 넘었어요. 결혼했는데 동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친구예요. 동서도 이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를 알게 됐어요. 와서 보니까 공기 좋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뻘국새 소리가 들려요. 별천지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 시내에서 새벽이면 뻘국새 울고, 저녁이면 소쩍새 우는 그런 동네는 아마 이 동네 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웃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아는 동네예요.

김경동: 살다 보니까 이제 이웃을 알게 됐어요. 처음 여기 와서는, 여긴 워낙 오래 산 사람들이 많으니깐, 조금 텃세가 심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또 살다 보니까 이웃을 알고 친하다 보니까 완전히 옛날 우리 시골 분위기 같은 걸 느꼈어요. 이웃을 아는 동네예요. 예를 들어 여긴 이웃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아는 동네예요. 참 좋더라고.

한양도성하고 같이 이런 마을을 보존하고,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동: 결혼하고 처음 동서네 집에 와보니까, 그 때는 쌍다리 밑에 내려서 걸어 올라왔었어요. 저 밑에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경사가 많이 졌습니까? 그 때는 차도 당연히 못 들어왔고, 흙길을 꼬불꼬불 걸어올라 왔는데 서울에 아직까지 이런 동네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후에 소방도로가 나면서 이 동네가 조금 정비가 됐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동네를 자랑삼아 말하자면, '서울에서 마지막 달동네이지만 이 자체가 우리나라의 역사이자 문화다.'라고 생각해요. 서울 성곽도 역사적인 거지만, 이 동네 자체도요. 이웃들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 자체가 우리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이런 지역을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한양도성하고 같이 이런 마을을 보존하고,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동네에 무슨 일 있으면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모여서 하지.

김현동: 주민자치위원장 된 지는 거의 4년이 되었어. 원래 임기는 2년인데 한 번 더 연임했어. 주민자치위원회는 28명이고, 위원회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있어. 자치회관 자치프로그램 진행하고, 뭐 하여튼 동네 무슨 일 있으면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모여서 하지. 최근에는 주민센터와 함께 주민센터 앞에 게시판을 만들었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한 거야. 그리고 그 전에 도-농 간에 교류사업을 했어. 원래는 해남군과 교류를 하고 성북2동 이랑 통장들이랑 새마을회장들이랑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나중에는 포천시 관인면으로 바뀌었지.

지역에 산악회도 많고 북성회와 동민회라고 계모임도 있어.

김현동: 지역에서 했던 단체 활동 중에 북악산악회를 했었는데 그냥 나왔어. 거기 술이 너무 싸더라고. 동네 노인 양반들이 많은데, 나는 그냥 시간제

회원이야. 새마을회장님도 가고 나도 가고 내일 모레 또 가야 돼. 또 성일 산악회라고 거기 갔다 왔어. 성북산악회랑 북악산악회에서도 와서 인사말 좀 해달라고 해. 그리고 계모임 중에 북성회라고 있어. 자생단체인데, 북성회하고 동민회하고 두 개가 있어. 내가 동민회 회장하다가 또 총무를 겸임했어.

동민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일 년에 한 번 경로잔치를 하고 있어.

김현동: 우리 아랫집에 거의 90된 양반이 혼자 사는데, 그 양반이 안 보이면 불안해. 전화도 안 받고. 가끔 가다가 보여. 그럼 아직 살아있구나. 독거노인들은 돌아가셔도 모르잖아. 그 전에는 성북구청에서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어느 새 또 안 하더라고. 그런 차원에서 동민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일 년에 한 번 경로잔치를 해. 보통 성북초등학교에서 원로 가수들이 여럿 와서 봉사하는 식으로 조금 받고 공연을 하지. 주민도 다 같이 참여하고. 나중에는 경로잔치 및 주민화합으로 잔치 이름을 바꿨어. 같이 놀고 하니까. 주민 전부 포함하면 한 400~500명 될 것 같아. 경로잔치한다고 하면 정릉, 혜화동 사는 분들도 오고, 성북동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같이 놀아. 그 양반들 전부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니까.

여기 독거노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김경동: 오늘 새벽에도 이사 온 할머니 집에 갔었는데, 그 분도 자식이 있으나 마나야. 그 집 연탄 쓰거든요. 지난 가을에 몇 번 연탄 봉사를 해드렸는데, 그 집에 부엌이 추우니까 연탄난로를 땅에 묻었는데, 그 난로가 문제가 생겨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일이 있어서 못 가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갔어요. 할머니는 ‘자식이 있으면 뭐해.’ 이러더라고. 자식이 없는 건 아닌데 이웃사촌만 못한 거지. 급할 때는 이웃사촌이 낫지.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독거노인들은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고요. 자기 몸도 제대로 추스르기 힘든 데 연탄불 갈아야지, 잡숫는 것도 제대로 잡수겠어요?

북정카페가 동네 사랑방이야.

김정동: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많아서 여름에는 바쁘다 보니까 많이 는 없는데 겨울에는 공사가 없어서 시간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모임이 되는 거죠. 여기가 동네 사랑방이야. 여름에 여기 한 번 와보세요. 골목 골목마다 평상이 다 나와 있어. 저녁이 되면 보리밥 좀 해와, 내가 된장 끓여올게, 또 다른 사람은 김치 가져올게, 그러면 한 상이 되고 같이 먹어요. 이웃 간에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요즘은 못 볼 거예요. 이런 게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러니까 술, 담배 같은 건 인심이 되게 좋아요. 전부 동네 사람들이 줘요. 동네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 혼자 먹겠어요? 이리 와서 한 잔해 하는 거죠. 그리고 한 잔 사면 또 한 잔 사고 이러는 거지. 매일 얻어먹기만 하면 그 사람 부르지도 않겠죠. 그게 품앗이야.

여기 북정카페 주인이 주민들한테 잘해요. 참 고마워.

김현동: 아까 그 아줌마가 넉죽이여. 아줌마가 한 분이 있어. 가을 되면 콩을 몇 가마니씩 사가지고 와서 된장이나 청국장 만들어 팔기도 하고 여기 북정카페 주인이 주민들한테 잘해요. 원래 여기 시어머니가 하다가 며느리한테 물려준 건데, 아줌마가 손이 커 가지고 막 이만큼씩 주고 그래. 옛날에 이런 게 없을 때는 우리 선배들이 많이 죽었어. 안주가 없어서. 옛날에는 라면 하나를 가지고 소주를 다 먹은 거야. 안주 놓고 술을 먹어야 하는데 그냥 깡술을 먹은 거지. 새우깡 하나를 웬 종일 먹어. 일찍 간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북정카페가 생기고 나서 요즘 죽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곳이 생겨서 참 고마워.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카페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동: 우리 주민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카페나 이런 걸 만드는 건 대환영입니다. 수익금이 생기면 다시 우리 동네를 위해 쓸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외지인이 들어와서 투자하고 벌어서 쏙 빠져나가버리고,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성곽길 따라 북악스카이웨이, 김신조 루트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거든요. 주말에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지역 축제할 때, 옛날 다방을 재현한 적이 있어요. DJ실도 있었고 다방 마담이 한복을 입고 그랬어요. 그때 와 보신 분들이 여기 다방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것을 재연해보면 참 얼마나 좋을까 우리 동네 우리 주민이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 동네야말로 마을기업이 꼭 필요한 동네예요.

김정동: 저는 건축하고 관계된 일을 해요. 위원장님도 건축 쪽에 엔지니어예요. 집도 지어요. 외지 사람 하나도 안 데려오고 우리끼리 만해도 장수마을 마을목수 이상으로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동네야말로 마을기업이 꼭 필요한 동네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합심이 잘 되어 뭘 하자 하면 잘 돼요. 마음만 먹으면 못 할게 없어요.

동네가 낙후된 이유는 한 20년 전부터 재개발이니 뭐니 해서 집수리를 못해서야.

김현동: 지붕도 못 고치게 하고, 재개발한다고 집들이 전부 노후되었어. 재개발 때문에 집을 수리하지 못하게 하니까. 집도 고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집들이 이렇게 되고, 사람이 없어.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만 집들은 그렇지가 않아.

우리 주민이 원하는 건 그냥 깨끗하게 정비해서 사는 거야.

김정동: 서울시에서 한옥마을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거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서울에서 이런 달동네를 찾아볼 수가 없어. 우리 주민이 원하는 건 그냥 깨끗하게 정비해서 사는 거야. 서울시하고 구청하고는 여기에 한옥마을 만들기를 원하는 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되거든. 도로를 내달라고 주민이 요구했는데, 그것도 인제 한옥마을이 되면 자동적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걸 선호한다고 하더라고. 자꾸 외지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야. 전부 외지에서 들어 와서 투자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지. 성북동 원주민들은 전부 그 피해를 보는 거야. 골목을 개발시켜라. 우리는 그냥 없는 사람들이잖아. 원주민들은 애착심을 가지고 이곳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투기하는 돈 많은 사람들은 개발이 되면 한옥 하나 살려고 투기의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찬성, 여기 주민들은 반대해.

깨끗하게 동네를 정리하고 주민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김현동: 동네에 기술자가 수없이 있어. 목수 같이 그런 파트가 우리 지역에는 다 있어요. 설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냥 여기 분들이 거의 다 그렇다고 보면 돼.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를 한다고 하잖아. 재정만 지원받으면 인력은 여기 있으니 깨끗하게 동네를 정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주민이 전부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골목이 너무 구릉지라서 노인네들이 다니기가 불편해. 그런 것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

이 동네의 정서와 문화가 그대로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김정동: 이 동네의 정서와 문화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분위기라던가 현

재 상태 이대로 보존되었으면 좋겠어요. 주거 환경만 좀 정비가 되고, 한양도
성하고 잘 어울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급작스러운 변화 이런 것은 별로
원치 않아요.

마을의 역사와 함께 한 오래 된 가게 이야기

금녕약국과 새이용원



- 일시: 2013년 3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금녕약국 / 새이용원

지역 주민의 추천과 커뮤니티 매핑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오래된 자원'을 중심으로 한 주민 인터뷰를 진행했다. 성북동에 터를 잡은 지 50년 가까이 된 금녕약국의 김향규 약사와 새이용원 이덕훈 이발사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54년 변함없는 성북동 터줏대감

김향규 / 금녕약국

금녕약국은 성북 초교 삼거리에 있는 54년 전통의 약국이다. 성북동의 어제와 오늘을 함께하며 54년 성북동의 터줏대감으로 그 곳을 운영하고 있는 김향규 약사를 만났다. 1954년, 약대에 입학하게 되면서 성북동으로 이주하여 온 김향규 약사는 과거 성북동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며 당시의 추억을 함께 나누어주었다.

성북초교 삼거리 성곽 아래에는 울산 출신 학생들의 기숙사 ‘동천학사’가 있었다. 1955년 정해영 씨가 운영했던 동천학사는 지방 출신 학생들이 서울로 상경하여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정해영 씨가 건강상의 문제로 문을 닫기 전까지, 많은 학생들이 그 곳에서 고시공부를 하곤 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알았기에 학생에게 쌀값 정도의 소액만을 받으며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곳이다. 1980년 철거되기 전까지 약 25년 정도를 꾸준히 운영했었다. 또한 고시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삼청각 근처의 청룡암(현재는 주택단지로 개발되었음)에서 기숙을 하며 공부를 했다.

대학시절, 김향규 약사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동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기도 하며, 지역에서 다양한 교류를 시작했다고 한다.

김향규 약사는 1959년 학교를 졸업 후부터 금녕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성북초교 삼거리는 길이 워낙 좁아서 택시 한 대가 겨우 다닐 수 있었던 길이었다고 한다. 그 앞으로 개천이 흐르고 있어서 돌다리를 건너 다녔다.

개천에 사람이 빠져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개천의 폭이나 깊이도 상당했다.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1989년 금녕약국은 현재의 위치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김향규 약사는 다양한 지역 활동에 참여했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1984년 새마을운동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75년부터 10년 동안 새마을금고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매월 1,15일에는 지역 청소를 위해 필요한 봉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조기 축구회를 설립했다. 75년 설립된 조기축구회는 매년 5월 각 지역단체 팀을 모아 토너먼트 식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구 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한다. 72년도에 동네 화합을 위해 북악산악회를 설립하였으며,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현재는 성곽 밑 부대에서 에어로빅, 조기축구회, 산악회 활동, 성곽 지킴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며 성북동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김향규 약사는 예전에 길상사의 전신인 대원각은 일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급음식점이었으며, 대부분은 관광객을 주로 장사가 이루어졌었다고 기억한다. 지역행사를 하면 많은 지원을 해주는 곳이기도 했다.

성북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청룡암이라는 암자인데 현재는 전부 주택 단지로 재개발 되었다.

그는 성북동은 숙박시설과 같은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은 아니지만, 주택가로서는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예술가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곳이라고 얘기한다.

‘어떤 성북동의 모습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김향규 약사는 단순한 관광지로 개발이나 발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익숙한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또한 다른 지역의 사람이 유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곽길 밑에 쉼터를 지역주민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소통의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이발사 : 이덕훈 (새이용원 이발사)

1935년에 7남매의 장녀로 태어났다. 가업을 이어받아 1958년 정식 면허를 따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이발사가 되었다. 최초의 여자 이발사이자, 명랑 이발사로 불리는 이덕훈 할머니는 50여 년 가까이 성북동에서 생활하고 있다.

26세에 남편에게 첫 눈에 반해서 시집을 갔다는 이덕훈 할머니는 결혼 후에 고생길이 시작되었다며 웃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새이용원이 할머니의 25번째 직장이라고 한다. 4형제를 온 힘을 다해 키운 옛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지금까지 쓴 10권 가까이 되는 일기장의 내용들을 읽어주시기도 했다. “잘 생긴 남자가 이렇게 인물값을 해.” 하시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직장을 몇 번씩이나 옮기며 12번의 이사를 끝으로 성북동에 터를 잡았다고 한다.

할머니는 북정골 쓰레기장 주변, 동네사람들이 똥을 퍼다 버리는 똥구덩이 옆에 움막집을 짓고 살았다. 몇 해 전, 아들과 동사무소에 집수리를 요청하여 지금은 너무 행복한 곳에서 산다고 말씀하시며 할머니는 예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4형제를 키우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12시 5분 전에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을 맞는 일도 할머니의 삶을 지치게 하는 것 중 하나였다고 한

다.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떠난 남편이 그래도 고맙다며, 이렇게 일 할 수 있었던 것 모두가 남편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언덕길 홍익고 후문에서 명랑이발관을 운영하다가, 새이용원 위치로 옮겨와 10년째 운영 중이다. 요즘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출장 이발을 나가기도 하고, 휴일이면 노인정에 무료 이발 봉사도 다니며 삶이 주는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살고 있는 성북동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시나요?’ 라는 물음에 할머니는 오래된 집이나 수리가 필요한 집에 대한 개입, 즉, 단순한 집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할머니가 살아온 움막집 역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곳에서 살 수 있어요? 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장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성북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이셨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가진 성북동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성북동 문화예술인

열려있는 동네 갤러리를 운영하는 청년예술 이장

서준호 오뉴월 대표



스페이스 오뉴월 서준호 대표는 2009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예술전문사 과정을 수료하고, 2011년 6월 성북동에 스페이스 오뉴월을 설립하였다. 스페이스 오뉴월은 한여름의 뜨거운 열정으로 꾸며지는 새로운 전시공간(New Wall)으로서 '도시-이미지-문화'를 매개하는 에이전트(agent)가 되고자 하는 곳이다. 갤러리 오픈 후 매년 인간, 도시, 예술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전시를 해오고 있다.

2012년 9월 7일 오후 성북동에 있는 갤러리 오뉴월(O' Newall)에서 서준호 대표를 만났다. 이날 인터뷰에서 서준호 대표는 스페이스 오뉴월 설립배경과 주요 전시활동, 예술단체협의회 모임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성북동에 대해 문화가 녹아 있는 예술 마을로서 문화예술인 등 인적 인프라가 풍부하지만 네트워크가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성북동에 소규모 문화공간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고향은 부산이고, 정릉에서 3년간 살았습니다.

2012년 초까지 정릉 2동에 살았습니다. 고향은 부산 해운대입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원래 석관동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대학원 졸업과 함께 기숙사를 떠나면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정릉2동에서 3년간 거주했고, 지금은 마포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와서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 갤러리가 있는 이 지점이 마치 섬처럼 느껴졌어요. 조용하면서도 독특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 갤러리를 오픈할 때 이태원과 성북동 두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태원에 갤러리를 오픈하면 지나친 상업화에 휩쓸릴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편히 올 수 있는 동네 갤러리를 원했거든요.

이태원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계층이 다양한 사람들과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성북동의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열려있는 실험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와서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싶어요. 정부 이름하에 국민들 세금으로 많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 눈에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럴 예정입니다. 이곳이 재개발로 사라지지 않는다면요.

스페이스 오뉴월은 비영리 전시공간으로 자체 또는 민간의 협력을 통한 기획전만 하기 때문에 운영기금 마련을 위해 오뉴월의 이름으로 외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시기획이나 작품설치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유지·관리비 등 경제적인 이유가 큼니다.

성북동에서 갤러리를 하면서 추억과 사연이 많습니다.

우선 제가 이 갤러리를 하면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웃음). 그리고, 갤러리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갤러리에서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인들과 워크숍이라든지 공부 모임을 종종 갖는데, 끝나면 저희들끼리 소소하게 뒷풀이를 하거든요. 지나가시던 행인들도 즉흥적으로 참여하셔서 같이 어울리곤 합니다. 한 번은 고급승용차를 타고 지나가시던 사모님께서 ‘같이 어울려도 되냐?’며 들어오신 적도 있어요. 그 외에 신부님, 수녀님, 스님, 동네 초등학생들과도 같이 어울리곤 합니다. 또 한 번은 어느 날 낮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들어와서 작품들을 한 시간 넘게 감상하는 거예요. 작품에 대해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서 일을 보는데, 이 여학생이 벽에 뭔가를 적고 있는 겁니다. 작품에 낙서를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 나와 보니, 메모지에 작품의 새로운 타이틀을 짓고 있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창작 활동인 거죠.

성북동 예술단체협의회를 만들어 모임을 갖고,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북동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가들이나, 성북동에 연습실을 두고 활동하시는 분들과 같이 ‘성북예술단체협의회’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첫째 월요일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시낭송회 할 때 이 단체 회원들로부터 연극·퍼포먼스를 지원받았죠.

성북구에서 2012년 5월에 아리랑 축제를 개최했는데, 구청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작년 11월부터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초청했어요. 약 50명이 모였어요. 요즘도 가끔 만나는데 오뉴월에서 모이기도 하고, 극단 연습실에서 모이기도 하고, 여러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있어요. 오뉴월은 동네 이장과 같이 성북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장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역을 위해 예술단체들이 모여 주민을 위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

겠죠. 지역예술가들은 학원 가서 입시 위주의 강의를 하는 것보다 동네에서 꼬맹이들 가르칠 때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합니다. 돈 벌기 위해 예술을 선택한 것이 아니거든요.

무료 시 교실 '시. 꿈을 품다'와 같은 것도 그 예가 될 수 있지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주민 대상으로 로스팅, 홍차 교육 등을 담당할 수 있겠죠.

지역의 인적인프라는 풍부하지만 그 능력을 살릴 수 있는 '판'이 부족해요.

성북동은 한마디로 문화 자체가 녹아 있는 예술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북동의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들 중에 조지훈 시인, 만해 한용운 선생 등 예술가들이 살았던 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 집들을 그냥 지나쳐가요. 스토리텔링만 잘 되면, 사람들이 충분히 관심을 갖고 많이 찾을 거라 생각해요. 좋은 문화유산이잖아요.

성북동은 인적 인프라도 풍부한 것 같아요. 아마 서울 25개 구 중 예술가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을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소위 '판'이 부족해요. 콘텐츠는 많은데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토리텔링 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매우 안타깝죠. 오래되고 익숙한 풍경들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해결방안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주민이 원하는 만큼만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덧붙여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소와 기회가 많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년 후에 성북동에는 소규모 문화공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연극이나 공연을 위한 극장이 들어왔으면 하구요, 아기자기한
멋이 있는 가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공방이나 공간
들을 리노베이션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재개발이 이루어지
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3구역 좀 막아 줄 수 없나요?(웃음)

생명과 소통의 가치를 전파하는 마고할미

나선화 문화재청장



·나선화 (사)생명과평화의길 상임이사는 2012년 12월에 문화재청장으로 취임했다. 이 원고는 인터뷰 당시에 작성한 것이다.

‘생명과 평화의 길’ 나선화 상임이사는 이화여대 박물관 학예실장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종로구 원서동에 있는 문화사랑방 ‘싸롱마고’를 운영하며 대중 아카데미 등을 통해 생명과 소통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성북동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얼마 전 종로구로 거처를 옮겼다고 한다.

2012년 9월 18일 오후, 창덕궁 옆 원서동에 있는 카페 겸 문화 사랑방 ‘싸롱 마고’에서 사단법인 ‘생명과평화의길’ 나선화 상임이사를 만날 수 있었다. 이날 인터뷰에서 나 상임이사는 성북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설명하고, 역사문화재를 보존하되 보존의 현재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탐방코스과 오래된 가게, 축제 등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게 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성북동에는 조선시대 도성의 역사와 근현대 문화예술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어요.

서울은 산성 성곽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성곽 역사의 흔적들이 성북동에 있어요. 계곡이 깊고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피서지였습니다. 여름에 쉼터를 만들고 궁궐과 관련된 행사를 했다고 해요. 상궁들도 많이 살았죠.

근대 들어와서 도시가 확장되면서부터는 인구가 늘어나고 성 밖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데, 성 안에 거주지를 갖지 못한 돈 없는 사람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 중에 예술가, 조각가, 소설가 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이 보통 그 시대 사회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죠.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설립한 정동이나 서촌지역과는 달리 이쪽은 구국을 위한 민족의식이 있고, 애국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역사문화지구는 ‘미래문화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역사문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북동을 새로 계획한다면 ‘구질서를 개혁하고 바꾸기 위한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라는 역사 홍보와 동시에,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의미를 지닌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여기에는 외국대사관저가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게 지역민이랑 별개로 살아요. 한국 사람들이랑 섞이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실크 박물관 내려와서 본다 하더라도 그저 한두 번 와서 둘러보고 마는 건 발전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나 자주 이용하는 도로들이 한국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없는 걸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역사문화지구 에 활력을 불어넣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현대 가난한 예술가들이 살았던 집같이 기존 문화자원 보존을 잘해서 루트를 만들 수 있어요.

‘보존이 개발이다.’ 라고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성곽이 타 지역이나 여러 나라와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북구 성신여자대학 옆에 권진규라는 조각가 생가가 있어요.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보존을 한 것인데요. 당시 가난한 예술가들이 살 수 있던 곳이 이런 곳이었다는 이야기를 풀어 낼 수 있다는 사례예요. 이곳이 무허가 땅에 지어진 집인데, 이분이 ‘성북동 성곽을 보면서 작품을 만들지 않았을까?’ 좋은 작품도 만들었지만 ‘성곽과 산세를 보면서 허무에 빠지지 않았나?’ 그런 숨겨진 이야기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성벽이 주는 의미라는 것도 그냥 ‘조선시대 성벽이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 작가가 여기서 저 성벽을 보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데 저 성벽들이 그 사람한테 어떤 인상을 주었을까?’ 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벽은 장벽이잖아요. 장벽이라는 게 인간 사이의 마음이나 국가 사이를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기존의 영역 국가에서 네트워크 국가로 나아가야 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이 성벽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또는 ‘성벽을 가지고 타 지역이나 여러 나라랑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 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존에는 성벽이나 건물의 역사에 대해 단편적인 얘기만 했는데, 그것의 역사적 의미, 철학, 그리고 미래가치까지 뽑아 내주는 다각적인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때 역사문화지구가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성북천을 어떤 모습으로 복원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북천 살리는 계획이 있지요? 그 개천을 어떤 모습으로 복원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개천 뚫고 철제 난간 두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이미 길은 넓혀 두었거든요. 그런데 개천이 들어가면 길이 좁아지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해결을 해나갈지 과제가 있을 거예요.

‘옛날 같은 개천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설계로 갈 것인가?’ 정말 감각이 있고 철학이 있는 건축가에 의해 만들어져야 할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개천 주변을 보면 삼선교 인근에는 살림살이가 어려운 낡은 집들이 많아요. 그 위쪽으로 아파트가 생긴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재개발을 ‘아파트로 갈까냐?’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갈까냐?’ 이 문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은 북한산이 외성을 구성하고 있고 산 안에 내성을 구성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산세 스카이라인을 살리지 못하면 서울이라 할 수 없는데 무작위로 자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높은 아파트보다는 낮은 층수를 전제로 하는 주택들이 들어서는 할 것 같아요.

우리 삶의 흔적과 모습을 잘 가꾸는 것이 첫째 조건이에요.

최순우 옛집을 내셔널트러스트에서 산 것도 그런 이유예요. 좋은 집도 아니고 북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없어지면 그곳 주변에 있던 한옥들의 역사가 모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 보존을 한 것이예요. 지금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아! 이런 데가 있었네.’ 보고 느끼면서 다른 한옥보존지역과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보호하고 거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 거점을 통해 오가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쉼터를 만드는 거죠.

성북은 그렇게 쉼터의 역할을 해왔어요. 너무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개발보다는 우리 삶의 흔적과 모습을 잘 가꾸고 그것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개발이 첫째 조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옛집 같은 거점을 확실히 만들어 놓고, 그런 후에 현대적 미관을 살리면서 디자인 개념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걷고 싶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행로와 탐방코스를 잘 만드는 게 필요해요.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해서 계획하는 게 꼭 필요해요. 보도를 잘 만들어서 정릉 가는 길이나 궁궐문화 탐방길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한옥을 거쳐서 궁궐의 길을 걷고 성 밖으로 향하는 조선시대 길 등을 만들되 지역 주민이 생활에 이용하는 길은 차도로 만들어서 버스를 다니게 하면 좋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잘 세우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한옥이 있는 데를 쪽 표시를 해보고 연결을 해서 여기는 도보를 만들겠다거나 아니면 이곳에는 차도를 만들겠다하고 그렇게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과 협업을 해서 잘 만들어야죠.

오래된 가게들을 보전해서 근현대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동네가 되면 좋겠어요.

서민들이 애용하던 쌍다리 밑 보신탕집, 기사식당 같은 것들을 없애기 보다는 외형만 손질해서 옛날 분위기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1960년,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이렇게 시간층을 만들어서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북동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사식당 같은 곳은 추억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을 테니까요. 성북동 개발이라든가 버스가 들어오기 전까지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근현대의 이야깃거리들이 구석구석에 넘쳐나는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이 지역 상권들을 이용해서 조선시대 분위기를 지닌 쌀집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역주민도 쌀을 살 때 그런 곳에서 사지 않겠어요? 여기 세탁소도 많은데요, 근현대길 세탁소, 옛날 세탁소 같은 걸 되살려서 간판을 걸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시설은 현대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제 말의 요지는 이 사업을 통해 이런 분들도 수익이 늘어서 자부심도 생기고 여기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동네 사람이야’라는 것을 축제를 통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북동에도 빈부격차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 한동네 사람이야’라는 걸 축제를 통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외국인과 내국인, 학생과 노인 등 나이와 계층이 다른 사람들이 소통하는 그런 축제가 되면 아주 좋겠죠. 모두가 같이 섞여야 되요. ‘저건 내 것이 아니야’가 아니라 같이 참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매년 두 번 정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서 다양한 계층이 서로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바자회 같은 걸 한다고 해도 대사관에서 자기네끼리 하는 건 소용이 없고 주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바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하는 게 축제인 것 같아요.

대사관 얘기를 해보자면, 대사관 중에 특히 남미 지역 외교관들이 남미노래를 틀고 같이 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모두 같이 하자’ ‘남미음악을 축제 때 우리도 배우고 같이 놀자’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동네 축제에서 이번에는 오스트리아의 달, 터키의 달, 콜롬비아의 달 정해 주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성북구는 대사관이 많다는 게 좋은 자원이니까 그런 특성을 살리는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참여하게 하고, ‘지역민과 당신의 나라가 소통하자’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그걸 안하겠어요? 정말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지요. 음악회를 할 수도 있고 바자회도 할 수 있고, 음식도 있

고, 패션쇼도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종류는 많아요. 정말 서너 가지만 알토란 같이 한다면 좋다는 거죠. 이런 걸 어디서 보겠어요.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를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성북동의 특징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성북동은 고대의 미술과 근대의 스타일, 그리고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를 담는 지역입니다.

성북구나 문화원 주최로 길상사라든지 지역에 있는 각 단체에서 축제 프로그램을 맞춰서 하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은 소통이죠. 현재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게 좀 잘 되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축제를 봄가을에 하면 되지 않겠어요?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한테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지역의 미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성북동이 다른 역사성 있는 동네들의 모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된다면 성북동은 ‘근대의 축소판’ 이자, ‘고대의 미술과 근대의 스타일’, 그리고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를 담는 지역’ 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조건에 대한 얘기를 더 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건 지역주민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심도 높은 고민입니다. 내가 역사마을에 산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줘야 역사마을에 생명력이 생기는 거죠. 그걸 위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물길 등이 잘 되어 있는지를 근거로 해서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한다든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할 곳은 개선해서 만들자는 거죠. 개선 방향의 첫째 조건은 이태준이 살던 집이건 누가 살던 집이건 옛날의 분위기를 그대로 만드는 것이기는 하지요. 다만 간판은 아주 모던하면서도 옛 분위기가 나는 걸로 통일해서 가야 할 것 같아요.

역사지구라고 모든 거리를 똑같이 하지 말고, 이 거리는 조선시대 18세기 느낌도 나게 해보고, 이 거리는 근현대 작가들 거리로 타임머신 타고 들어간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거죠. 다양하고 다른 시간의 층을 느끼게 함으로써 다른 역사성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런 세밀한 게 필요해요.

문화유산의 보고, 성북동의 문화유산 지킴이

강성봉 성북문화원 사무국장



- 일시: 2012년 9월 18일 오후2시
- 장소: 성북문화원

강성봉 사무국장은 2012년 9월부터 성북문화원에서 일하고 있다. 성북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생각보다 다양했다. 강성봉 사무국장은 특히 주민이나 지역의 학교 등 다른 기관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해 많은 고민과 계획을 하고 있다.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존 전승에서부터 국제 교류까지

성북문화원에서는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료 조사·연구, 수집·보존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문화원들은 대부분 90년대 이후에 생겨 역사가 짧고 사료의 양도 빈약한 어려움이 있지만, 가상박물관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 계획하고 있는 일은 많습니다. 특히 선잠제라는 훌륭한 무형문화유산이 있는데, 보존회를 통한 꾸준한 유지와 관리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거든요. 이를 위해 문화원에서 원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재단이나 구청에서는 행사 지원과 홍보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관 기관이나 지자체와 공동으로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의 하얼빈이나, 홍콩강성과 같은 우리 민족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곳의 문화·예술 단체와 협력체제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등 국내외 교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로는 2009년에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우리 동네 문화 찾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문화 코스를 탐방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꾸준히 지속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단절된 감이 있어요.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할 때 거시적인 안목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도 2009년에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문화원까지 올라오는 길에 있는 벽화가 그때 완성된 작품입니다. 성북구 관내 대학들의 예술학부 학생들을 모집하여 진행했습니다. 국민대, 성신여대, 한성대 등에서 15명이 참가했죠.

‘성북천 깃발전’은 2010년부터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성대입구역부터 성북구청까지 이어지는 성북천에서 진행됩니다. 성북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모집하고 문화원측에서 선별한 작품을 깃발로 만

들어서 약 한 달간 전시했죠. 테마는 문화원에서 제공하는데, 2011년에는 어린이날과 맞물려 가족들과 추억이란 테마로, 2012년에는 성북구의 주요 인물이나 주요 문화재를 테마로 작품을 모집했습니다.

‘성북의 여성문화재, 선잠단과 길쌈이야기’는 2010년 지역여성문화콘텐츠발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잠사민속박물관과 연계하여 전시회도 개최하고, 전국에 있는 누에농장들이 모여서 워크숍도 했죠. 앞으로는 문화산업이 더 크게 확장될 것이고, 어떻게 콘텐츠화를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선잠단과 길쌈이야기 같은 경우도 드라마나 영화, 연극, 공연 등의 시나리오로 충분히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스토리텔러 양성이 시급하죠.

가장 최근에 했던 행사로는 ‘Fun & Love 함께하는 나눔장터’가 있습니다. 2012년 봄(5월)에는 나눔장터를, 가을(9월)에는 복지한마당이라는 행사를 개최했어요. 성북구청 복지정책과가 주관하고, 성북구 지역복지협의체라는 단체의 주최로 성북구 관내의 복지관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2년째 아트마켓을 운영 중인데, 아트마켓의 작가님들이 물품을 기증해 주셨고, 저희 문화원 수강생들의 작품, 그리고 폐현수막을 기증받아서 가방이나 모자를 만들어서 나눔장터에 출품했습니다. 성북구 관내에 있는 모 중소기업에서도 선물세트를 기증해 주었고, 2012년에는 수익을 문화강좌에 사용했어요. 복지한마당에서는 전통공예품 만들기 행사, 2011년에는 탈 만들기를, 2012년에는 연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성북동의 자원, 어떻게 콘텐츠화할까?

성북동에는 모든 자원이 집적되어 있어요. 역사·문화·자연·사람 자원이 다 있죠. 특히 의식주 문화와 관련된 역사적 소스를 다 볼 수 있는 곳이 성북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길상사와 성락원 등 고택들도 많이 남아있고, 각국

대사관도 성북구에 몰려있죠. 또 선잠단에서는 서릉씨(西陵氏)에게 양잠의 풍요를 기원하며 지내던 전통 제례의식을 재현한 선잠제가 매년 거행되고 있어요. 전통음식 전문점들도 준비합니다. 의식주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모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이 성북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자원이 성북동을 다른 곳과 차별화하는 정체성이죠.

성북동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문화유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선잠단지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선잠제도 체계적으로 복원·관리 운영해서 중요무형문화재로 등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 관리가 유형문화유산 위주로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유관기관과 지자체가 얼마나 열성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법성포 단오제 같은 경우도 영광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간송미술관이나 성락원처럼 일반에 개방되지 않는 역사문화자원도 많이 있습니다.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의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홍보·마케팅 전략 차원에서도 지금과 같이 간혹 개방하는 것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 데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현대 문인과 예술가들의 집터는 보존과 유지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표지판을 보기 좋게 디자인해서 만들고 이들을 연결하는 탐방을 진행하는 것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북문화원이든 주민이든, 또 지역전문가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학계, 지자체, 유관기관, 주민이 모두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주체는 주민입니다. 성북구가 워낙 자원이 풍부하니, 이를 이용한 행사를 하나 계획하면 성북구만의 행사가 아니라 서울시, 더 나아가 전국 규모의 행사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주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문화·관광의 측면에서도 여러 기관과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원은 많은데

이를 어떻게 콘텐츠화 하느냐가 관건이죠. 예를 들면 성북구에 대학교가 많으니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근방에 각국 대사관이 많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을 대사관 탐방 안내 도우미로 양성하면 어떨까요? 일종의 영어 캠프와 같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설명을 하면서 대사관 탐방을 할 수 있습니다. 도우미로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관광 활성화의 효과도 있고, 관내 대학생들에게는 일자리와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이 사업과 연관된 사회적 기업을 양성할 수도 있겠네요. 이 지역에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급적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떡이나 나물밥 같은 전통 음식점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 역시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면 더욱 좋겠지요.

경계를 넘는 달빛 마을 축제 越-Wall 이야기

이혜경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교수



- 일시: 2012년 9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국민대학교 예술학부 2층 교수연구실

1998년부터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에 재직 중인 이혜경 교수는 연극학 박사(미국 Univ. of Michigan)이자 평론가, 극예술교육가로,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뮤지컬씨어터 전공 주임 교수이기도 하다. 성북동에서 越-Wall 축제를 세 차례 여는 등 '창의적 문화공동체'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기고 있으며, 대학과 지역을 네트워크하는 데 관심이 많다.

대학은 **지역사회의 문화를 입체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대학교에 온 후 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둘러보니, 성북동이나 인근의 평창동에 걸쳐 대한민국에서 제일 혜택받은 계층이 사는 주거지가 있는데 반해, 낙후되고 소외된 동네도 함께 있더군요. 학교 같은 공적 기관에서 그들이 공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유 있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2000년에 ‘국민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창의적 문화공동체’라는 연구논문을 썼던 게 그런 맥락이었어요. 대학은 **지역사회의 문화를 입체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영국, 미국 등지에서 찾아 참고했고, 영국의 ‘창의공동체센터’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성북구청에서 ‘지역사회 분과’ 자문위원을 맡게 되었고, 한번은 성북구를 중심으로 한 창의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즉 문화유적이나 지리적 조건 그리고 학교와 연계하여 뭘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특강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나중에 새로 오신 한 공무원이 제 강의 내용에 대해 듣고 연락을 해 왔어요. 그 때 성북동에 사는 지인(미술가) 덕에 자주 놀러갔어요. 마을 산책을 하면서 동네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 과도 인사 나누고 하던 참이어서 그 공무원을 모시고 가서 마을 축제를 제안했죠. 그게 성북동 ‘월월축제’입니다.

공간으로 들어가면 그 공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월월축제는 북정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잔치예요. 다들 좋아하셨죠. 하지만 처음에는 한 번 하고 말 줄 알았습니다. 더구나 구청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새로 온 구청장도 이 축제를 무척 좋아해서 없던 예산까지 끌어내 2회, 3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첫해와 이듬해에는 6천만 원, 3회 때는 3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세 차

레 행사를 치렀습니다. 지역 기반의 사업이고 지역주민을 행복하게 해 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일입니다. 어떤 행사든 의미화가 중요한데, 논문을 쓰면서 해외 사례도 많이 찾아본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첫해 월월축제는 그야말로 마을 잔치였어요. 이 마을 공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즉, ‘공간과 사람’이 주제였어요. 두 번째 개최할 때는 이 마을에 아침부터 술로 소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났고, ‘이 분들께 뭔가 해 드릴게 없을까’ 하다가 공연팀과 자원봉사자를 모아서 문화 사업을 했습니다. 세 번째 행사 때는 예산이 부족했어요. ‘돈 없는 티 안 내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 무대를 안 만들면 되겠더라고요. 결국 ‘수연산방과 이종석 옛집을 잇는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공간과 이야기’를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사회 연극하는 친구들은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연극제를 열었어요. 마을을 무대로 하는 연극이었죠. 축제에 무대를 세우게 되면 자꾸 엔터테인먼트가 됩니다. 무대를 세우면 하는 사람과 구경꾼이 분리되고 그냥 행사가 되는 것이죠.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그 공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연산방 앞에서 이태준 선생의 ‘달밤’을 낭독하는 겁니다.

‘달밤’은 이태준 선생이 마을 주민을 만나서 사는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달이 뜬 밤에 낭송했죠. 소설에서 이태준 선생이 이 동네에 들어와서 신문배달 하는 약간 모자란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수연산방에서 그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간적으로 말하자면 해마다 조금씩 내려왔다고 할 수 있어요. 수연산방, 심우장, 글로벌 빌리지로요. 글로벌 빌리지에서는 세계 어린이 동화책 전시회를 했는데,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말로 읽어줌으로써 다른 나라 말이라곤 영어밖에 모르던 아이들에게 색다른 언어를 경험할 기회를 줄 수 있었죠.

공공미술은 그 마을에 어울려야

이렇게 기존 공간에서, 있던 이야기를 잘 활용하면 축제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성북구의 문화예술, 역사, 주민들의 이주사, 이런 것들이 다 이야깃거리가 되는 거죠. 달력도 만들었습니다. 공공미술이라면서 그 마을에 어울리지 않게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공해라고 생각해요. 이 작업에 참가한 예술가들은 예쁘고 작게 잘 만들었습니다.

첫해에는 각자가 사는 집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 두 번째 해에는 사진교실을 열어서 주민 분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달력에 넣었죠. (달력 한 페이지를 보여주며) 광장시장에서 트럼펫을 부는 83세 된 할아버지가 있는데 동네 명물이에요. 국민대학교 학생들도 참여했구요. 반응이요? 좋아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어요. 재개발 대상인 동네이다 보니 집 가진 분들은 싫어했죠. 저는 ‘이 지역이 재개발되어야 한다’, 아니면 ‘유지해야 한다’ 이런 판단 없이 그냥 ‘사는 동안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왔다갔다하는 걸 보며 재개발이 안 될까봐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재개발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한계를 느끼게 해 준 부분이기도 하죠.

동네 분들과 하나가 되어서 마을에서 살면서 하면 모를까, 일 년에 한 번씩 손님처럼 가서 뭔가를 한다는 걸 주민은 어떻게 느낄까 하는 거죠. 저는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마을 지킴이도 아닙니다. 문화예술을 사회적인 개혁이나 계몽을 위해서 응용하려는 의도로 접근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본업도 따로 있고 내 방향도 따로 있으니, 한 번 하고 말 일이 아니고 행사로만 접근하는 건 주민에게도 제게도 한계가 있어서 작년(2011년)에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었다 싶어 일단락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같이 일했던 분들을 다 기록해 두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다른 예술가들도 마을이 좋아서 사심 없이 봉사했습니다.

성북동에는 창의적 문화공동체를 만들 자원이 있습니다.

창의적 문화공동체가 가능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관은 행정과 예산지원을 해야 하고, 예술가 중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지역 주민이 있어야 하며, 학문이 있어야 하죠. 성북동은 그런 점에서 자원이 있었던 편입니다. 국민대학교 학생들, 다른 학과 교수님들도 도와주셨고요. 학교 입장에서든 예술대학 학생들에게는 사회미술, 커뮤니티아트 등이 앞으로 중요한 진로이자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소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교육적으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학과 교수님과 학생들도 스토리텔링 워크숍에 참여했는데, 이 학생들에게는 한 사람의 일생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인터뷰 내용도 영상으로 담았죠. 관은 주민들과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고, 예술가들은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네트워킹하는 역할을 제가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설득력이 있었다기 보다는 그분들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엮을 것인가가 중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주민이 기획에서부터 함께 참여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평가하고 기억해 주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한 번도 제가 여기에 예술 감독으로 이름 내 본 적 없고, 축제 위원회는 주민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주민이 그렇지 않은 분들로부터 오해를 산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좋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은 사람들은 말이 별로 없으니까 낙담하지 말라’며 서로 위로하기도 했죠.

토문과 월월, 쌍둥이 축제에서 모판을 만들었죠.

한 번은 두만강에 있는 투먼 시²에서 월월축제를 보러 왔어요. 투먼은 인구 15만의 작은 도시인데 이런 축제라면 자기네도 용기를 내서 할 수 있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투먼 시에서 축제 세 번을 열게 되었고, 첫 회엔 제가 예술감독을 맡았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데리고 가서 연변대학교와 교류해 작품을 올렸죠. 제가 맡은 ‘예술아 놀자’에는 여러 한국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월월과 두만강은 쌍둥이 같은 존재입니다. 양쪽 모두 핵심 단어는 ‘경계를 넘어서’예요.

월월이란 넘을 월(越)과 담을 뜻하는 wall입니다. 성별, 나이, 사회적 계층과 세대를 넘자는 것이고, 게다가 두만강은 실제로 강 뛰어넘기죠. 강변에서 축제를 하면 북한에 다 들리니까 일부러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토문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오지 말라고 하네요. 앞으로는 더 발전할 것 같고, 중국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그만 모판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심는 사람, 추수하는 사람은 따로 있을 것이고요.

교육과 어린이, 예술의 콤비네이션은 지역의 학교가 만들어야

최근 성북동에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대학로 연극인들이 임대료가 비싸서 인근 한성대 쪽으로 온 것이죠. 이들의 연습실을 오픈스튜디오로 만들어 지역과 긴밀하게 엮고, 네트워킹을 하고, 예술제를 할 것을 구에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서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요. 그런 취지에서 아리랑축제 때 이들이 참여하게 되었죠. 아직은 공연장이 부족하지만, 성북아트센터가 지어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성북구에서 소유하고 있으나 활용하기가 애매한 부지를 활용해 공연장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겁

2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위치한 두만강 종류의 국경 도시

니다. 대학로는 포화 상태인 데다가 임대료가 비싸고 극장 규모가 너무 큼니다. 전시성 공간이 아니라 편안한 스케일의 예술가 친화적인 공연장이 필요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미국의 ‘아트빌리지’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성북구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성북구 소재 대학의 예술전공 학생들이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죠. 학교 시설을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방학이 길고 기숙사도 있으니 여기서 저소득층 아이들 아트캠프를 할 수 있어요. 학교엔 전시실, 공연장도 있죠. 지역에서 대학은 굉장히 좋은 자원이에요. 공간도 있고 사람도 있죠. 학생들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가르치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을 뮤지컬로 만들어 보여줄 수도 있겠죠. 교육과 어린이, 예술, 이 콤비네이션은 학교가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진행형의 활동이 보존보다 중요합니다.

성북동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 중 하나가 근대문화입니다. 근대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사회의 직접적인 기반이기 때문이죠. 지금 시스템이 그때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간송미술관이죠. 우리 문화재를 그렇게 극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곳이니깐요.

가구박물관이나 성락원의 경우에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공간인데 접근성이 낮거나 개방이 되어 있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수연산방과 그 앞길, 덕수교회, 김환기 미술관도 소중한 공간입니다. 성북동은 성 밖이라는 점에서 특별해요. 정신병원이 있었고, 예술가들이 모여 살았고, 기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 흔적은 남지 않았지만, 삼청각이나 지금은 길상사가 된 요정도 있었죠.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서 말하는 ‘광인과 연인과 시인’의 장소입니다. 그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어요. 문화나 역사는 공간이라기 보다는 그 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과 작품입니다. 성북동에 사는 사람들도 지역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 보존보다 중요한 게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간보다 중요한 게 현재진행형인 활동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후세대로서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는가가 중요하고, 따라서 그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 우리는 어떻게 공유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합니다. 지역 상인들이 지금 일구고 있는 경제, 수십 년 지켜온 사람들의 경제를 손 털고 나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건물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예술을 통해 지역과 젊은 작가에게 희망을 주는 멋진 문화예술인

김성희 캠퍼운데이션 이사



캠퍼운데이션 김성희 이사는 커머셜갤러리에서 일하다가, 뉴욕의 대안공간을 보고 우리 젊은 작가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대안공간이자 젊은 작가 지원재단인 캠퍼운데이션을 만들었다. 척박한 우리의 기부문화 속에서 캠퍼운데이션을 운영하면서도, 어려운 젊은 작가들에게 의미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지금이 더 기쁘다고 말하는 그녀는 열정으로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2012년 9월 21일 오후, 성북동에 있는 캠퍼운데이션에서 김성희 이사를 만났다. 캠퍼운데이션은 젊은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 베이징 프로젝트와 아트버스, 캔캠퍼프로젝트와 성북동 레지던시 사업을 하고 있는 캠퍼운데이션. 이 대안 공간을 만들고 젊은 작가들을 돕고 있는 김성희 이사는 성북동이 인위적이거나 상업적인 공간이 아닌 자생적으로 변화하기를 희망하며, 문화예술을 통해 예술과 지역재생을 함께 묶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이야기했다.

인사동 대안공간 창립멤버로 참여하면서 예술의 대안적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사동에 대안공간이 오픈하면서 화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전까지는 작가들이 돈을 내고 대관해서 전시했는데, 서구 시스템인 대안공간이 들어오면서 정부에서 후원을 받고 기업에서도 후원을 받아서 실험성 있는 작가들, 좋은 작가들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사동 대안공간 창립멤버로 활동했습니다.

컨파운데이션은 예술가와 지역사회를 돕는 대안적 문화예술재단입니다.

컨파운데이션은 아트와 아티스트를 통한 소통을 꿈꿉니다.

처음에는 작가 지원, 한국미술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작가들과 지역주민(특히 소외계층)이 소통하는 부분을 중요시합니다. CAN은 ‘할 수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contemporary art network’의 의미입니다. 현대미술을 통해 네트워킹하자는 것이며, 아트와 아티스트를 통해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프로젝트’는 처음에는 단순히 시작했습니다. 작가들이 시장이 크기 때문에 베이징으로 진출하고 싶어 하고, 국제적으로 노출시키고 싶어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파잔스라는 중국의 인사동 같은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예술계의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고 서구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스튜디오를 얻어서 개인후원자 3명의 힘을 모아 8명의 작가를 후원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규모가 커져 전시까지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아트버스’는 베이징프로젝트를 하던 중에 만난 어떤 작가가 버스 타고 다니면서 자기 작업도 하고 시골 어린이들과 교류하는 게 꿈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시작했습니다. 작가를 지역에 끌어들어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트버스 10주차에는 버스를 전시장으로 꾸며서 아이들 작품을 버스에 전시도 해줍니다. 이 때 아이들이 자기 작품에 대해 소개하고 작가들은 평을 해줍니다. 이렇게 개인펀드로 시작해서 중고버스를 후원받게 되었고,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후에 네이버에서 버스를 후원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사업을 하다 보니 사회적기업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비영리단체로 시작해서 이제는 사회적기업이 되었습니다.

‘아트캠프’는 일 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4-50명씩 뽑아서 캠프를 합니다. 난지스튜디오에서 하는데, 아이들에겐 한 번에 여러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이들은 캠프를 통해 자극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일 년에 한 번씩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캔캔프로젝트’는 2012년에는 문학과 예술가의 만남이라는 부제로 진행했습니다. 매년 부제를 달리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있는 5월에 성북동 행사가 있는데, 아트버스를 지원해 달라고 하여 행사장에 버스가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판화로 찍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사람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성북동은 흔적과 자취가 있는 곳, 보존되어있다는 느낌이 있는 곳입니다. 자연, 역사, 문화, 사람이 많고, 사람 중에서도 작가들이 많이 삽니다. 문학작가, 아티스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캔파운데이션은 성북동에서 오래된 집 프로젝트, 한옥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성북동 레지던시 프로젝트’입니다. 작가 3명(안도진, 이완, 이정래)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이 체류하면서 버스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버스 프로젝트도 하고, 작가 후원도 하고, 전시도 하고 서로 네트워킹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 모여 캠퍼운데이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캠퍼운데이션 건물은 빈 집이었는데 후원을 받은 것입니다. 캠퍼운데이션은 창립멤버 3명 이외에 8분의 후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펀드레이징 파티, 작가 파티를 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문화재단으로부터 후원이 있었고, 서울문화재단은 전시후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국제전시, 아트버스에서 책자 만드는 것 등에 대한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대한 후원은 없어서 아쉽습니다.

성북동은 매력 있는 동네입니다.

성북동에는 재미있는 골목이 있습니다. 큰 길을 내려가다가 선잠단지 있는 골목, 방앗간, 떡집, 옛날 미용실 있는 골목들이 재미 있습니다.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폴레옹 제과점 가기 전 뒷골목도 재미있는 곳이 많습니다.

성북동이 주는 느낌은 한옥이 많고 자연환경이 좋고, 특히 옛날에는 개천이 흘러 더욱더 경치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북동을 좋아하고 살기에는 이만한 환경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운 여름에는 서울 도심과 2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성북동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쉼터는 성곽인 것 같습니다. 성곽원도 좋은 쉼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숲이 많아 더욱 좋으며 골목이 살아있습니다.

앞으로 성북동의 변화가 급격하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인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변화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변화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관심과 관여를 하는 것이 지자체 입장에서 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너무 극단으로 가지 않고 선을 넘지 않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로 생기를 갖던 지역에 상업시설이 모이면 결국 예술가들을 쫓아냅니다.

중국의 파잔스 지역의 경우 공장지대와 폐허지역에 작가들이 모여들고 주변에 음식점과 술집이 생기면서, 작가들의 손길이 묻어있는 카페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패션숍, 고급레스토랑이 들어오고 임대료가 비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가 때문에 사람이 모이게 된 지역에서 정작 작가들은 임대료가 비싸서 못살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패턴이 인사동과 삼청동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인사동은 처음에는 목향이 짙었던 곳입니다. 한옥도 많고 한국 화가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니다. 그러나 이제 작가들이 떠나고 전시공간이 떠나고 있습니다. 삼청동도 같은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지역이 유명해지고 난 후 모여든 사람들은 전시공간을 절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모인 사람들과 달리, 소비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가 삼청동을 넘어서 이제 성북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성북동이 삼청동처럼 될까봐 겁이 납니다. 다르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상업시설을 막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곳보다는 문화적 공간이 많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상업화를 막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성북구 자체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작가 레지던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작가들이 성북동에 살면 이곳의 문화적 역사적 여건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 사람들이 와서 작품을 접하게 하고, 이런 활동은 작가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성북초등학교 앞에 쓰레기를 치우고, 이곳에 노천극장을 만들어서 작가들

에게 맡겨 시설을 만들도록 하면(시설이면서 동시에 조형물인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를 통해 조형물인 동시에 노천극장인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지역주민이 찾아올 것이며, 성곽과도 잘 어우러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돈을 들여 설치를 해야겠지만 그 이후의 콘텐츠는 돈 안들이고도 무궁무진하게 쏟아질 것입니다. 성북동에 작가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하면 삼청동과 같은 패턴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래된 집과 한옥을 레지던시로 이용하면 규제보다 더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지역주민과 교류가 중요한 가치이자 동력입니다. 그런데 큰 건물을 통째로 빌려 레지던시 사업을 할 경우 주민과 교류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주택을 이용해 오픈스튜디오 형식으로 몇 군데 레지던시 사업을 하면 지역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옥 레지던시도 매우 히트였습니다. 캔캠프로젝트를 할 때 성북동과 연계해서 한옥 한 곳을 코스 중에 두었는데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옥에 작품을 걸고 사람들은 작가에게 직접 작업 설명을 듣고 작품을 보고 하니까 흥미 있어 했습니다. 이런 축제를 하면 지역주민 문화 수준도 높이고 지역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젊은이들 노인들 모두 다 모이게 됩니다. 성북동에서 이런 식으로 아트베이스 환경을 만들어주면 규제보다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이 함께 하는 예술품 기증 프로젝트도 가능합니다.

성북구청에서 작가를 유치하기 위해 작가들에게 장소를 지원할 테니 대신에 작품 중에 기증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한옥을 내주신 분들에게 월세를 줄 수는 없고, 작품을 작가가 몇 개 기증하고 소유주는 그 중에 골라서 가져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대신

에 작품으로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북구청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대신 지불하고 작품 기증을 구청에서 받는 것인데, 이것이 구청 입장에서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이 작품을 기증 받는다면, 성북구청에서 운영하는 미술관 컬렉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좋은 작가를 섭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목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된 좋은 작가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증을 받는 것이 10년 이상 지속된다면 거기에서 엄청난 작가들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성북구립 미술관 자체 컬렉션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립미술관은 성북동지역 레지던스 작가들의 작품을 받아서 전시기획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윈도우 갤러리는 좋은 대안입니다.

성북파출소 옆에 긴 집이 있습니다. 이곳도 좋습니다. 길이 일단 넓기 때문에 윈도우갤러리를 하게 되면 좋을 것입니다. 스튜디오인데 밖에서 작품을 볼 수도 있도록 유리로 만들어 줍니다. 스튜디오 작가들이 작품을 윈도우에 걸어 놓고, 안에서는 작업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작가들이 바뀌면 벽면의 작품도 계속 바뀌게 되는 방식입니다. 작가들이 작품이 거리에 걸리는 것을 싫어한다고도 하는데, 이것은 거리에 걸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거리에 걸리면 보안이 안 되서 작가들이 싫어합니다.

갤러리현대를 보면, 큰 갤러리 앞에 윈도우 갤러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가들도 좋아합니다. 윈도우가 갖고 있는 파워가 굉장히 큼니다. 창문을 넓게 해주고 벽면을 하나 설치해주면 앞쪽에만 작품을 걸고 뒤에서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거리 전시가 아니라 거리에서 보이는 전시관이자 스튜디오인 것입니다. 작가들이 페인팅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체험이 될 것입니다.

컨파운테이션을 만들고 비영리 활동을 하는 지금이 더 재미있습니다.

과거 영리 파트에서 일을 했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그 일을 계속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낀 것이 많습니다. 갤러리에 있다 보면 젊은 작가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곳은 돈 되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젊은 작가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MOMA(뉴욕현대미술관)에 인턴십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본 것이 대안공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선했습니다. 여기에 착안하여 그때부터 커머셜 갤러리에서 일하면서 기금을 모아 비영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지금이 갤러리에서 일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들도 좋아합니다.

뉴욕에는 굉장히 오래된 대안공간이 많습니다. 조이센터, 아티스트스페이스, 모마가 산 피에스원, 스킵쳐스페이스, 화이트컬럼, 엑사이트 등 헤아릴 수 없습니다.

희망이 되는 성북동을 꿈꿉니다.

성북동이 재개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성북동의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공모전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땅을 활용해서 재미있고 편한 공간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시공간에서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고 다양성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젊은 작가들의 판로가 없습니다. 젊은 작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술과 지역재생을 함께 묶어 좋은 지역을 만드는 도시재생프로그램이 성북동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성북동의 고즈넉한 성곽길을 좋아하는 긍정적인 동네건축가

박준호 EAST4 대표



- 일시: 2012년 10월 24일
- 장소: 성북동 EAST4 사무실 (성북동 302-4번지)

EAST4는 건축을 중심으로 인테리어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가구코디네이터,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집단이다. EAST4 박준호 대표는 건축가로 공동대표인 이승연 대표와 함께 EAST4를 이끌고 있다. 그는 뉴욕에서 건축학을 공부하였으며, Perkins Eastman Architects, 정림건축, 공간건축에서 실무를 쌓았다. 건축설계 외에도 강연, 기고 활동을 하고 있다. 박준호 대표는 성북동을 한 마디로 줄이면 ‘유럽의 마을’ ‘비현실적인 마을’ 이라고 한다. 가장 성북동다운 길로 ‘대화로에서 성벽을 따라가는 길’ 을 꼽았다. 그는 ‘성북동은 개선도 되어야 하고 고쳐야할 부분도 있겠지만 급격한 변화가 아닌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변화가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EAST4는 건축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하여 작업하는 곳이에요.

EAST4는 건축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죠. 조정하는 분들과도 긴밀하게 교류하며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작한 새로운 프로젝트 중 하나는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Take Urban in 72 Hour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는 72시간 동안 서울시 내 자투리 공간에 스트리트퍼니처를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예요. 과거에 EAST4가 밀라노 공공페스티벌에서 참가팀으로 선정되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Take Urban’이라는 제목도 내가 지었어요. 총 10개 팀을 모집하여 서울 10곳에서 동시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설치장소는 서울시청 광장, 광화문광장, 명동한복판, 대학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굉장히 큰 이슈를 만들 것으로 기대돼요.

이 프로젝트는 밀라노에서 한 것과 상당히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밀라노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진행하고 있어요. 어쩌면 스트리트퍼니처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이지만, 우리는 시작부터 ‘건축과 문화’를 모토로 하고자 EAST4라는 이름 뒤에 ‘아키텍처 앤 컬처그라운드(컬처+플레이그라운드의 합성어)’라는 말을 붙여왔고 관심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본업인 건축과 그 외에 문화적인 부분들, 이 두 가지를 함께하고 있어요. 문화적인 부분들 때문에 밀라노 페스티벌에도 참가하게 된 것이고요. 밀라노 공공페스티벌은 전 세계에서 10개 팀 중에 뽑혀 가게 되었는데 행사도 참여하고 전시도 하게 되어 굉장히 큰 경험이었어요. 그 곳에 가는 과정에서 서울문화재단 등 다른 단체와 네트워크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EAST4는 오픈 프로젝트를 하는 Co-working 스튜디오예요.

원서동에 있을 때, 동네사람들을 위해 놀이터 리모델링을 해준 경험도 있어

요. 얼마 전에 종로구청에서 의뢰받은 행촌동 공영주차장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2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는 부족한 일이었지만, 오픈 프로젝트 형식으로 시민의 힘을 빌려서 진행했어요. 참여한 사람들도 좋아했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 2012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 동안 이러한 일들은 여러 번 했지만 이제까지는 우리들끼리의 즐거움이었는데 이렇게 인정도 받게 되어 힘이 되는 좋은 계기였어요.

EAST4는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EAST4는 올해 11월 9일을 계기로 재정비해서 현재 함께 운영되고 있는 아키텍처와 켈치그라운드를 분리해보려고 해요. EAST4라는 브랜드 안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아티스트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에요. 더욱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를 다루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될 수 있어요.

EAST4는 하나의 브랜드라고 보면 되고, 브랜드를 필요로 하고 안에서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체계라고 할 수 있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EAST4 자체가 오픈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조직의 형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코워킹을 하려고 오더라도 건축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다 버리고 조직을 수평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명령체계가 없고 모든 것을 공유하도록 조직 체계 자체를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2010년에 사무실을 원서동에서 성북동으로 옮겨왔어요.

우리(EAST4)가 처음 원서동으로 들어갔을 때는 문화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 중 하나로 동네 카페도 만들었어요. 거리가 활성화되니까 점차 상점들이 생

기고 발전이 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분위기가 너무 펜시해졌어요. 원서동은 EAST4를 처음 시작한 곳이라 우리에게는 의미도 있기에 오랫동안 있고 싶은 동네였는데, 임대료와 관련하여 건물주의 태도 때문에 옮기게 되어 아쉬운 점도 있어요. 몇 군데를 고려해보았는데 원서동은 규모가 작은 곳 밖에 없었고, 한남동과 홍대는 권리금 문제가 있었어요. EAST4의 직원들이 대부분 성북동에 살고 있어 익숙하기도 한 동네여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원서동에 있을 때가 그림기도 하지만 이곳으로 옮기고 나서 좋은 점도 있어요. 더 크고 조용한 공간을 얻게 되었고 사람들도 더 많이 모일 수 있게 되었죠.

어떤 일을 하든지, 돈 벌기 위한 것과 즐기기 위한 것 둘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봐요.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스트레스라 생각하지 않고, 이 정도라면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웃음).

위쪽에 거주하는 부자들 덕분에 사무실 앞 도로가 깨끗해요.

현재 사무실이 있는 곳은 2년 전만 해도 개발이 안 되어 허름하고 지저분한 동네였어요. 이 사무실 공간도 사실은 주차장이었죠. 사무실 앞의 도로가 정비되면서 이쪽도 깨끗해졌어요. 사무실 위쪽으로 어승재라고 하는 3-40억대 고급 빌라가 있어요. 반대로 아래쪽에는 정말 못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도로를 차로 항상 지나쳐야 하기 때문에 빌라 관리인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도로를 깨끗이 치우고 있어요. 이 길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빈부 차이를 가까이에서 느끼는 점은 좋지 않지만, 실생활에서는 도움을 받고 있다고 봐요.

성북동에는 사무실을 이전하면서부터 거주하게 되었어요.

2010년 사무실이 성북동으로 오면서 성북동에 거주하게 되었으니 3년 정도 되었네요. 하지만 성북동은 어릴 적부터 인연이 많은 곳이에요. 친구들이 이 동네에 많이 살기도 했고, 혜화동 로터리 부근에서 어린 시절을 많이 보내기도 했어요. 대학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주변에서 자주 시간을 보냈어요. 조금씩 변하긴 했지만, 그때 있었던 길들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변하지 않은 편이에요. 이쪽 성북동도 70년대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개인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길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성북동은 교통이 불편한 것만 빼면 그나마 삶의 질이 높은 곳이에요.

성북동에는 빈민계층이 많긴 하지만 다른 빈민촌과 분위기가 달라요. 보통 빈민층이 거주하는 곳에는 모든 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하는 데 안 좋은 점이 많은데 여기는 삶의 질이 그리 나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참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성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성곽도 있고, 풍광도 좋고, 위치도 대학로와 가깝고,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살기에 좋은 환경을 지닌 지역이에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교통이 안 좋은 점이에요. 교통이 좋지 않아서 발전이 많이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 뒤편이기 때문에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건폐율이 아직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삼청동으로 넘어가는 터널은 과거엔 걸어서도 못 넘어 갈 정도로 경비가 삼엄했기에 더욱 발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성북동에는 예전부터 건축가 조병수 등 많은 건축가들이 터를 잡고 있었어요. 지금도 10년 넘게 성북동에서 활동 중인 엑토 건축사사무소, 건축가 이민아씨, 대학로로 내려가는 길에 위치한 어반 엑스 등 많은 건축가들이 성북동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성북동에서는 최순우옛집, 인근에 위치한 미용실(MIEGA)과 가깝게 교류하고 있어요.

최순우옛집하고는 가깝게 교류하며 지내고 있어요. 최순우옛집의 행사 때 강연을 하기도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 서로 상의하기도 해요. 인근에 위치한 미용실(MIEGA)과도 잦은 교류가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네 이발소, 미용실들이 동네 사랑방이었는데 요즘은 머리만 자르고 가버리는 곳이 되었어요. MIEGA미용실 원장은 예전처럼 미용실이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용실을 만들고 싶다고 하여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차도 마시고, 전시도 하고, 다용도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같아서 자주 교류하고 있어요.

성북동은 가능하면 천천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성북동은 가능하면 천천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개선도 되어야 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급격한 변화가 아닌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변해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있던 것을 허물고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뜰이나 성북동 초입에 있는 한신아파트가 성북동 경관을 망치고 있는데, 이런 개발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길을 넓히겠다고 한쪽을 다 부수고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거주자들 또한 이런 변화를 바라지 않아요.

성북동이 변화되는 것이 나쁠 이유는 없지만 변화된다면 천천히, 예쁘게 바뀌었으면 해요. 개발이 안 될 수는 없어요. 사람 사는 곳은 계속 개선되고 개발 되어야하지만 주변 환경과 어울려 아름다웠으면 해요. 개발보다는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 ‘개선’이라는 말 그대로 ‘더 좋아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북동을 상징하는 세 곳은 스타벅스, 성북천 광장, 나폴레옹과자점이라고 생각해요.

스타벅스와 성북천 광장에 가면 성북동을 느낄 수 있어요. 성북동 스타벅

스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각양각색 모습으로 섞여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모습의 스타벅스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시간의 성북천 광장도 인상적이에요. 저녁이면 그 주변에서 캔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연령이 너무나 다양해요.

또한 성북동하면 나폴레옹제과점을 빼놓을 수 없죠. 사실 요즘에는 맛있는 제과점도 많은데 이곳에는 아직도 줄을 서서 사 먹어요. 성북동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에서 와서 대량으로 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한 모습들도 참 신기해요. 그 제과점만의 상징성이 있어서 멀리서도 이곳까지 구입하러 오는 게 아닐까요?

가장 성북동다운 길은 대학로에서 성벽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경신고등학교 쪽으로 성벽을 따라 쪽 이어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주 좁지만 경지도 좋고 가면서 볼 것도 많아요. 큰 길을 만나는 곳에 성북동 서울돈가스집이 나타나는 길이에요. 넓은 찾길이 아니라 뒤쪽으로 나있는 길이라서 걷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길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승연대표는 성북동(성북구)과 혜화동(종로구)의 경계가 아쉽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개발이 잘 안 되고 있고, 심지어는 보도블록도 서로 설치를 안 하고 있고, 혜화동 로터리와 안국동 쪽에서 오는 버스도 연결이 되지를 않아요. 경계부분이라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는 듯해요.

성북동에 빠르고 싸게 지은 천편일률적인 다세대주택이 많은 것은 좀 아쉬워요.

경신고등학교 쪽으로 가면서 보이는 곳의 풍광을 자세히 보면, 예전의 주택을 다세대로 바꾼 곳이 많아요. 좋게 보면 현 시대의 주거 건축스타일로 볼 수 있지만(가장 많기 때문에),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주택의 타입이 문제가 아니라 짓는 사람들이 똑같은 재료, 똑같은 모양, 저렴한 재료로 짓는

등 너무나 상업적인 목적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신경을 써서 오랫동안 지은 것이 아니라 빠르고 싸게 사업성 때문에 지은 것으로 가득 차있는 점이 많이 아쉬워요.

성북로는 필요 이상으로 차도가 넓은 것 같아요.

성북동이라는 동네의 규모에 비해 성북로는 필요 이상으로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뉴욕이나 파리 같은 경우에는 찾길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차선을 하나씩 막아서 그곳에 잔디를 깔고 테이블과 의자를 놓는 등 아예 막아버린 곳이 많아요.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차를 안 갖고 다니게 되어 차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북로는 차가 막히는 것을 본 적이 없고, 12시 이후에는 신호등이 점멸될 정도로 차량 통행량이 많지도 않아요. 사실 저렇게까지 넓은 도로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보행공간으로 활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서울건축문화제의 주제 전시회인 '서울동네건축전'에 참여하고 있어요.

올해의 주제 전시는 일상의 삶에서 동네와 마을로 가는 공동체의 확장입니다. 그러한 일상에서 마을로 확장되는 건축의 소통적 의미를 밝히는 '서울동네건축전'이예요. 신사동 가로수길과 성북동을 중심으로 지역과 관련된 작품을 지역 곳곳에 전시하고 있어요.

이 전시는 2012년 10월 20일(토)부터 27일(토)까지 진행되고요. 성북동깎리, GREENLAND IN BLUE, cafe 문경래, MIEGA, EAST4 등에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EAST4에서 이 전시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우선 축제의 의도가 좋았고 진행하는 사람들도 계속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가들을 모을 때에도 이왕이면 건축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했으면 하여 건축 이외의 분야인 건축사진,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

루도록 구성했어요.

특히 이번 답사코스에서는 성낙원, 심우장, 수연산방 등 기존 성북동답사 코스에 항상 나오는 명소들은 제외시켰어요. 최순우옛집은 시민유산 1호라는 큰 의미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분이기도 해서 이곳은 살렸어요. 나머지 거점들은 전에는 잘 몰랐던 곳인데 골목골목 찾아다니면서 직접 들어가 보고 발굴한 곳들이에요. 사실 몇 군데 더 함께하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원하지 않아서 함께하지는 못했어요.

성북동은 예전부터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작가들이 많았어요. 이처럼 이 안에서 실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려고 노력했어요. 성북동에 살면서 매일매일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곳. 모두 이곳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예를 들어 문경래 패션디자이너는 한옥을 사서 6개월 동안 고쳐서 이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인형가게인 GREENLAND IN BLUE 역시 그곳에서 직접 인형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북동 구석구석에 숨어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노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드러나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사와서 파는 가게도 있었는데 이런 곳들은 모두 제외시켰어요. 그렇게 선별해서 정한 곳들이 이번 전시의 거점들이에요.

‘시민문화유산 1호’가 이웃과 지내는 법

최호진 (주)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사무국장 송지영 학예연구사



- 일시: 2013년 1월 3일 오전
- 장소: 성북구 성북동 최순우옛집

성북동 최순우옛집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한 미술사학자 혜곡 최순우³가 1976년부터 별세하던 1984년까지 거주했던 한옥이다. 성북동의 양옥화 흐름을 타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시민 모금으로 (재)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이 매입해 관리하고 있다. 최호진 사무국장과 송지영 학예연구사는 내셔널트러스트 소속으로 최순우옛집에서 일하며 건물을 관리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관련 자료를 연구하고 있다.

3 혜곡(兮谷) 최순우(崔淳雨, 1916~1984)는 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하고 명저 '무량수전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를 남기는 등 한국미의 발견에 힘쓴 미술사학자다.

‘이 집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합리적으로 지킨 것

최호진: 내셔널트러스트에서 문화유산 보존을 시작한 것이 2002년이었어요. 저희 상임 이사님이신 김홍남 교수님에게 정보가 들어왔어요. ‘저기 한옥이 매물로 나온 것 같다’ 고요. 그래서 와보니까 이 집이었고, 급하게 모금을 시작해서 1년이 채 되기 전에 이 집을 인수하게 됐어요. 최순우 선생님의 따님도 ‘이 집에 누가 살더라도 한옥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지만,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서로에게 합리적인 대안인 거죠. 팔려는 분은 적당한 대가를 받으셨고요, ‘우리가 모두 보존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집에 있는 유물은 다 두고 가셨어요. 무조건 문화재로 지정해서 재산 처분을 못하도록 막아두는 것이 아니라, 드릴 것은 드리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그런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자기 옛집을 찾아요.

송지영: 우리는 명절에도 문을 열어요. 그러면 40대 되시는 성북동 주민이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옛날에 할머니 집도 이렇게 생겼었어, 지금은 아니지만.’ 하고 말씀하세요. 서울 사람은 거의 고향이 없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성북동이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옛집 기억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저희가 ‘어디 골목 사세요?’라고 여쭙보면, ‘성북 초등학교 나왔고, 홍대부중·고 나왔고.’라고 말씀하시죠. 저희도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누구네 집 아세요?’ 이렇게 여쭙보죠. 이곳에 사는 아이들도 훗날 ‘옛날에 저 집이 저런 곳이 아니었는데’라며 이 동네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보존되면 좋겠고요. 이 동네 어른들도 한 번씩 들르면서 ‘여기는 어때야 한다’며 말씀하세요. 아이들이 와서 얘기하는 걸 듣다가, 이런저런 얘기도 해 주시고요.

오랜 이웃이 주는 정을 아직도 느낄 수 있어요.

최호진: 이 앞에 국숫집이 있어요. 최순우 선생님 댁하고도 알고 계실 만큼 오래된 집이에요. 이 집에서 창호지 바르는 공사할 동안엔 그 집 가서 자고 그랬대요. 감 따고 이런 것도 나누곤 했다고 하고요.

송지영: 이 동네 분들 중에는 최순우 선생님을 직접 보셨을 만큼 오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곳이 북적북적해도 이해해주는 이유인 것 같아요. ‘여긴 예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님 댁이었으니까 재네가 이런 걸 하는 애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불편하시겠죠, 계속 관람객이 오고, 저희가 밤에 공연을 열 때도 있는데 ‘아 시끄러워’ 그러면서도 그냥 웃으며 사세요. 저희는 골목 음식점 갈 때 인사 잘하고 다니거든요. 나눠 먹기도 하고요. 저희도 동네주민으로 유입되려고 노력을 해요. 다른 곳(성북동의 문화재)도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관광지로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역사문화지구인데, 그것이 사람이 사는 역사문화지구인 거지. 관광지나 상업시설이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호진: 2004년에 개관하면서 주민들에게 떡 돌리고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할 것’이라고 알렸어요. 오랜 기간 저희가 오가면서 준비를 했으니, 주민도 저희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아셨죠. 이것저것 망가지면 통장님이 가끔 와서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내가 고쳐줬다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웃음) 그럼 저희가 차 한 잔 드리고요, 마을 만들기가 무언가 억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동네는 따로 그런 것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현재 상태의 모습도 마을인거죠.

성북동에 살았던 인물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어요.

최호진: 저희가 2002년 12월에 매입을 했는데, 그 시기 앞뒤로 성북동에 살았던 인물들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어요. 부암동에 있던 현진건 집터도 없

어지고 있었고, 원서동에 있는 교회동 가옥⁴도 기업에서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허물려고 했었고, 윤동주 시인이 있었던 연세대학교 안 음악 신학대학원 건물도 싹 없어졌어요. 그나마 우이동에 최남선 저택은 유족들의 반대로 문화재 지정이 됐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에요. 후손들이 조상의 집을 지키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지키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저희 같은 단체를 만나서 합리적인 관계로 정리되는 곳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킬 만하니까 지킨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그 무렵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건물이나 이런 것이 훌륭하고 가치가 있어야지만 문화재로 지정하던 시기였는데, 관에서 안 해주면 시민이 돈을 모아서 사겠다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니 굉장히 의미가 컸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인물이 살았든 혹은 잠시 거쳐 갔던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려 해요. 집이나 터만 있더라도 사람들의 흔적과 관련한 것을 남겨두고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하죠.

도시계획의 전문가는 주민입니다.

최호진: 이 집을 보수할 때 현수막을 크게 걸어서 동네 분들이 보시게 했어요. 공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연락하셨어요. ‘골목에 튀어나온 돌계단 때문에 차가 드나들지 못하니 어떻게 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단을 털어내고 옮겼거든요. 주민과 같이 가기 위한 우리의 선택이었어요. 저희 앞집 한옥 주인 선생님도 저희가 담장을 예쁘게 만드니까 보시고 저희랑 똑같이 패턴을 맞추셨어요. 도시계획을 할 때 동네 분 열 명을 위원으로 앉혀놓고 심의를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동네랑 맞는 건지 아닌 건지요. 이 골목도 개량된 것 빼고 한옥이 세 집만 남았는데, 앞으로 큰 골목이 들어서지 않을까 싶어요. 외부에서 계속 상업 자본이 들어오는데, 동네에 어울리는 정서를 물리적으로 구현하도록 계획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옛것

4 최호의 서양화가로서 후진을 양성하고 근대적 화단을 형성하고 이끌어 나간 교회동 선생이 살던 목조 기와집이다.

을 남겨놓고 쓰는 방법을 찾아주면 좋은데, 다 밀고 시작하니까 동네 모습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를 아끼고 찾아오던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겠죠. ‘인사동, 삼청동처럼 여기도 변할 것이다.’ 그러곤 이 동네를 안 찾아오겠죠.

역사문화유적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아쉽습니다.

송지영: 구청이 열심히 시도는 합니다. 여행수첩⁵도 만들고요. 그런데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도장만 찍고 가요. 저희한테 ‘문밖에 도장 달아놓지 않느냐’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저희는 ‘와서 직접 보고 찍으셔야 하지 않냐’고 말해요. 얼마나 아빠가 와서 대신 찍고 가는 일도 있어요. 숙제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최순우옛집에 오면 좋아하고 잘 있다 가요. 그냥 온 아이들은 잘 놀고 가는데, 도장 찍으러 온 애들은 정말 도장만 찍고 가요. 행정에서 문화예술에 대해 단편적인 것보다는 넓게 보면 좋겠어요.

외부사람 보기 편하라고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송지영: 성북동은 ‘그냥 동네’로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상업적인 것들이 넘어오고 있어요. 작년에 스타벅스 들어왔을 때 되게 놀랐어요. 이 동네도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어느 동네도 막기는 어렵지만요.

최호진: 저 옆에 쌀집이니 슈퍼니 하는 단독주택 헐어서 음식점을 하고 있거든요. 오래된 음식점의 주인들은 일요일에 다 문을 닫아요. 그런데 새로 들어와서 음식점을 연 분들은 손님이 많겠거니 하고 문을 열곤 하거든요. 여긴 봄·가을철이 아니면 장사가 되지 않아요. 동네 정서를 이해하고 와서 장사를 해도 어려운데, 그냥 막 들어오니까 걱정이 되지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우려 되는 것은 ‘도로변에 있는 작은 건물을 크게 짓기 위한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하

5 성북구 성북동 여행수첩: 성북동 여행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사진을 담은 여권모양의 관광안내수첩. 최순우 옛집, 심우장 등 성북동 명소를 탐방하고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터 잡고 살아오신 분들이 세대가 끊기고, 자식들도 만 데에 가서 살고, 그분들 돌아가실 즈음에는 이런 분위기가 남아있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요. 심우장 앞에도 정비를 할 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두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오래 적응하며 살았기 때문에 불편함을 잘 몰라요. 동네 사람도 아니고 외부사람들이 보기 편하라고 바꾼다는 것은 이미 외부의 시각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골목을 걷는 불편한 관광이면 좋겠어요.

최호진: 요즘 길가마다 다 관광버스가 서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관광도 편하게 보고 갈 수 있으면 좋지만, 저는 불편하게 느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큰길도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야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해결책을 줘야겠지만, 계속 불편한 관광이었으면 좋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주인이지 외부인이 주인은 아니잖아요. 외부인이 주인이려

면 여긴 민속촌이나 다름없어요.

송지영: 사람들이 골목이나 동네 분위기 때문에 오지 관광버스 서 있는 것 보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어떤 일을 기획할 때, 관광객이 무조건 많이 오는 것보다는 정말 좋게 있다 갔으면 합니다. 축제할 때도 이 동네 문화나 간송의 전시, 저희 문화재, 구립미술관 전시 이런 곳과 색깔이 맞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이 들어오게 되면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보는 축제나 관광지가 되지 않겠어요?

최호진: 최순우옛집도 이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도 있다고 봐요. 보수 공사할 때도 증축한 것도 있고요. 그래도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에 우리도 동조하고 맞춰가면서도 최대한 잘 보존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을, 오시는 분들이 더 즐겁게 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밖에 없다. 이것은 그 곳에서만 볼 수 있다.’ 성북동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변하는 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변화가 서서히 진행돼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겠습니다.

주민이 동네 문화재를 관리하고, 오래된 가게를 지키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최호진: 심우장은 구청이 소유했는데 구청이 얼마나 자주 와서 심우장을 관리할 수 있겠어요?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문화재 앞에 앉아 계시고, 방문객에게 직접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주변에 사는 마을 주민이 일상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전문적 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시니어를 위한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사회적 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어떤 형태로 지역 문화재를 상시 관리 보수할 수 있는 걸 만들면 좋겠어요. 문화재 공사는 국비나 시비가 나와야 하는 건데, 문짝을 고정하는 정도 작은 것들은 문화재 공사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한옥엔 그때그때 못 고쳐서 위에 그냥 덮어놓은 곳이 많아요. 처음 구멍이 작을 때 빨리 손을 보면

되는데, 못 보고 놔두면 큰일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동반이 운영되고, 은퇴하신 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일당을 조금 받고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송지영: 도시계획을 할 때 아무리 콘텐츠, 역사와 문화가 중요하다고 해도 물리적인 게 바뀌면 주민이 수동적으로 적응해야 돼요. 관광지가 되면 순식간에 바뀝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손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뀌는 거지요. 동네분들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은 채로 도시계획이 끝나고 마는 상황입니다. 그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호진: 오래된 가게들, 쌀집이나 이런 것들 동네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들이고, 그분들 자체가 역사이고 이야기죠. 그런 가게들이 대형마트 때문에 혹은 연로하셔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가게는 몇 년 된 가게다.' 이렇게 동네에서 인증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때문에 이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적혀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집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게에도 그런 정보를 새겨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평상시에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밑에다가 또 쓰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무슨 가게였는데, 지금은 무슨 가게다. 그 가게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예술혼이 깃든 마을, 성북동

김보라 성북구립미술관 관장



- 일시: 2013년 1월 17일
- 장소: 카페 '바람과 나무'

김보라 관장은 프랑스에서 복원미술을 공부했다.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등에서 일하다가 성북구립미술관에 온 지는 3년이 되었으며 지금은 지역 자원을 많이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김보라 관장은 '예술혼이 깃든 마을' 이 성북동이 라고 말한다.

성북동에 살던 작가들이 만든 미술관에서 전시로 보여주는 성북동의 역사와 스토리

성북구립미술관의 모태는 40년 전 ‘성북장학회’입니다. 많은 작가가 성북동에 살고 있는데, 이들이 작품을 팔아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자 장학회를 만들었죠. 구립미술관은 성북장학회에 참여하고 있던 작가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백여 점 이상의 소장 작품은 대부분 기증을 받은 것들이죠. 성북동은 미술의 근원지이자 메카와 같은 곳입니다. 작가들이 모여서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 미술관을 만든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죠.

개관 기념전 ‘THE PRESENCE’는 현존 작가들의 근·현대미술을 모아 전시했어요. 최만린, 조문자, 전뢰진 선생님 등은 이곳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에요. 김창렬 선생님의 경우에는 오래 전 돈암동에 있던 ‘성북회화연구소’⁶에서 활동하던 분입니다. 저희가 성북회화연구소와 관련된 전시도 기획하고 있어요. 이쾌대를 비롯, 그 학생들인 전뢰진, 김창렬 등 성북회화연구소에 참여했던 작가들도 연구해야 할 분들이거든요.

‘순수시대’ 전(2012)은 이분들⁷이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작가들이고 작품도 가장 비싼 분들이라 할 수 있는데 처음 한국에 현대미술의 뿌리를 내리는 시점에서 이분들의 작품은 어떠했고 이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돌아보려고 제목에 ‘순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대표작보다는 마음이 담긴 작품을 전시했죠.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는 마음이 짠했어요, 가난했던 시절의 작품이 많아서. 2011년에 했던 ‘두 예술가를 만나다’전은, 근원 김용준과 수화 김환기의 인연을 주제로 한 전시였어요.

저희는 전시를 기획할 때 테마를 하나 정해 이야기를 풀어나가죠. 이 경우에 왜 이 둘이 같은 집—노시산방(老柿山房)에 살았을까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김용준이 살던 집에 나중에 김환기가 살게 되는데, 신흠 선물로 준 것이거

6 화가 이쾌대가 1947년 설립. 한국에서 대학의 미술 교육이 있기 이전에 사설기관으로 미술 교육을 했던 곳

7 권옥연, 김기창, 김용준, 김환기, 변관식, 변종하, 서세옥, 윤중식, 전뢰진, 최만린

든요.

이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문헌자료나 인터뷰를 통해서 파고들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곤 하죠. 예들 들어, 우리 미술관 명예관장인 서세옥 선생님이 김환기 선생님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요. 전쟁 때 부산에 피난을 가서 김환기 선생님 집에서 신세를 진 적도 있고, 김환기 선생님이 뉴욕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척 가난하게 사셨다고 해요. 서세옥 선생님이 미국에 가 보니 돈이 없어서 너무 좋지 않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시더라요. 한국에 돌아가서 좋은 종이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전시를 꾸리는 거죠. 이 전시는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두 예술가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스토리와 역사를 찾고 그걸 전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할 때에도 사진이나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려고 해요. 인터뷰 등 영상 자료를 포함해서요. 이걸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작품만 전시하면 매력이 없거든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신진작가의 발굴과 기존 작가의 재조명

연간 일정으로 보자면 봄과 가을 기획전시가 있고 Summer Project가 있는데, 봄에 열리는 네오포럼의 경우 한국미술의 맥이 어떻게 신진작가들에게 흘러내려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네오포럼 ‘라인 인 라인’은 선(線)적인 것을 다루었고, 2013년 2월 네오포럼은 ‘여백’이 주제입니다. Summer Project는 젊은 작가들을 초청하고, 어린이 대상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요. 대관은 하지 않고 모든 전시를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전시를 한 가지 더 꼽자면, 2012년에 했던 윤중식 개인전을 들

수 있습니다. 워낙에 노출이 잘 안 되었고, 오래 전 어떤 해프닝이 있어서 그 이후 미술시장에서 작품이 사라진 분인데, 결국은 저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공개되지 않았던 70점을 선보여 주셨거든요. 다른 미술관들에서도 섭외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패했었고, 이후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게 되어서 자부심이 있죠. 100세까지 사시도록 매우 정정하셨어요. 말하자면 호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삼일 전까지도 통화를 했었고, 하루 전까지도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셨던 분이어서 좀 더 오래 작품 활동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죠.

이 분의 작품은 20대 때부터 100세가 되도록 한결 같았습니다. 석양이나 해돋이가 있는 풍경을, 항상 고향이었던 평양, 황해도의 그림을 그렸죠. 마티스의 영향을 받았어요. 다른 때에는 좀처럼 보도자료에 반응을 았던 한 미술전문기자가 이때는 먼저 인터뷰 요청을 했던 것도 기억에 남네요. 저도 다른 기자들의 요청에는 거절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을 설득해서 기사가 실리게 되었고요.⁸ 이 분의 진면목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사도 잘 나왔어요. 드러나지 않다 보니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이 인터뷰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시를 계기로 해서 미술계에서 우리 미술관의 입지, 정체성이 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윤중식 선생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매우 검소하게 사셨던 분이예요. 평양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유학도 했었는데,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교수들이 많아 화풍이 다양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제국미술학교⁹에서 수학하셨죠. 이후 한국전쟁 때 가족이 함께 월남하다가 오는 길에 다른 가족은 잃고 본인과 네 살배기 아들만 살아와

8 동아일보, 2012. 5. 1. "강렬한 색채... 1세기 걸친 화가의 외길 여정: '100세 화가' 윤중식展 5월 3일~6월"을 말함

9 무사시노 미술대학(武藏野美術大學)의 전신

서 성북동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인 것이죠. 성북동에서 기억해야 할 대표적인 작가 중 한 명인데, 본인이 문을 닫고 지내다 보니 많은 경우 배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부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주하던 집도 재개발 대상 지역이 되었는데, 그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집을 보존해 주면 작품을 기증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증하겠다는 작품을 가격으로 치면 40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집 옆에 본인의 미술관을 짓기 위해 마련해두었던 건물도 있는데 역시 재개발 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성북동의 거리를 바꾸지 않고 상처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기서 일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90년대 초부터 간송미술관에 자주 왔는데, 그때 시골 같다는 느낌이었죠. 뭔가 막연하게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과거로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간송미술관도 세련된 미술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안 고칠까?’하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고쳐야 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성북동은 그 상태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삼청동은 지금의 성북동 같았어요. 참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변했어요. 성북동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심우장 아래 등성곽 재정비를 하면서 돌을 일본식으로 쌓은 곳이 많은데, 연구하고 공부해서 한국식으로 했으면 해요. 너무 깨끗하기 보다는 튀지 않게 하면 좋겠고요. 길도 보도블록을 일률적으로 깔기 보다는 옛날 길 그대로인데 걷기에만 편하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들어오지 말았으면 좋겠고, 장인이랄까요, 수공예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바람은, 한성대입구역 성북로 초입에서 우정의 공원까지 걸으면서 성북동

사람들을 하나씩하나씩 볼 수 있는 작은 기념관들을 만드는 겁니다. 거리를 많이 바꾸지 않고 상처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 성북동에 관해 많이 아는 분, 오래 사셨던 분들의 생각이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노시산방이 없어졌는데, 이게 노시산방이라는 것도 모른 채 없어져 더욱 안타까워요. 장승업, 윤이상, 박태원 집터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죠, 조지훈 집터는 그나마 비라도 남아 있지만, 종로구에서는 박노수, 이상, 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 등의 집을 매입해서 기념관으로 오픈하고 있어서 좋은 예가 되고 있어요.

문턱 없는 공립미술관이 작은 단위에 많이 생겨야

소장품은 처음에 미술관 등록 당시의 108점이 전부입니다. 소장품을 늘릴 예산이 없어요. 소장품전은 초기에 한 차례 한 후 최근에는 다른 곳에 나가서 순회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와 구로구에 갔었고, 올해에는 강동구에서 예정되어 있죠. 이런 전시를 기획하는 데에는 구 단위의 기관들이 힘을 모으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공립미술관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공립미술관은 1700년대 유럽에서 귀족들이 자신이 소장한 작품을 자기들만 보다가 시민사회가 되고 계급이 없어지면서 대중에게 풀어놓을 장소로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8년에 개관한 덕수궁미술관(당시 이왕가(李王家)미술관)이 최초의 공립미술관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향유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립미술관이란 그 자체로 매우 진보적인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너무 폐쇄적인 공간, 일반인이 다가가기 어려운 ‘그들만의’ 곳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요. 유럽에서는 300년이 되었다지만 우리나라도 그 역사가 100년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차츰차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날이 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그렇게 되는 데에 우리 미술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작은 단위의 공립미술관이 더욱 의미 있습니다. 문턱 없이 주민들이 쉽게 오갈 수 있고 귀한 작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미술관이 많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문화 수준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관람객 비중으로 보자면 6:4 정도로 구민이 적어요. 7~80% 이상이 타 지역 분들이 관람하는 전시도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5:5 정도입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 접근하는 것이어서, 전시, 교육 프로그램, 탐방, 모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일대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한 분이더라도 도슨트가 없으면 저라도 가서 설명해 드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가를 중점으로 해서 만들어요.

이렇게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죠. 인력도 인력이지만, 공간 문제가 더 큼니다. 1년에 1만 명이 방문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공간은 따라 주지 않는 형편이거든요. 전시실, 수장고, 교육실, 강의실, 휴게공간 등 하드웨어를 제대로 갖추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술관이라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시만 보고 갈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죠. 책을 본대거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 작가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오픈 행사나 기자간담회가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구립 미술관은 드물죠. 성북구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성북구립미술관은 등록된 최초의 구립미술관이에요(등록 미술관이 아닌 곳으로는 송파구에 예송미술관이 있습니다). 또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기반이 있고, 지역의 인물들이 바탕에 있기에 미술관이 있게 된 것이니까요. 작가들이 이곳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그렇게 많이 모여 살았던 것은 분명 성북동에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미술관들의 문제점 중 하나가 어느 미술관에 가든 똑같다는 겁니다. 미술관마다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쨌든 근·현대 성북동의 작가들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찾고 지켜야겠

죠. 그렇게 해 나가면 뿌리가 깊어지지 않을까요?

성북구립미술관이 한 색깔을 갖고 깊게 뿌리를 내렸으면

지역과 연계하는 활동은 구립미술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최순우옛집, 수연산방과는 ‘예술가의 길’이라는 탐방 프로그램을 위해 2년 전부터 협력하고 있죠. 간송미술관의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하여 간송을 조명하는 전시회를 한 번 연 적이 있고요. 사회과 교과과정을 예술 탐방과 연계하는 등 학교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은 참 많은데 실행에 옮기기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은 갤러리들도 많이 있고, 대양갤러리 등 최근에 꽤 큰 곳도 많이 생겨서 이들을 묶어내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습니다.

성북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성북예술창작터’라는 이름으로 미술관 분관을 곧 오픈하는데,¹⁰ 이곳은 신진작가, 미대학생들의 전시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갤러리들을 함께 홍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공립 미술관 대부분이 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어서 이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행히 성북구립미술관은 저도 정년제이고 서세옥 선생님도 계시니, 그 동안만이라도 이 미술관이 한 색깔을 유지해서 깊게 뿌리를 내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런 미술관이 공립 중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10 2013년 4월 11일에 오픈했다.

지역예술가와 주민이 만나도록 다리를 놓다

이준희 성북문화재단 행정지원팀 기획실장(전)



- 일시: 2013년 2월 7일 오후 4시
- 장소: 성북구민여성회관 사무실

이준희 실장은 복합예술을 전공한 문화기획자다. 성북구에 있는 한국예술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성북구에 있는 연습실을 관리하며 지역 예술단체끼리 네트워크를 맺는 데 관심을 두게 되었다. 2011년 3회 ‘월월축제’를 연출했고, 2012년 성북구 아리랑축제 추진위원을 맡아 ‘성북 아트페스티벌’을 기획했다. 2012년부터 성북문화재단에서 일하면서 지역과 예술가의 관계 맺기를 위해 힘쓰고 있다.

성북구엔 예술가가 정말 많지만, 지역주민과 만남은 적습니다.

97년에 성북구에 있는 한국예술종합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006년 대학로를 오가며 단체를 운영했고, 2007년 하반기부터 성북구 동선동 아리랑 고개 밑에 위치한 연습실을 관리 했습니다. 한성대와 돈암동 양쪽으로 극단이 많습니다. 저는 복합예술을 했어요. 여러 예술 분야랑 연계돼 있으니까 축제 기획을 하게 됐죠. 팀을 섭외하다 보니 지역에 예술단체가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대부분 상황이 열악했고요. 이렇게 많은 예술단체가 품앗이나 뉘두리라도 할 수 있게 네트워크를 맺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인들이나 연극 협회 관련 분들과 대화하면서 지역 주민과 만나는 지점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부터도 ‘지역 주민과 만나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술가는 작품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외부에서는 저희가 생활 예술¹¹을 하길 바라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요즘 보면 예술에 대한 지원은 사라지고 생활 예술을 전제로 하는 사업들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예술가들이 지역 주민과 만나야 하는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월월축제를 통해 지역과 예술가가 만나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국민대 이혜경 교수님과 연이 닿아 두만강이 있는 중국 투먼 시¹²에 있는 축제를 도왔어요. 투먼 시에서 연변대 연극 영화과 학생들하고, 고려인 학교 그리고 국민대 학생들과 ‘한겨레’라는 주제로 워크숍 작품도 진행했어요. 이 행사를 계기로 ‘예술이 역사와 지역 이야기에 관심 가지게 될 때, 새롭게 시대적 사명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11 생활예술이란 소수 전문가들의 예술 활동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의 영역, 즉 일, 가족, 사교 등의 사회적 영역에서 자기를 계발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12 투먼시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에 위치한 도시. 두만강 중류부에 위치하며 남쪽은 북한의 함경북도 온성군과 접한다. 인구의 57%가 조선족이다.

토문에서 2회 축제를 도우려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대신 성북에서 ‘월월축제’를 기획하기로 했어요.

그때 저는 세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민과 예술가가 만나서 함께 활동하고 싶었어요. 지역예술가가 한 번 와서 공연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과 만나서 양부모-양아들의 관계처럼, 축제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또 하나는, 성북에 근대 역사 고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공연하는 거죠. 공간이 가진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방법은 예술가가 주도하는 거죠. 또 하나는 성북에 37개의 대사관저가 있으니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아이들이 경험하게 해주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월월(越wall), 담을 뛰어넘는 축제죠.

주민이 주연배우가 되었던 3회 월월축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했던 것이 3회 ‘노을빛 하모니 월월축제(2011)’였습니다. 주민과 만나 북정마을 연극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예술가들을 섭외했어요. ‘호모루텐스 컴퍼니’라고 한국예술종합대학의 남궁호 교수님이 하는 신체극단이 있어요. 또, 교육극단 ‘아름다운 트락’이라고 어르신과 교육활동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극단 ‘더미’팀, 국민대에 ‘아트커뮤니케이션21’이라고 한국무용을 근간으로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쪽하고 북정마을 어르신들 노인정에 찾아가 주민이 축제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짚기질을 했죠.

행사 날 글로벌 빌리지 센터부터 공연 장소까지 길놀이¹³를 했어요. 공연은 성곽길 공터, 주차장,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각 한 팀씩 네 팀이 공연했어요. 한 공간에서 공연하고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 버스정류장에서 다 함께 노는 형태로 끝냈어요. 공연시간은 길지 않게 한 팀당 10~15분 내외로 하고요. 상당히 재밌었어요.

13 탈춤이나 민속놀이, 마을곳에 앞서 마을을 도는 놀이. 가면과 의상을 갖추고 집합지에서 공연장까지 행진하는 것

‘호모루덴스컴퍼니’는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임극을 했어요. 손연옥 노인정 회장님이 배우로 출연해서 남자분이신데 할머니 역할을 하셨어요. 또 어느 할아버지께서 부인을 처음 만나 결혼을 하게 된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직접 출연해서 배우와 함께 연기하고 아내분이 노래도 한 곡조 부르고 들어가셨어요.

극단 ‘더미’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¹⁴’를 공연했어요. 연세가 아흔이신 어르신이가 주인공 나무 역할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마임으로 어릴 적부터 노인까지 연기하니 그 호흡들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정말 눈물바다였어요. 심우장에서 낭독 공연도 하고요.

결과는 흐뭇하지만, 과정은 힘들었어요. 저하고 한 명이 노인정에 찾아가서 넉 달 동안 주민들을 설득했어요. 지난해 행사까지는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재개발 문제가 걸리면서 축제를 하지 말자는 분들과 ‘그래도 하자’는 분들이 나뉘었어요. ‘무슨 목적으로 와서 하느냐’고 하는 분도 있었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정치에 의해서 순수 축제가 훼손되는 것 같은 안타까운 느낌이 있었.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했습니다. 과정에서 상처받는 그룹도 생겼고요. ‘우리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왜 해야 하지?’라는 말도 있었어요. 하지만 경험해 보지 않는 이상 필요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성북구 아리랑축제에서 동네 극단이 주민 앞에 서다

축제가 끝난 후 예술단체 모임을 하면서, ‘본업은 작품활동이지만 지역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성북구에서 아리랑축제를 했는데, 저는 지역 예술을 하려면 지역예술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했어요. 주민을

14 미국 작가 쉐 실버스타인이 쓴 동화. 옛날에 나무 한 그루와 나무를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나무가 소년이 노인이 될 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었다는 내용.

위해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외부 업체가 입찰을 통해 들어오고, 지역 예술가들은 다른 곳에 가서 공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리랑축제 위원회로 들어가서 '성북 아트페스티벌'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동네 극단들이 성북천 다리 밑에서 공연 거점을 잡아서 일주일 동안 7~8팀이 공연을 했어요. 인형극도 하고, '신의 아그네스' 라는 무거운 극도 하고, 낭독 공연도 하고.

공간이 극장이 아니니까 완전한 작품이 나올 순 없죠. 하지만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주민 동아리들도 한성대 앞에 있는 분수광장 무대에 서고 싶어 했어요. 아트페스티벌은 제가 예술 감독으로 총괄하고, 주민들 참여하는 건 구청에서 주도하고, 그러다가 재단에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재단에 들어오면서 기존 예술단체 모임에서 빠졌어요. 어떤 그림으로 단체들이 만나면 좋을까 고민했고, 지역단체 네트워크를 조직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재단에선 그 필요성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 네트워크를 만들면 좋겠다' 는 정도로만 말해요. 하지만 스스로 네트워크가 잘 안되니까 도움이 필요해요.

성북구 사람들이 서울연극협회의 정회원으로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연극협회 성북 지부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지역 예술단체들이 수면으로 올라가야 하지 않나 싶었어요. 그런 시도를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관은 이런 터전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술가가 지역에 문을 열게 할 장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북동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장수마을, 북정마을, 역사문화지구 등이요. 공연예술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가 소재가 되지 못한 게 아쉬워요. 연습실이 다 땅 밑에 있어서 관심이 없는가 싶기도 해요. 만

약 연습실마다 ‘우리 마을 공연창작 연습실’ 이라고 간판만 붙여 보면 동네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연습실은 매일매일 하루 종일 연습 하지 않아요. 두 달, 그중에 주말만 주민에게 개방하겠다고 하고 주민들이 거기서 연극놀이나 음악놀이를 할 수 있어요. 성북구 고등학교에서 예술교육이 필요하다면 연계할 수도 있죠. 성북구니까 그게 가능하지, 다른 데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예술단체들도 엄연히 성북에 사는 주민이고, 성북에서 활동하거든요. 어렵겠지만, 이들이 지역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할 거예요. 이 과정을 돕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역사문화’ 더하기 ‘예술지구’

문화 산업 콘텐츠, 역사문화지구를 해서 스토리를 개발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구현할 건가요? 웬만한 콘텐츠는 다른 곳에서 다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른 데서 못하는 것이 공연예술 부분입니다. 성북천을 중심으로 양쪽에 장수마을과 연습실이 있어요. 이곳이 ‘역사문화’ 더하기 ‘예술지구’ 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광객이 장수마을에서 벽화를 보고 성벽 쪽문을 통해 이화동 벽화 마을로 넘어가면 예술지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역사문화 공간으로 가는 거지요. 최순우옛집 등 문화유적에 그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예술가들이 만나면 가치를 더 개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계획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다리 밑에서 공연을 해 보니까 극장 열 몇 개를 만드는 것은 순식간이죠. 다리 밑에 전기만 들어오면 극장을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상주예술단체를 연결해서 자기들 콘텐츠를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거기다 소량의 제작비 지원만 있다면 좀 더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겠죠.

‘교과서에서 나오는 세계 명화 시리즈를 공연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최소한의 제작비를 주면 다리 밑에서 셰익스피어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작

품이든 낭독 공연이든 뭐든 할 수 있어요. 다리 밑에 아이들이 엄마와 앉아있는 모습이 아주 정다웠어요. 또 다리 밑이니까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장치를 만드는 데에도 저렴하게 해서 1천500만 원이 들었어요. 만약에 구청에서 공사를 한 번만 제대로 해서 전기가 들어오게 하면 쉬운 일이죠.

지역에서 예술단체가 살아갈,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찾아야 합니다.

예술가들이 주체가 되려면, 그들이 뭘 원하는가를 알아야 해요. 예술단체는 지원을 바라죠. 지원하면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 당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그들이 생각해서 답을 낼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단답형으로만 해요. 돈을 줄 테니까 무슨무슨 공연해 달라는 식으로 해요. 공연장이 문을 열게 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 쪽(창작촌)에서는 왜 열어야 하는지 공감할 못 하거든요. 말로 열심히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주거개선 작업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술교육도 하고 자생력을 가지게끔 해야죠.

주민이 곳곳에서 이분들이 연습하는 것만 봐도 좋은 공연이죠. 수면 위로 드러난다는 건 그런 거죠. 지역 주민이 예술을 가까이에서 보는 거예요. ‘기분 좋은데 우리가 공연 한 번 할까?’ ‘어르신들 위해서 노인정을 찾아가 볼까?’ 이렇게 스스로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먹고사는 것도 힘든데, 자꾸 재능 기부하라는 건 힘들어요. 삶이 기부인데, 그들의 욕구와 바람을 행정에서도 마음을 열고 봐야 해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으로 예술가를 위한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세트제작, 소품제작을 하는 공장이 제작소입니다. 제작소가 다 벽지에 있기 때문에 운반비도 많이 들고 단가도 비싸요. 그래서 저는 제작에 관련한 협

동조합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구청에서 땅을 받아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수익은 지역의 예술가에게 선순환되고, 그걸 받은 혜택이 제작자들에게도 돌아가면 임금문제도 해결됩니다. 예술에 지원하려면 그런 구조적이고 원초적인 환경 기반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풀어진다면 미술거리, 한양도성, 고택, 박물관, 미술 거리에 이들이 움직여서 프로그램이 생기겠지요.

예술가들이 '지역 주민이 우리를 품고 도우려 한다'고 느낄 때, 지역에서 예술을 꽃피울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많은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일반 기업의 시각에서 사회적기업은 미적 감각이 부족해요. 이런 걸 개선하는 데 따로 외주를 주지 말고, 지역 예술가들이 협동조합 개념으로 컨설팅할 수 있어요. 지역의 카페나 생활사 박물관을 만들고 그곳에서 공연하고 차도 마실 수 있는 형식으로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술 문화 분야의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고, 동네의 창작 예술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환경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예술가들이 연습실 문을 열어 지역 주민과 만나고, 성북동 곳곳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채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고를 돕고, 동시에 역사문화지구가 가야 할 방향성을 담은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극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식당도 만들고, 극장도 만드는 건 돈을 많이 벌게 하기보다 비용을 아끼고 적은 돈을 벌게 하자는 거지요.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이들이 버틸 여유가 생기죠. '지역 주민이 우리를 품고 도우려고 한다'는 것을 예술가들이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런 정신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북동 종교인

봉사와 배움을 통해 지역선교를 실천하는 목회자

손인웅 덕수교회 원로목사



덕수교회 손인웅 목사는 1977년부터 덕수교회 담임목사를 약 35년간 역임하였고, 현재 덕수교회 원로목사로서 그 외 대외적으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과 (재)국민문화재단 이사장, 세계결핵운동본부 총재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 1984년 덕수교회가 광화문에서 성북동으로 옮겨올 때부터 지금까지 종교 간 화합과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지역선교를 실천하고 있다.

2012년 8월 21일 오전, 성북동에 있는 덕수교회 당회실에서 손인웅 원로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덕수교회 역사와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빈부격차 문제 등 지역문제와 특성, 그리고 지역의 역사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지역에서의 교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내는 것 만만 선교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덕수교회는 1984년에 광화문에서 성북동으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65년이 넘었습니다. 과거에 정동에 덕수교회가 있었는데, 1984년 정동 부지를 조선일보 측에 넘기고 성북동으로 왔습니다. 정동에서 30년쯤 있었고, 성북동에 와서 35년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성향이 조용하면서도 교회다운 친환경적인 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어요. 강북 쪽에도 괜찮은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부터 꿈이 ‘전원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통도 불편하고 지역 발전 가능성도 높지 않지만 숲이 있는 성북동을 택했습니다. 보통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터 잡을 곳을 조사하면서, 극상층과 극빈층이 나뉘어 살고 있는 지역 특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이자 산 밑에 못사는 지역이 같이 있어요.

성북동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이자 산 밑에 못사는 지역이 같이 있어요. 교회는 지리적으로도 딱 중간에 있고, 사회통합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에는 빈부격차 문제가 심했습니다. 교회가 이전했을 때 아이들이 교회에 돌팔매질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 가슴에 돌을 맞았다.’는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빈부격차 문제의 해결방안은 부자들이 하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진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도록 독려했습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섬기고 싶어도 못한다고 말했어요. 돈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라고 했습니다. 고맙게도 부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동네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섬김과 나눔의 사역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라고 봅니다.

성북동의 정체성은 아주 복합적이고, 문화적으로는 다문화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 성북동은 삼선교를 돌아서 다니던 동네였어요. 이쪽 고을에는 이종석 별장이 하나 있었고, 저쪽 고을에는 성락원이 있었던 별장지대입니다. 그 후에 사업에 실패하거나 병이 나거나 하는 등 어려운 사람들(요양하는 사람, 무속인 등)이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조 때 북둔이라고 해서 군인들이 주둔했던 곳이고, 저 밑에 선잠단지 쪽은 마전터라고 불렸죠.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고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주민들은 대체로 어려운 중산층 분들이 중심이 되어 살다가 그 다음 60년대에는 무작정 상경하는 농민들이 성곽 밑에 국유지를 점령해서 살았어요. 70년대 되어 심상정 회장이 성락원을 개발하였고, 대교에서 삼청터널 뚫으며 기부채납을 받아서 주거지를 개발했습니다. 여기의 특징이 대사관저가 많다는 것인데 외국인 대사, 주재원 등 250여 명이 넘습니다.

성북동의 정체성은 아주 복합적이고, 문화적으로는 다문화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원주민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옛스러운 동네이고, 한쪽으로는 최첨단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정체성 얘기는 한참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하면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길상사-성북동성당-덕수교회 세 곳에서 종교인 연합바자회를 합니다.

이 동네의 특징은 종교기관이 전국 어느 곳보다 많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지만, 사찰이 암자를 포함해서 열 몇 개가 되고, 천주교도 수도원과 수녀원을 포함해서 거의 열 개가 됩니다. 불교도 태고종 본부가 이 동네에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종교가 이 동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이 동네가 종교 갈등의 본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점을 생각하고, 종교 간 화합을 위해 길상사-성북동성당-덕수교회

세 곳에서 종교인 연합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여러 번 났는데 종교 간 대화운동이자 지역을 같이 돕는 운동입니다.

하루 바자회를 해서 3천만 원 정도 수입이 나는데 지역 아이들을 위해 씁니다. 바자회를 하면 보살님도 앉아 있고, 권사님도 앉아 있는 등 재미있습니다. 처음에 바자회 아이디어를 교인들에게 얘기했을 때 교인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종교 간 갈등이 있을까봐 ‘바자회할 때는 전도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덕수교회가 지역 선교에 매진하던 때에 하루는 지역에 사는 불교방송 이사장이 교회에 찾아와서 “덕수교회가 좋은 일하는 데 나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고는 5백만 원의 현금을 내고 돌아간 일화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크리스마스에는 길상사에서 꽃을 가지고 오고, 초파일에는 교회에서 길상사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를 초월해서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리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은 교회를 나누고 분리하지만, 봉사는 하나를 만든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는 종교이고 교리이고 구분이 없어요. 지역의 갈등이라든지 종교 갈등, 빈부의 갈등 등이 있고, 다른 동네에 가보면 씨족 간 갈등도 있지만,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북동은 자연환경이 좋고,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성북동의 대표적인 자원은 자연자원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포함하여 주변 지역이 풍취지구이자 주거전용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이 지역의 강점이자 자랑이에요. 예전에 삼청터널 수리하면서 풍취지구 지정을 중단했는데, 동네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평창동에서부터 터널을 만드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반대

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배기가스만 남습니다. 지역 주민은 지금 자연 환경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북동은 역사적인 유적들, 인물들도 많아요. 특히 예술하는 분들과 화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세대 경제인들도 있습니다. 간송미술관 하나만 해도 무궁무진합니다. 전시회하는 날은 줄을 서서 학교 앞까지 기다려야 해요. 이태준가, 심우장, 성락원, 최순우고택, 성곽, 간송미술관, 가구박물관을 돌면서 한나절 문화탐방코스를 만들어도 아주 넉넉합니다. 여기에 더해 설 수 있는 찻집도 만들고 우리 전통음식점도 해서 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준 씨가 교회 안에 있는 정자에서도 문학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교회 앞에 이태준가가 있는데요. 이태준 씨가 우리나라 한말에 단편소설가로 제1인자였습니다. 자기 집이 강원도에 있었는데 성북동에 집을 짓고 문학활동을 했습니다. 이응상, 정지용 등 대여섯 분이 상허선생과 함께 문학활동을 했어요. 이 분들 문학작품을 보면 성북동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이태준 고택을 맡고 계신 분이 이태준 씨의 조카딸이라고 하는데, 지금 찻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 씨에 대해서는 고택에 가면 여러 문학작품들이 있고, 이태준을 연구하는 문학모임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집을 짓고 살았으니까 우리 교회 일관정 정자에서도 문학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생가나 고택에 얹힌 이야기들도 많아요.

이재준 가옥은 보인학교 창립자 이종석 별장, 또는 마포부자 이종상 별장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교회 뒤에 이재준 가옥이 있는데, 이재준 씨는 예전 대림산업의 회장입니다. 그 분 때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지

은 사람이 이재준이라는 분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조사한 것과 덕수교회에서 조사한 것이 조금 다른데, 구청에서는 마포에서 새우젓 장사를 하던 이종상 씨 별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하기로는 보인학교를 설립한 이종석 씨 별장이라는 설이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종석 씨는 구한말의 부자로서 보인학교라는 학교의 창립자이자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종석 별장은 그분의 여름별장이었고요. 다만 이종석 씨가 이 집을 인수했는지 아니면 직접 지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편, 구청에서 얘기하는 마포 부자 이종상 씨는 사공이었다고 합니다. 구전에 따르면 1900년대 초반 이분이 배를 여럿 가져서 한강에서 알려진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남한강과 서해를 돌아다니며 미곡과 새우젓을 팔았는데 마포 쪽에 자기 저택을 짓고, 여름 별장을 성북동에 지었다고 합니다.

별장 건물을 보면 건축양식도 그 당시에 평민이 짓는 양식입니다. 이 집이 한 번 화재가 났었다고 해요. 그 때 서까래와 대들보 모두 불에 타고, 거의 뼈대만 남았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상량할 때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당시 영국 트레이커 씨가 이 집에 초대받아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옛날 사진 찍을 때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이 건물은 이사를 가면서 대대적으로 원형 복구를 했어요. 현재 교회에서 영성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성수련원은 일반적인 기도원과 는 다릅니다. 여기에 와서 명상하고, 작은 세미나, 성경공부, 말씀수련, 기도 모임 등을 합니다. 외부에는 본격적으로 알리지 않고, 알음알음으로 와서 모임 장소로 쓰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합니다. 개방을 하면 감당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는 그룹이 여럿 있어서 신청을 받고, 배정을 해서 쓰고 있어요.

정규적인 프로그램은 없지만 앞으로 여기에만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이 있습니다. 영성신학교 교수와 팀을 짜서 제자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

는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고, 영성수련원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정도입니다.

독일대사관에서 다문화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곳의 대사관 부인 모임에서 전통 다도를 공부한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우리가 대관을 해주었고, 대사관에도 교회분들이 초대받아서 갑니다. 또 특별히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폐백을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다들 좋아하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덕수교회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덕수교회의 활동은 주로 사회복지프로그램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독거노인 방문 등 20여 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방하고,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했어요. 맞벌이 부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도 만들었고 사회가 발전하고 평균연령이 높아진 것을 고려해 노인복지시설도 확충했습니다. 특히 노인 데이케어센터는 지금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봉사와 나눔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카페는 개방해서 주민이 애용하는 명소가 되었어요. 찻값이 싸고, 조용하고,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과학고등학교나 주변 학부모임의 장소가 되었어요. 길상사 스님들이 커피마실 때 이쪽으로 오고, 교회에서도 차 마실 때 길상사로 가기도 합니다. 북카페는 단순한 카페라기 보다는 문화행사를 하는 문화카페예요. 시인들을 모셔서 시낭송회, 작은 음악회 등을 하는 문화공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발행하는 '성북골'이라는 지역신문과 '찍'이라는 청소년신문을 합쳐 최근 'with us' 라는 격월잡지를 만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월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with us' 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웃도 우리와 함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사 소개를 하고, 구청장도 새로

오시면 인터뷰를 해서 소개를 합니다. 교회 내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편집 위원이 되어 활동하지만 직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북동이 콘텐츠가 살아있는 멋진 동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동네는 부자동네이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낙후되어 있거나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서 좋은 동네를 만들자는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추진할 때 전문가들이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잘 세워서 지역의 자연환경에도 맞고,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문화적으로도 잘 보존이 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멋진 동네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추억이 가득한 성북동의 옛 이야기와 함께 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옛 모습의 가치를 잃어가는 지역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또한 지역에 오래 터를 잡고 사는 주민의 이야기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스토리를 만드는 가치 있는 자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옛 선조들이 남겨놓은 그 모습 그대로 소중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을 새롭게 하는 스토리를 입힌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만의 문화를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고향 같은 동네 성북동과 함께 해온 성북동 성당

안병노 성북동 성당 사무장



- 일시: 2013년 3월 7일
- 장소: 성북동 성당 사무실

성북동 성당의 안병노 사무장은 성북동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최근까지 성북초등학교 27회 동창회에서 회장을 맡았으며, 성북동 성당에서도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성북동의 과거 모습, 추억에 관해서, 또 성북동 성당의 역사와 종교연합 바자회, 외국어 미사, 성당 신자들의 지역봉사 활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성북동만이 가지고 있는 고향과 같은 정과 끈끈함, 성북동이 가진 숨은 명소들에 대한 사랑과 함께, 최근 상업화되는 성북동의 모습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었다.

어렸을 때와 비교하여 크게 바뀐 것은 없어요. 고향 같은, 진짜 시골동네 같은 동네죠

62년생인데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성북초등학교를 나왔고, 지금은 정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따로 활동하는 것은 없고, 다만 초등학교 동창회를 하고 있죠. 작년까지는 성북초등학교 27회 회장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와 길이나 그런 것이 크게 바뀐 것은 없어요. 좁다란 길이 좀 넓어졌지만 틀은 그대로입니다. 성곽 쪽으로 걸어 올라가는 길이 너무 예쁘죠. 밤에 조명이 탁 켜져서 멀리서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공기 좋고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진짜 정감 있고, 이웃 간에 정을 많이 나누고, 서로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지낼 정도로 친하고 끈끈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사람 사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세상이잖아요. 뭐라도 하나 있으면 같이 나눠먹고, 애정사가 있으면 슬픔도 기쁨도 서로 나누면서 사는 곳이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너무나 엄마 품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죠.

여기는 유동인구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고향 같은, 진짜 시골동네 같은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죠. 나도 이 동네에서 태어났지만 여기서 죽을 생각을 할 정도로 어디로 가기 싫어요. 참 이쁜 동네인 것 같아요. 제 초등학교 동창들은 다른 지역으로 많이 나갔지만 ‘나라도 여기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어릴 때 성북천에서 가재도 잡았어요.

예전 버스 종점이 있는 곳에서 목욕도 하고 그랬었죠. 그 밑으로 개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 위쪽에서 물장구도 치고 가재도 잡아서 구워먹고 그랬습니다. 뱀도 있었구요. 하천을 복원시킨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복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진정한 성북동

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공소에서 시작해서 오늘날의 성북동 성당이 되었죠.

성북동 성당은 1975년 9월 8일, 교구에서 정식으로 인가가 되었죠. 혜화동 성당에서 분당된 거예요. 저 밑에 조그만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 옆에 개인주택을 전세로 얻어서 공소같이 시작했습니다. 2대 신부인 최순웅 야고보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여기 부지를 매입하였죠. 지금은 성당 건축가에 대한 정보나 설계도면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맨 처음 성당을 지을 때 민원이 많았었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성당을 건립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1975년에 인가받아서 1980년도에 건물을 짓고 이곳에서 시작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성북동 성당을 찾고 있어요.

성북동 성당의 신자는 총 2천 명이 더 되는데, 주일날 나오는 신자는 7백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북동에 대사관저가 많아요. 현재 2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가톨릭 신자가 많아요. 한남동이나 이태원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성북동 성당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진행되는 외국어 미사를 시작한 지도 12~13년 정도 되었죠. 영어 미사는 동소문동쪽에 보면,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라고 있어요. 그곳 신부님이 오셔서 영어로 미사를 해주십니다. 아일랜드 계통 신부님이신 것 같아요. 미사 참례자 수는 40~50명 정도 됩니다. 대사관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오시지만,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영어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수녀님들도 오시고 있습니다.

성북동 성당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성북동 성당은 늘 개방하고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근래 들어와서 산책로나, 길상사 쪽으로 올라가면서 여기도 등산객들이 많이 들르더라고요. 그냥 구경도 하고 가고, 성당도 보고 가기도 합니다. 또 복지관(은총관)도 둘러보고 그러죠.

성당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불편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당이 미사만 하고 문 닫는 그런 곳은 아니죠. 지금같이 오픈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지나가다가 ‘어 성당이 있네, 아 이쁘네’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당입구에 자료나 성당을 소개하는 책자 등을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런 정도지 크게 홍보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북동에서 성당 신자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위쪽에 성가정입양원이라고 있는데,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곳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저귀 빨래를 하는 등 봉사를 하고 있죠. 한 달에 20명 정도 봉사에 참여하시는데 신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신자가 아닌 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매달 2백만 원 정도 모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운영하시는 분들은 수녀님과 신부님들이고 교구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로 등록되어 근무하시는 분들이 6~7명 정도 됩니다.

길상사, 덕수교회와 함께 종교연합 바자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교연합 바자회는 덕수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죠. 덕수교회 목자님이 ‘이런 것(종교연합 바자회)을 하자!’ 해서 시작했어요. 성당하고 길상사하고 1년에 한 번씩 성북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바자회를 해요. 보통 이익금이 생기면, 청소년 15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종교연합 바자회를

못했어요. 성북초등학교가 체육관을 크게 짓는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도 장학금은 줘야 되니까 덕수교회, 성당, 길상사 스스로 기금을 마련해서 장학금을 집행했죠.

종교연합 바자회는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는데, 올해는 성당에서 주관해서 10월 26일에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바자회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이동쪽에서도 3개 종교 연합 바자회가 있고,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덕수교회에서는 의류 협찬을 받아서 하고, 성당에서는 주로 먹거리를 만들어서 팔고 헌옷도 기증받아서 팔았습니다. 성북동 성당에서 보통 60~70명 이상 봉사자들이 참여하죠. 음식이라고 해서 간단히 하는 것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봉사를 하게 되죠. 올해 5월에는 성당 자체 바자회가 있는데, 이 바자회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시내와 가깝고 공기가 좋은 곳 성북동의 모습이 요즘은 퇴색되는 것 같아요.

성북동처럼 시내와 가깝고 공기가 이렇게 좋은 곳이 없어요. 아직까지 덜 오염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청동이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카페나 가게들이 성북동까지 넘어온 것 같아요. 저 입구 쪽에 카페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요즘 들어 성북동의 모습이 너무 퇴색해가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발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개발되어가면서 맑고 깨끗한 성북동이 퇴색해가는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받고 있습니다.

카페나 음식점들이 주택가의 턱밑에까지 왔어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 생기는 상황이죠. 기존의 성북동의 모습이 상업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성북동의 모습을 보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것이 우리 것만은 아니니까요. 물려줘야 되는데 임의대로 개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북동은 주차가 문제죠.

성북동은 주차문제가 사실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일이면 주차장이 한 정되어 있다 보니까 겨우 10대 정도를 댈 수 있어서 미사에 오는 분들이 밖에 주차를 하게 되죠. 주차안내를 하지만 등산객이나 동네주민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북동이 공용주차장도 없고, 음식점도 계속 생기다 보니 주차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쌍다리길 쪽도 그렇고 오박사 돈가스점 쪽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죠. 공용주차장을 만들 만한 장소도 딱히 없어서 문제죠. 구청에서 공용부지가 있어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면 조금이라도 나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북동이 지금 모습을 보존했으면 좋겠네요.

성북동이 이 모습 그대로 보존되었으면 좋겠네요. 손을 대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우리만의 것이 아니니까요.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인데 인위적으로 손대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어떤 것은 허가되고 어떤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는 제한을 두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전통찻집이나 공예방 같은 것은 성북동의 모습과 이미지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지금 성북동에 젊은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고령화되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밖에 안 계시는데, 향후 10년 후에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성북동 지킴이를 어르신들로부터 대물림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무소유를 실천하는 ‘맑고 향기롭게’

홍정근 길상사 부설 (사)맑고향기롭게 사무국장



- 일시: 2013년 3월 12일
- 장소: 길상사 경내 (사)맑고향기롭게 사무실

‘맑고향기롭게’는 법정스님 주변에 있던 ‘길상회’라는 공부모임에서 출발하여, 사람의 마음, 세상,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시민모임이다. 홍정근 사무국장은 현재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 법인 및 중앙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홍정근 사무국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불교신자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맑고향기롭게의 활동내용, 길상사, 법정스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북동의 유래와 과거모습, 길상사, 심우장, 숲기행 등 성북구의 다양한 자원들의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었다.

가난과 부유함이 공존하는 곳이 성북동이죠.

성북동은 사실 빈민촌이었어요. 성북동이 왜 성북동인지 아시잖아요. 성북쪽에 있는 동네라 해서 옛날 조선시대에는 성안에서 쫓겨난 사람들, 양반이 아닌 평민들, 상민들이 성곽 주변에 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곳이 부촌으로 개발됩니다. 판자촌이 기와집으로 바뀌고, 삼청터널이 생기고 청와대와 가까워지니 외교관과 대사관이 들어온 것이죠. 옛날에는 김영한 보살님이 대원각을 처음 구입할 때 여기는 배나무 밭이었다고 해요. 그랬던 동네가 지금의 성북동이 된 것이지요.

저는 성북동을 ‘가난과 부가 공존하는 동네’라고 말하고 싶네요. 여기 있는 대사관, 외교관뿐만 아니라 재벌들 부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개방을 하지 않는다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아 집 크다’ 정도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서민이 살고 있는 지역하고는 워낙 판 세상이고 빈부격차가 있지만 높은 벽에 가로막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빈부차이가 있는 동네라기 보다는 공존하는 동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지역의 비전도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야 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세상과 자연을 ‘맑고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의 심성입니다.

‘맑고향기롭게’ 모임은 법정스님께서 창립을 하신 모임으로 1994년 3월 26일에 첫 발족식을 했어요. 법정스님 주변에 ‘길상회’라는 공부모임이 있었어요. 그분들과 같이 ‘맑고향기롭게’을 발족했습니다. ‘맑고향기롭게’은 ‘우리 마음, 세상,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면서 실천하자’는 9가지 실천 덕목이 있고, 이를 실천하는 모임이죠.

법정스님께서 처음에 모임을 시작할 때 중점을 둔 것이 마음사업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맑고 향기로워져야 세상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세상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의 심성이다’ 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출발한 ‘맑고향기롭게’ 는 1996년 정식으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습니다.

‘맑고향기롭게’ 의 주요활동으로는 크게 ‘마음’ ‘세상’ ‘자연’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 사업으로는 월간 소식지 ‘맑고향기롭게’ 를 1995년부터 발간하고 있고요. ‘맑고향기롭게 연꽃스티커’ 는 1994년부터 배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만남도 가지고 있고, 수련회는 ‘맑고향기롭게’ 에서 시작해서 현재 길상사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세상’ 사업으로는 성북구 관내 대상으로 독거노인 250가구 이상 전체 420가구(동대문구, 종로구 등)에 매주 밑반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월 장애인 시설에 봉사활동을 진행하구요. 이외에도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의료비, 수술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 사업은 처음에는 중고등학교 장학금으로 시작했다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지금은 고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자연’ 사업으로 녹색나눔장터, 의류재활용 리폼 등의 활동을 하면서 녹색장터나 의류리폼, 천연화장품 비누 만들기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을 가지고 또 의료비나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한두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데 비해서 포괄적인 편입니다.

‘맑고향기롭게’ 의 템플스테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템플스테이라는 말은 송광사에 구산스님이 처음으로 만들어서 범정스님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 이전에는 사찰수련회였죠. 길상사가 범정스님께서 창건한 절이니까 여기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초기 길상사의 템플스테이는 선(禪)수련회였고, ‘맑고향기롭게’ 의 수련회였죠. 하지만 현재 템플스테이는 사찰체험이에요. 예전과 좀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기 위해 오고 있어요. 다도, 선제조, 예불, 다선, 발우공양, 스님과의 대화 등 짧은 시간에 압

축적으로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맑고향기롭게’ 회원들을 위한 수련회도 다시 복원해보려고 해요.

외국인들은 별도의 템플라이프라고 해서 당일치기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조사했던 자료가 있는데 ‘맑고향기롭게’의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신자와 비신자 비율은 7:3 정도 됩니다. 전체 평균 50명 중에 기독교인들도 5~10% 정도 됩니다. 3~4분은 기독교인이요, 천주교 신자는 좀 더 많습니다. 14~15분 정도는 타종교인이고 무교도 많습니다. 다른 사찰에 비해서는 비신자 비율이 높은 편이죠. 법정스님께서 타종교와 화합을 원하셨고, 원불교 교무님, 천주교 신부님들과 교류가 있으셨습니다. 길상사 앞에 있는 관세음보살상도 천주교 신자인 최종태 교수님이 만드셨죠. 이런 이유로 타종교인들이 수련회에 참여를 한다면 길상사가 먼저 떠오르겠죠. 처음에 시작하실 때 내부 방침도 신자 비신자 구분 없이 받자고 하였습니다. ‘맑고향기롭게’ 자체는 범종교 범종파적인 단체이거든요. 불교적인 단체일 뿐이지 꼭 불교인만을 위한 단체는 아닙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던 분들은 108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108배를 어떻게 하나 했는데, 하고나니 너무 뿌듯했다고 해요. 또 스님과 차담시간에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고, 스님이 불교적인 이야기로 상담을 하는 부분이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길상사는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있는 곳이죠.

가끔 길상사 안내하는 일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건성으로 보고, 어떤 분들은 길상사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2시간 설명해도 부족할 만큼 이야깃거리가 많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길상사는 법정스님, 김영한 보살, ‘맑고향기롭게’가 함께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법정스님께서 딱 하루밤 길상사에서 머무신 곳이 ‘행지실’

인테 이곳도 지난 3월7일부터 상시 개방을 했어요.

길상사에는 법정스님 진영, 유품, 법정스님 생전 출간한 도서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차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차와 다기세트가 모여져 있습니다. 길상사를 기증하신 김영한 보살의 공덕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세음보살상도 있네요.

이 관세음보살상이 또 이야깃거리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상을 2000년에 세웠는데 조각하신 분이 최종태 교수님이라고 천주교 신자셨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종태 교수님은 여인상을 조각하시는 분이셨어요. 천주교 쪽에서 유명한 성당의 성모상들을 조각하셨습니다. 그분이 불교 미륵반가사유상을 보고 엄청난 에너지를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불교미술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중에서 관세음보살상을 하고 싶은데, 어느 절에서도 하라고 하는 곳이 없었죠.

‘맑고향기롭게’ 초기 이사 중에서 정채봉 동화작가가 계신데, 두 분이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최종태 교수님이 정채봉 작가님을 통해 길상사에 관세음보살상을 하고 싶다는 뜻을 보이셨고, 법정스님이 허락하셨죠. 법정스님이 김수환 추기경님을 만나서 천주교 쪽의 허락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법정스님께서는 최종태 교수님에게 관세음보살상을 만들면서 화관(花冠)(꽃), 시무외인(施無畏印), 구고(救苦, 손 모양), 정병(淨瓶) 3가지만 지켜달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말씀은 없으셨대요. 그래서 길상사 관세음보살상의 하체는 소녀상의 느낌이고, 상체는 보시기에 성모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또 미륵반가사유상의 느낌이 나와요.

길상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죠.

김영한 보살님이 법정스님께 기증하고 길상사를 개원할 때 ‘대원각이 길상으로 바뀌는데, 공원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

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청을 했고, 법정스님께서 그 청에 대한 답변으로 ‘길상사는 불자가 아닌 누구라도 쉬었다 갈 수 있는 절이 되어야 한다.’ 고 말씀 하셨죠.

길상사가 ‘맑고향기롭게’의 근본도량이거든요. ‘맑고향기롭게’는 시민운동을 하는 곳이잖아요. 길상사는 시민과 시민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자들이나 시민이 와서 수련하면서 ‘맑고향기롭게 운동’에 동참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수행과 실천이 공존하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침묵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방에서 좌선과 명상을 할 수 있어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길상선원이라고 있는데 이곳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인들, 제가자들이 10시부터 5시까지 스님들처럼 좌선을 하고 명상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시민선방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길상사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지만, 기본적으로 도량이기 때문에 사찰에서 지켜야하는 에티켓은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북동 주변을 테마로 한 숲기행도 관찰은 프로그램이죠.

성북동에서는 ‘숲기행’ 프로그램을 두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코스를 북촌 한옥마을에서 삼청동, 삼청각 뒤쪽의 북정문, 김신조 루트 정도로 해서 숲기행을 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는 부촌, 반대쪽은 서민층이잖아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그쪽 동네와 이쪽 동네 골목길을 코스로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부촌 동네를 테마로 잡아서 코스로 걸어도 얼마든지 될 것 같아요. 삭막함과 닫힘, 그리고 대저택을 상품화하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항상 보면 닫혀 있어요. 여기 외교관 대사관저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 대사관 외교관 같은 곳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데, 이런 곳들을 연결하는 코스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길상사 위쪽으로 스카이웨이, 삼청각 뒤쪽으로 김신조 루트, 심우장과 와룡공원 세 코스가 있어요.

길상사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성북동 명소 중의 한 곳이죠.

성북동에는 잘 알려진 명소가 많은데 심우장, 이태준가옥, 간송미술관, 최순우옛집, 선잠단지, 삼청각 그리고 길상사가 있습니다. 길상사 외에도 북악스카이웨이, 심우장은 저도 개인적으로 자주 가는 곳이죠.

간송미술관이 일 년에 두 번 오픈되죠? 이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거든요. 간송미술관을 방문한 사람들의 기본 코스가 인터넷에 간송미술관-심우장-길상사 그다음에 이태준 고택, 길상사는 점심 공양코스로 소문이 났다고 해요.

길상사를 찾을 때 불편한 점은 인도가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인도가 있다가 없어진다거나, 인도가 없는 접근로도 있어요. 아무래도 성북동의 부촌은 다 차로 움직이니까 인도의 필요를 못 느껴서 그런 것도 같습니다. 길상사를 찾아오는 다양한 분들을 위해서 인도가 필요하고, 안내표지판도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을버스 같은 대중교통노선도 방문객들을 위해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역사적인 전통과 한옥, 더 나은 주민의 삶이 있는 성북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 한옥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전통이나 한옥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어서 아파트나 재개발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주택이 좀 예쁘게 가꿔지면 좋겠네요. 특히 성북동 비둘기가 그려져 있는 북정마을 같은 동네에는 보수와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북구 마니아 스님

혜강 성북동 관음사 주지 스님



2012년 11월 9일, 성북동 관음사에서 주지 스님인 혜강스님을 만났다. 성북동 복지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혜강스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며 구나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하였다. 성북동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장소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되, 주민이 쉴 수 있는 열린 공간, 따뜻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스님은 성북동이 따뜻하고 편안한 동네가 돼서 우울하고 힘들 때 성북동을 걸으면 편안해지는 그런 곳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나는 '성북구 마니아' 입니다.

성북동에 거주한 지는 한 20년 됐고, 성북구에 산 지는 45년 됐어요. 정릉동의 고려중학교 앞 5층짜리 건물에 있다가 이리로 왔어요. 20년 전에 이 동네에 길을 낸다고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20년 전에도 성북동이 앞으로 크게 발전할 거란 얘기가 있었지만 전혀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팬데만 굴리고 있으면 안 돼요. 현장에 나와서 봐야 해요. 불교대학과 관음사는 딱 20년 됐어요. 원래는 이곳에 전직 국회의원이 기거했어요. 관음사의 다른 건물은 어느 국가였는지는 잊어버렸는데 대사관저였어요. 우리가 와서 법당과 정원을 새로 꾸몄죠. 개인적인 얘기지만 나는 승적에 이름을 올린 지가 35년이 됐어요. 지금은 한 달에 네 번 씩 법회를 열고, 불교교육을 해요. 그리고 봉사에 힘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협업체 일도 하고 있는 거죠.

관음사 신도들은 한 2천 명 정도 돼요. 성북동에 거주하는 신도들도 많지만, 기독교 신자들은 보통 가까운 교회에 가잖아요? 불교는 기독교와 달라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 달에 실질적으로 오는 신도들은 5백 명 정도 돼요. IMF 전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난 성북구 마니아예요. 처음에 정릉에서 성북동으로 옮길 때 당시 구청장이 말렸어요. 성북동은 소위 말하는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곳에서 목탁치고 염불 외면 소음이라고 주민이 싫어한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하지만 결국엔 성북동으로 왔죠. 성북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문인들이 살았던 곳이잖아요? 경관도 아름다운 곳이죠. 성북동이 좋은 이유를 꼽자면 첫째, 공기가 좋아요. 둘째, 도심과 가까워요. 셋째, 전 구청장이 걱정했던 부자들의 간섭이나 터치가 전혀 없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성북동 복지협의체 위원장직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왕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은 거,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길음동이나 다른 동들은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모금활동을 하더라도 주민의 동참이나 협력을 얻기 쉬워요. 월곡동이나 정릉동 같은 경우는 달동네가 많죠. 성북동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들어요. 소위 말하는 있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못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못사는 사람들이 본인들보다 더 없이 사는 사람들을 도와줘요.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아요. 도움 받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복지협의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구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해요. 우리 복지협의체에서는 바자회 수익으로 기금을 만들어요. 성북구청 앞에서 하는 바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알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 바자회도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어요.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기부를 부탁하면 사람들이 참가를 거부해요. 그래서 복지 분야가 아직도 길이 멀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성북동이 앞으로 더 따뜻하고 편안한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북동에 있는 문학인들 생각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를 있는 그대로 보존은 하되, 지역 주민이 쉽게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 따뜻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바람입니다만 성북동에 유흥업소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카페나 전통 찻집이나 그런 곳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불교에 대해 알려주는 강습소 같은 곳도 하나 정도 생겼으면 좋겠네요. 노인대학 같은 시설도요.

삼청터널과 북악터널 주위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북동 같아요.

이쪽도 좀 시원시원하게 길도 내주고, 깨끗하게 정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그쪽은(고급 주택가) 사람이 쉴 만한 쉼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 관광지를 둘러보고 차 한 잔 하러 결국에는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이곳 환경이 쾌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거리가 꼭 재정비되어야 해요. 향후 10년이나 20년 후 성북동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거리는 못 되더라도 따뜻하고 편안한 거리, 동네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울하고 힘들 때 와서 걸으면 편안해지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북동을 한 단어로 말하라면 저는 ‘바람’이라 표현하고 싶어요. 아직은 바람처럼 흔들리는, 정착이 안 된 곳이에요. 비판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시에서, 구에서 좋은 아이디어, 정책,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잘 실현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느 것 하나 고정도 안 되어 있고, 실천도 안 돼요. 아직은 갈대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아름다운 성북동이란 표현을 못 쓰겠어요. 아름다운 성북동, 살기 좋은 성북동을 만들기 위해선 이 곳 부자들이 주위 이웃들도 좀 살피는 풍토가 생겨나야 한다고 봐요.

부록

성북동 마을사진전

성북동 마을 사진전



“성북동의 옛날을 기억하는 주민이 장롱 서랍에 깊이
감춰두었던 사진을 꺼내 툭툭 먼지를 털어냈고, 성북
동에서 살아온 작가가 그 사진을 모아 기억 속 골목
을 재현해냈다.”

최성수 시인 〈서울 지붕 첫 마을, 성북동 옛날 사진전〉에서

‘성북동마을사진전’에 소개된 사진은 서울지붕첫마을, 성북동옛날사진전(2013.9.13~9.29, 오뉴월갤러리)에 전시
한 사진으로, 사진을 제공한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실은 것입니다.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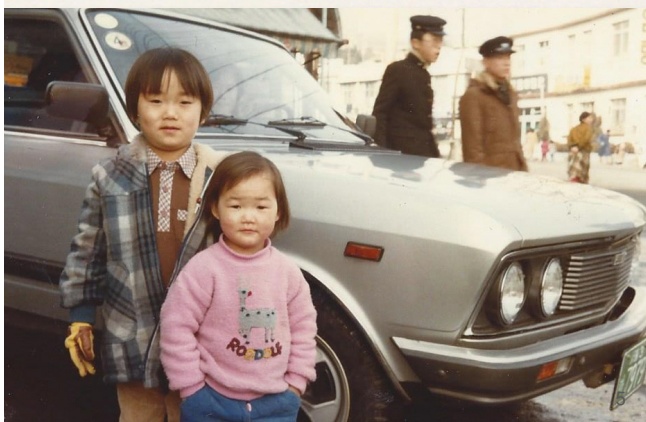


6



7

1, 2 김민정 / 집 앞에서 / 1980년 3 김민정 / 성북초등학교 졸업식 / 1987년 4 옆집 종각과 김민정 / 1981년
5 임덕환씨 아이들과 동네친구들 6, 7 김하늬 / 성북초등학교 운동회 / 1990년



1, 2 임덕환 씨 아이들 / 1979년 3, 4 임덕환 씨 아이들과 동네 친구들 / 1979년
5 임덕환 씨 아이들 / 성암당 앞에서 / 1981년 6 임호경 / 1988년



7, 8, 9 윤중식 / 성북동 동네 풍경 10, 11, 12 이선화 씨 가족

골목으로 이루어진
 만물은
 얼마나 포근한가
 사랑들은 아침이면
 그 골목을 경어나와
 발터들 가고
 저녁이면
 그 골목을 걸어
 집으로 들어간다
 아이들은 골목에 코끼리
 뛰어놀고
 골목은 아이들에게
 귀뚜라미
 제물을 내어주며 자라게 한다
 성북동에서 골목은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이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고
 성장의 줄이 터가 된다
 나 역시
 그 골목에서 자랐고,
 골목을 나와
 세상에 부딪히며 살았다

—여운중, 최성수(시인, 성북구민)

서울제1청마루, 성북동 옛날사진전



성북동 (Seongsuk-dong) | 110 x 73.33 (cm) | ps